2022 뿌리의집 연구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기초연구

뿌리의집
KOROOT

발행정보

2022 뿌리의집 연구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기초연구

발행일 2022. 9. 15.
발행처 사단법인 뿌리의집
발행인 김도현
책임연구자 김호수(뉴욕주립대학교 스테이튼 칼리지)
입양인서베이분석 우성희(듣는연구소)
설문응답번역 채선도
연구지원 황선미 김창선 전세희
기획편집 황선미 김창선
주소 0303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25-10
전화 02-3210-2451
팩스 02-3210-2453
홈페이지 www.koroot.org
디자인 · 인쇄 해든디앤피

copyrightⓒKoRoot. All rights reserved.

차 례

Ⅰ. 연구개요 005

1. 연구배경과 목적 007
2. 연구내용 010
3. 연구방법 010
4. 설문조사개요 011

Ⅱ. 조사 결과 015

1. 입양인 설문조사 017
   1) 응답자 배경
   2) 입양기관에 대한 정보요청
   3) 가족찾기
   4) 친생가족 상봉 경험
   5) 상봉 이후
   6) 상봉 이후 친생가족과의 관계
   7) 재회에 관한 소회

2. 친생가족 심층인터뷰 088
   1) 재회와 한국의 친생가족
   2) 참여 가족의 개별 서사
      (1) 친생모와 해외입양
      (2) 장애와 해외입양
      (3) 실종과 해외입양
      (4) 친생부모가 아닌 그 외 친생가족이 입양인을 찾는 경우
      (5) 유전자 검사로 입양인을 찾고 확인한 경우
   3) 분석 : 친생가족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재회의 과정과 의미
   4) 소결

Ⅲ. 제언 127

1. 입양인 응답자의 제언 129
2. 친생가족이 정부와 기관에 바라는 점 145

Ⅳ. 결론 149

1. 시사점과 제언 151
2. 의의와 한계 156

참고문헌 159

[부록 1] 배경정보(관련 제도, 이해관계자, 재회과정) 163
[부록 2] 입양인 응답자가 재회를 원하는 입양인들에게 주는 조언 175
[부록 3] 설문조사지(입양인 서베이 설문지〈영문〉) 177

에필로그 197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설문조사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사단법인 뿌리의집과 해외입양역사에서의 친생모를 주제로 연구해 온 뉴욕시립대학교 김호수 교수가 각자의 활동과 연구를 통해 도달한 문제의식 – 지난 70년간 해외입양사업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성장해 온 이십여 만 명의 해외입양인과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들의 한국친생가족들의 삶의 경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위로할 것인가? – 에서 기획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의식을 현재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의 재회를 향한 집단적 갈증과 경험을 분석하면서 해외입양실천과 담론을 더 이상 개개인의 불운이나 성공, 성장 서사가 아닌 사회적 기억, 그리고 국가와 공공영역의 책임의 장으로 견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외입양인–친생가족의 (1) 실질적인 재회의 노력, 과정을 통해 본 재회 현황, 절차를 파악하고, (2) 당사자의 관점에서 현행제도의 개선점과 재회의 의미를 환기함으로써, (3) 재회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제언을 목표로 한다.

해외입양인의 재회에 관한 최초 연구라 할 수 있는 박인선의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연구」 (1994)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2013)에 이르기까지, 선행연구는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 재회에 대한 의지를 '일탈이 아닌 지극히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연구 (2013)에서 전체 1028명의 해외입양인 응답자 중, 친생가족을 '찾고 싶다'는 응답자는 82 %, '시도해 보았다'는 응답자는 72.1 %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 또한 해외입양인의 재회 의지는 한국 태생의 입양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Tieman, van der Ende, 그리고 Verhulst (2008)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간 입양을 통해 네델란드에 정착한 입양인들 가운데 63%가 친생부모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찾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사라 도칸 2016년 논문 재인용).

---

1) 국외입양인들의 재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은 국외입양인 문화기획자, 연구자, 예술가등의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몇몇 작품만 언급해도, 태미 톨레의 '고향찾기' (Searching for Go–hyang, 1998) and Resilience, Deann Borshay Liem's First Person Plural (2000), Kate Hers–Rhee's Missing (2006), In the Matter of Cha Jung Hee (2010), Lisa Wool–Rim Sjöblom's Palimpsest (2019)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입양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재회의 노정과 그 여정에서 가장 빈번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양정보의 누락이나 소실, 그리고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과의 재회가 자신의 태생에 대한 알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 및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데 비해, 친생가족의 재회 의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적다. 김호수의 저서, 『한국의 해외입양과 친생모』(원제: Transnational Adoption Practice and Birthmothers in South Korea, 2016) 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 명의 친생모가 거쳐간 '다음' 커뮤니티 "아이를 입양 보낸 엄마들의 슬픈 사랑이야기"에서는 거의 모든 친생모가 입양 후 재회를 염원하고 있었고, 또 같은 연구서에서 다루어진 친생모 구술사 연구에 따르면, 친생모가 재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경우가 22명의 구술 중 반 정도가 되었다. 또한 2014년 이래 뿌리의 집에 재회를 희망하며, 유전자 검사 등록을 의뢰한 친생 가족이 100명을 넘는다. 친생가족의 재회에 대한 의지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것은, 친생가족의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입양 보낸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질타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2000년대 이후 매년 약 4천여 명의 입양인이 친생가족 찾기를 비롯한 여러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후지원 서비스 제도와 전담 기관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주로 입양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관을 통한 가족찾기와 재회가 이루어져왔는데, 가족찾기를 비롯한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기관으로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2]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공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을 찾으려는 입양인과 친생부모는 개별적으로 직접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방문하여 입양기관을 찾아가 가족의 정보를 찾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경찰서와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결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해외입양인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뿌리의집은 매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재회 과정을 지켜보고 조력해오면서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목격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2)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Korea Adoption Services, KAS)은 입양특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2012년 8월 5일 설립되었으며,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 및 확산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CRC)으로 통합되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7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었던 여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그에 따라 그동안 입양 정책을 총괄해오던 중앙입양원도 통합시키게 되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의 업무를 승계하게 되었다.

사단법인 뿌리의집 (www.koroot.org)

뿌리의집(www.koroot.org)은 2003년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을 돕고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모국방문 해외입양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찾기와 모국생활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5천여 명이 머물렀다. 해외입양인 권익옹호를 위한 인식개선 운동과 법제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입양 전문서적의 발간 및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1년에는 해외입양인단체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을 비롯한 연대단체들과 함께 입양특례법 개정을 이루었고, 같은 해부터 9년 동안 '싱글맘의 날'을 기념했다. 2021년에는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 사례보고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입양인의 재회의 의지와 실천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불우한 과거와 극복의 서사, 그리고 자연화된 회귀의 서사로서 관망하는 것을 경계한다. 본 연구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의 시도, 그 제반의 경험과 난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해외입양이 아동의 송출사건으로 일단락된 과거가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이며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다. 또한, 해외입양인의 재회를 향한 실천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의 재회가 한국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적절한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가 살펴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양측에게 재회의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입양정보에 관한 접근 권리, 입양서류의 부정확성 또는 의도적 조작 및 조력관계기관과의 의사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회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직접적인 일차 조력기관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및 정부기관과의 접촉과 소통의 경험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지원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점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재회에 관련된 응답자의 경험을 자기 기입형 반구조적 질문지와 서술답변 그리고 친생가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데이터를 구축했다. 질문지는 응답자 각 개인이 경험한 입양서류에 관한 접근도와 정확성, 주요 조력기관과의 소통과 신뢰구축의 과정 및 진행상황 공유 등 의사소통에 제반한 경험, 그리고 재회 경험에 대한 응답자들의 소회,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경험한 재회조력시스템에 관한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참여를 위한 입양인응답자의 모집은 뿌리의 집이 주관하는 행사와 게스트하우스의 이용으로 관리하고 있던 입양인 이메일과 페이스북 계정, 그 밖의 입양인 지원단체, (325 KAMRA) 와 (Me & Korea) 등의 입양인 연락망을 통해 2020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12개국에 살고 있는 171명의 국외입양인이 참여하였다. 해외입양인 재회연구 기초질문지는 총 응답자에 관한 기본 인적 정보 6개 문항과 주제별 7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진 총 6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어로 작성되었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10인의 친생 가족은 325 캄라[3]에서 소개받은 5인, 그리고 뿌리의 집이 활동을 통해 알고 있던 5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모두가 325 캄라에서 주관하는 친생가족 유전자 검사등록에 참여한 바 있다. 이 중 생모 6인, 생부 1인, 형제 1인,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입양에 직접 관여한 고모와 외삼촌이다. 친생가족의 설문조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뿌리의 집에서 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으며, 이 인터뷰는 녹음 · 녹취를 통해 설문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해외입양인연합 325캄라[325KAMRA](www.325kamra.org)는 자신의 역사를 찾으려는 모든 입양인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며,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이다. 325캄라는 구강상피세포를 사용하는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FTDNA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친생가족을 찾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한국, 미국, 유럽, 호주에 있는 해외입양인에게 유전자키트 제공, 한국의 친생가족에게 유전자 검사 제공, 친생가족을 찾고 있는 입양인과 입양인을 찾고 있는 친생가족 지원, 재회한 입양인과 가족 지원 등이 있다. 사단법인 뿌리의집은 325KAMRA(해외입양인연합)의 한국파트너로 2016년부터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보낸 친생부모/가족과 해외입양인들의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유전자 검사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구분	입양인 서베이	친생가족 인터뷰
조사 도구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한 62개 문항의 영어로 작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지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한 65개 문항의 한글로 작성된 기입식 설문지
모집	〈뿌리의집〉에 숙박한 입양인 및 행사 참여자 이메일 및 Facebook, 입양인 지원단체 〈325 KAMRA〉, 〈Me&Korea〉 등 홍보	〈뿌리의집〉의 연대해온 친생가족모임 및 해외입양인 유전자 등록 지원단체인 〈325KAMRA〉의 협력을 통해 인터뷰 참가자 선정
조사 기간	설문조사 2020.2.11.~3.10.	인터뷰 2019.07.~2020.1.
응답	총 171개의 응답이 회수됨. 45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조사이며, 서술형 질문이 많지만 답변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질문과 답변은 영어로 작성되었다.	총 10명의 인터뷰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질문지에 답변을 기재하였다.

4. 설문조사 개요

조사문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재회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조사했다. 둘째,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 기대하는 역할과 실질적인 협력의 정도를 조사하는 문항과 그 밖의 시민단체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배치하였다. 셋째, 열린 질문을 통해 입양인들과 친생가족분들이 생각하는 재회의 의미를 조사하고, 재회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기관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제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입양인 서베이 질문지

섹션	조사 항목
1. 기본인적정보	이름, 생년월일, 해외입양인과 본인의 관계, 입양연도, 응답자가 부모인 경우, 아이와 헤어진 곳, 입양한 경로
2. 재회의경험	재회여부, 재회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기관, 재회시점, 연락방법, 감정, 재회시점 및 장소, 재회소요시간, 동석자, 재회 후 만남여부 등
3. 재회를 위한 노력	입양기관, 중앙입양원 연락여부, 유전자검사 여부, 그 외 재회노력
4. 재회의 어려움	재회의 노력(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을 통한 시도, 유전자검사 등)
5. 재회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회서비스, 언어 및 통역지원, 법적 지원, 경제적 지원
6. 입양경험	임신 및 출산 당시 거주지역, 시설의 도움유무, 입양기관과의 상담절차, 입양결정 시 영향을 미친사람 등
7. 재회 이후의 내면, 상황	재회이후 연락지속여부, 방법, 삶에 미친 영향 및 변화, 재회의 의미
8. 제언	재회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제언 및 기관들에 대한 제언

2) 친생가족 인터뷰 질문지

섹션	조사 항목
1. 기본인구통계	입양연도, 출생연도, 입양국, 성별, 입양기관(한국, 입양국), 이메일
2. 배경정보	한국 방문 횟수, 방문경로, 가족찾기 희망여부, 입양기관 연락경험, 유전자 등록 여부, 한국가족재회경험, 양부모에게 입양기록수령 여부와 내용
3. 입양정보 요청	연락방식,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추가정보 제공여부, 열람가능한 입양서류, 복사본 수령여부, 입양기관 방문 횟수, 동행자, 입양기록 도움요소, 가족찾기 필요정보, 수수료와 후원금 요구여부, 직원의 서류열람에 대한 태도, 서비스 만족도
4. 가족찾기 경험 4–1. 입양기관 4–2. 아동권리보장원	가족찾기 절차 안내 여부, 입양서류 열람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정보 제공여부, 후속정보 수령 빈도, 직원 태도와 성과 만족도, 소통언어, 번역서비스 만족도, 차별과 무례함 경험 여부, 서비스만족도
5. 시민단체와 정부를 통한 가족찾기	방문한 시설이나 단체, 정부와 소통 여부, 한국정부 지원여부
6. 재회 경험	재회 여부, 시기, 만난 사람, 유전자검사 여부, 기여자, 재회 소요 기간, 재회 소요 비용, 번역가 섭외 조력자, 필요 도움, 받은 도움, 재회에 대한 감정, 부정적 감정 여부, 재회 경험 만족도, 통번역 만족도, 받고 싶은 서비스, 가족과 연락 여부, 소통자, 빈도, 한국 재방문 여부,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입양인에게 조언
7. 가족찾기와 재회경험을 위한 조언	시민사회단체에 조언, 입양기관에 조언, 아동권리보장원에 조언, 주제에 대한 생각

Ⅱ. 조사 결과

1. 입양인 설문조사

2. 친생가족 심층인터뷰

Ⅱ. 조사 결과

1. 입양인 설문조사

1) 응답자 배경

(1) 성별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은 80%가 여성, 18%가 남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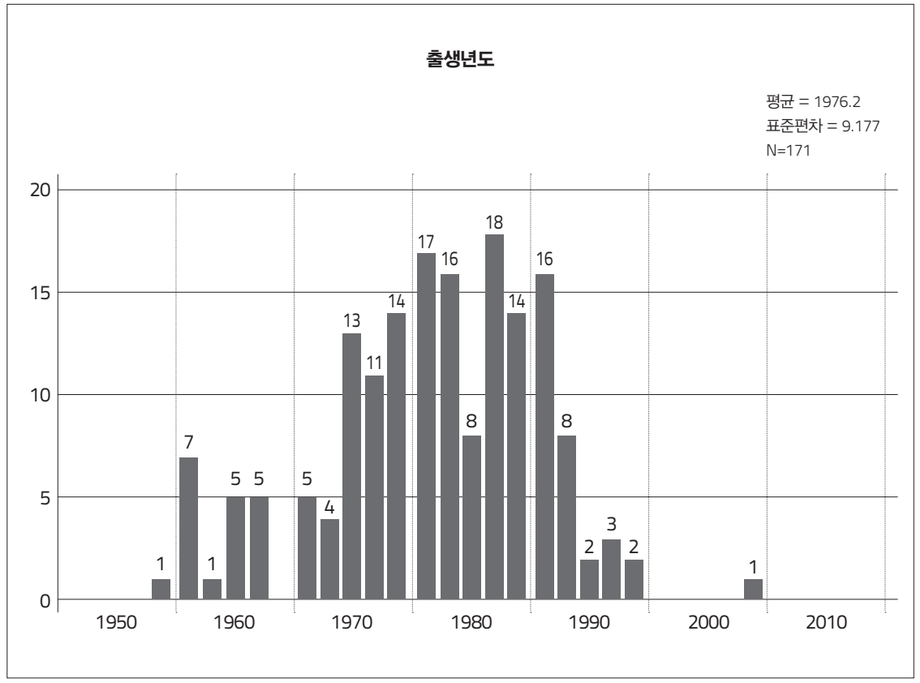
구분	항목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여성	137	80.1
	남성	31	18.1
	논바이너리	1	0.6
	무응답	2	1.2

**논바이너리(nonbinary) 응답자가 1명, 무응답이 2명이다.

다른 선행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보다 많은데(김미숙 외, 2013; 윤인진 외, 2012; Sara Docan, 2016, 이미선 외, 2018) 여성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가족찾기에 여성이 더 적극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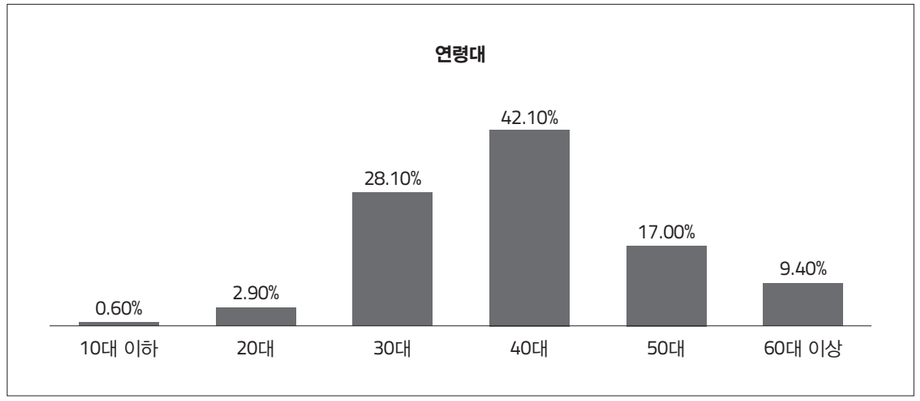
(2) 출생연도

입양인 응답자의 출생연도는 1954년~2003년 사이였고, 가장 많은 응답은 1969년생이다. 1970~1980년대생이 73.1%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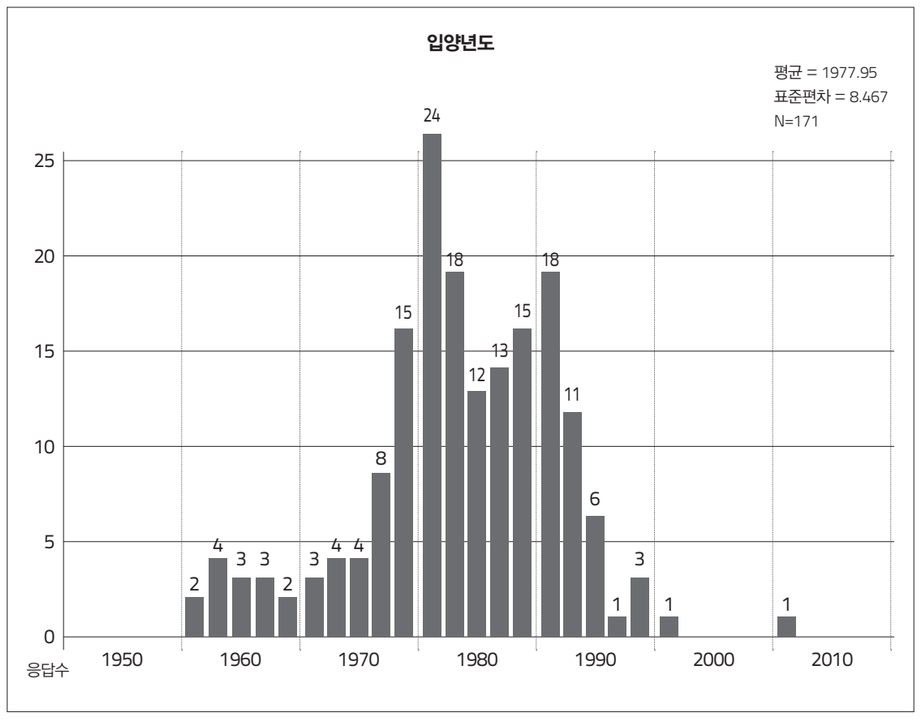
응답자 연령은 최소 18세에서 최대 67세였고, 40대가(42.1%) 가장 많았다.

연령대	응답자 수(명)	비율(%)
10대 이하	1	0.6
20대	5	2.9
30대	48	28.1
40대	72	42.1
50대	29	17.0
60대 이상	16	9.4



(3) 입양연도

응답자 입양연도는 1956년~2004년의 범위에 있었다. 1971년~1986년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했고, 응답자의 입양연도로 가장 많은 해는 1976년(15명, 8.8%)이었다.



(4) 입양 시 나이

입양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차감해 입양 시 나이를 산출했다. 0세에서 최대 13세까지 분포했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1세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62.6%)이 0세에서 1세에 입양되었다.

입양 나이(세)	응답자 수	비율(%)	누적 퍼센트(%)
0	50	29.2	29.2
1	57	33.3	62.6
2	25	14.6	77.2
3	18	10.5	87.7
4	6	3.5	91.2
5	6	3.5	94.7
6	1	0.6	95.3
7	1	0.6	95.9
8	1	0.6	96.5
9	3	1.8	98.2
11	1	0.6	98.8
12	1	0.6	99.4
13	1	0.6	100
전체	171	100.0	

(5) 입양국가

응답자가 입양된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다. (107명, 62.6%) 그 외에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지역이 많다. 이는 모집단(1958년~2018년까지의 누적 입양국가 비율)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입양국	응답자 수	비율(%)
미국	107	62.60%
덴마크	13	7.60%
스웨덴	10	5.80%
벨기에	8	4.70%
노르웨이	7	4.10%
독일	7	4.10%
프랑스	7	4.10%
네덜란드	6	3.50%
스위스	1	0.60%
이탈리아	1	0.60%
캐나다	1	0.60%
호주	1	0.60%
기타	2	1.20%
합계	171	100%

[참고] 1589–2018년 국가별 입양인 수

국가	입양인 수(명)	비율(%)
미국	112,701	67.3%
프랑스	11,208	6.7%
스웨덴	9,736	5.8%
덴마크	8,805	5.3%
노르웨이	6,536	3.9%
네덜란드	4,099	2.4%
벨기에	3,697	2.2%
호주	3,506	2.1%
캐나다	2,555	1.5%
독일	2,353	1.4%
스위스	1,111	0.7%
룩셈부르크	645	0.4%
이탈리아	461	0.3%
영국	72	0.0%
기타	62	0.0%
합계	167,547	100.0%

출처: 외교부, 2019.12.19. 보도자료

(6) 입양국 입양기관

응답자의 입양국 입양기관은 미국의 홀트인터내셔널Holt International(21.1%)과 스위스의 테르 데 좀므Terre des hommes(10.5%)가 많았고, 그 밖에 다양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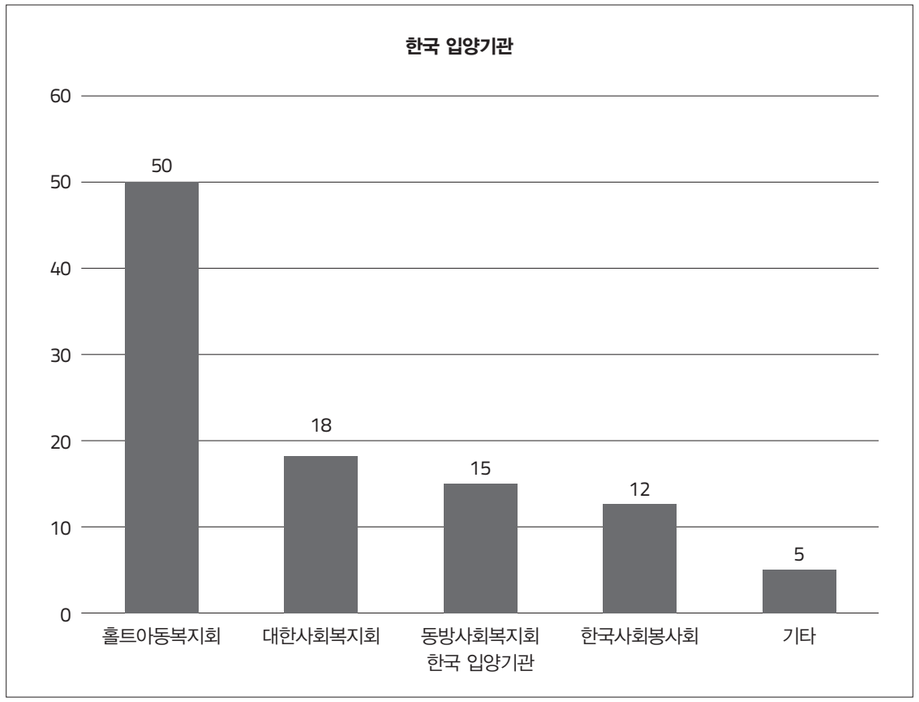
입양국 입양기관	입양국	응답자수(명)	퍼센트(%)	비고(한국 입양기관)
Holt International	미국, 덴마크, 벨기에	36	21.1	홀트아동복지회
Terre des homme	독일,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18	10.5	홀트아동복지회
Lutheran Social Services	미국, 덴마크, 벨기에	9	5.3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Dan Adoption (AC Børnehjælp)	덴마크	8	4.7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Adoptionscentrum	스웨덴	7	4.1	대한사회복지회
Verdens Barn	노르웨이	7	4.1	홀트아동복지회
Childrens Home Society	미국	7	4.1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Spence-Chapin	미국	6	3.5	대한사회복지회
Dillon International	미국	5	2.9	동방사회복지회
Wereldkinderen	네덜란드	5	2.9	한국사회봉사회
Catholic Charities	미국	4	2.3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Le Rayon de Soleil de l'enfant étranger	프랑스	6	3.5	홀트아동복지회
Bethany Christian Services	미국	4	2.3	홀트아동복지회
Welcome House	미국	3	1.8	한국사회봉사회
Love the Children	미국	3	1.8	동방사회복지회
Private adoption 개인 입양	미국	3	1.8	
World Vision	미국	2	1.2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Catholic Social Services	미국	3	1.8	동방사회복지회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스웨덴	2	1.2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아동양호회 (대한사회복지회의 모태 단체)
기타		23	13.5	
모름		10	5.8	
전체		171	100	

기타 단체로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어서 정확한 단체명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략적인 명칭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양국 입양기관 답변에 한국 입양기관을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

입양국가	기관명	한국 입양기관	비고
USA	Adoption Service Information Agency	동방사회복지회	
USA	New Beginnings	동방사회복지회	
USA	no longer in existence	동방사회복지회	
USA	Parsons Family & Children's Services	동방사회복지회	
USA	Tressler	동방사회복지회	
USA	World Family (They closed shortly after my adoption.)	동방사회복지회	
USA	Child & Family Services	홀트아동복지회	
USA	Edna Gladney	홀트아동복지회	
USA	WA-CAP	홀트아동복지회	
USA	Wide Horizons	홀트아동복지회	
USA	Family and Children's Agency	대한사회복지회	
USA	Travelers Aid International Social Services of America	대한사회복지회	
USA	Koran social welfare society in	대한사회복지회	한국기관
USA	Seoul Sanitarium Hospital and Orphanage/7th day Adventist	서울요양병원 및 고아원 (Seoul Sanitarium Hospital and Orphanage)	한국기관
USA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서울요양병원 및 고아원 (Seoul Sanitarium Hospital and Orphanage)	한국기관
USA	Social Welfare Society	대한사회복지회	한국기관
Australia	Victorian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동방사회복지회	
Canada	Enfants d'Orient et d'Occident	대한사회복지회	
Denmark	Adoption Center	한국사회봉사회	
France	La cause	홀트아동복지회	
Germany	Internationaler Sozialer Dienst	대한사회복지회	
Italy	CIAI	홀트아동복지회	
Sweden	Socialstyrelsen	대한사회복지회	

(7) 한국 입양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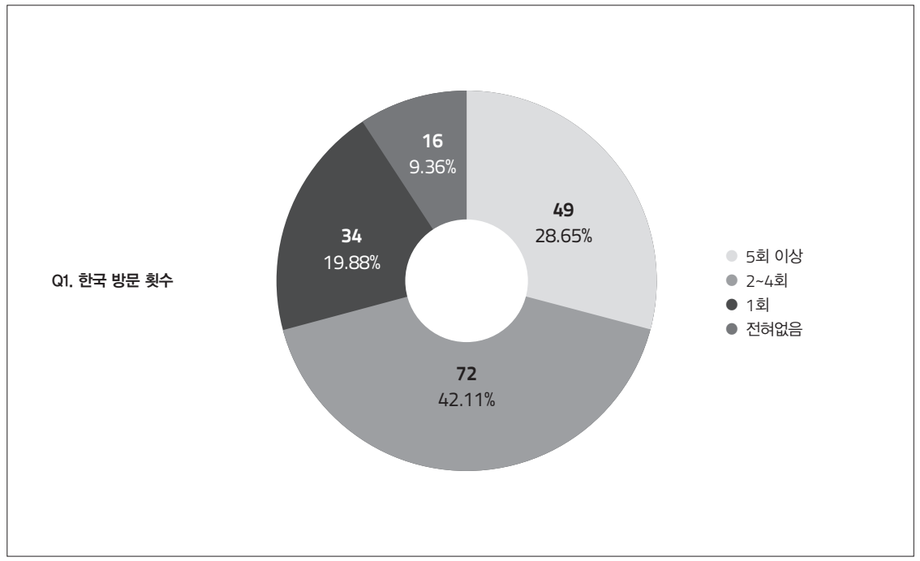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입양기관으로서 홀트아동복지회(86명, 50.3%)를 통해 입양되었다.



한국 입양기관	응답수(명)	비율(%)
홀트아동복지회	86	50.3
대한사회복지회	31	18.1
동방사회복지회	25	14.6
한국사회봉사회	21	12.3
기타	8	4.7
전체	17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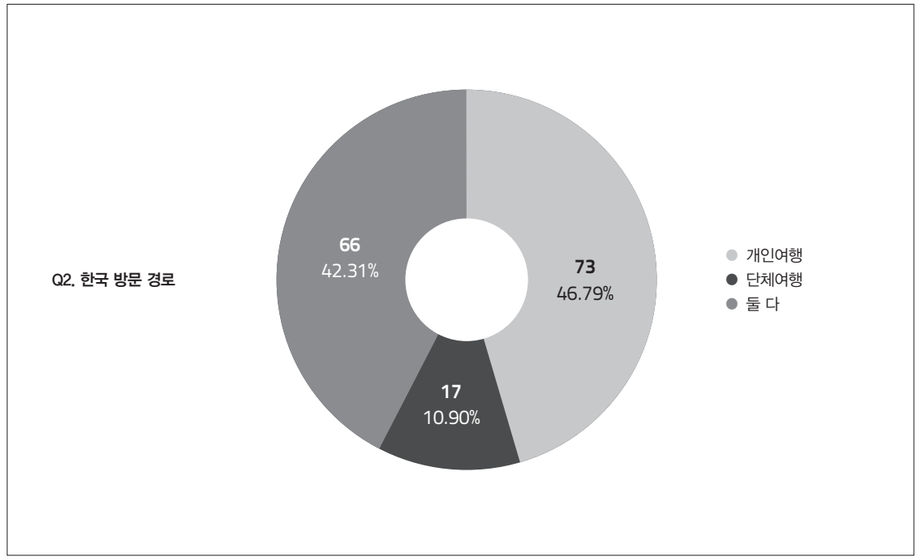
(8) 한국 방문 횟수

응답자 중 한국 방문 경험자는 90.6%이다. 이 중 2-4회가 42.1%, 5회 이상이 28.7%로 응답자의 70.8%가 2회 이상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



(9) 한국방문 경로

응답자 중 개인여행만을 이용해 한국에 방문한 사람은 46.8%, 단체여행만을 이용한 사람은 10.9%이다. 둘 다 경험한 사람은 66명(42.3%)이다. '둘 다'를 포함하면 응답자의 89.1%가 개인여행, 53.2%가 단체여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



(10) 한국 방문 시 이용한 모국방문 프로그램

단체여행(group tour)을 이용한 응답자는 다양한 기관의 모국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상당수가 한국의 입양기관이나 입양인 지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이었다.

〈미앤코리아Me&Korea〉가 운영하는 모자이크 투어Mosaic Tour의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25.8%), 그 다음으로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퍼스트트립홈First Trip Home이 많았다(11.2%). 〈미앤코리아〉는 설립한 지 7년이 된 신생 단체임에도 많은 응답자가 투어에 참여했다. 이는 설문참여자 모집에 이 단체가 협력하였던 영향으로 보인다.

주최 단체(투어명)	응답수	비율(%)
Mosaic Tour (Me&Korea)	23	25.8
입양국 자체프로그램	16	18
First Trip Home (G.O.A.'L 해외입양인연대)	10	11.2
Happy journey (홀트아동복지회)	8	9
GK Summer Camp (InKAS 인카스)	4	4.5
Summer School for Korean Adoptees (YWCA)	4	4.5
Welcome Home (SWS 대한사회복지회)	3	3.4
Let's Go to Korea (NEST Korea 사단법인 둥지)	2	2.2
IKAA Gathering (세계한인입양인협회)	2	2.2
Spiritual Journey (한국입양인선교센터)	2	2.2
해외입양인초청 모국방문행사 (진흥문화주식회사)	2	2.2
국외입양동포 모국문화체험연수 (재외동포재단)	1	1.1
모름	7	7.9
기타	5	5.6
전체	89	100

**기타 응답에는 입양국 대사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미디어(MBC),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주한미군프로그램(U.S. Army deployment exercise), 여행사, 친구 등이 있었다.

해외입양인 단체여행

Me&Korea의 'Mosaic Tour'와 'Mosaic Hapa Tour'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둔 한국인 입양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해외입양인과 한국사회의 연결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2013년 설립 이래 매년 고국방문 프로그램인 모자이크 투어Mosaic Tour를 운영하는데 서울, 파주, 포항 등지에서 성인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찾기, 문화체험을 한다. 특히 '모자이크 하파투어Mosaic Hapa Tour'는 한국에서 이뤄진 수천명의 혼혈아동의 해외입양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집중한다. 두 투어 모두 입양인이 태어난 곳, 지냈던 고아원, 발견된 곳 등을 방문한다.

사단법인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First Trip Home'

해외입양인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국내 체류중이던 해외입양인들이 1998년 설립했다. 해외입양인들의 친가족찾기 지원과 국내 거주정착을 돕는다. 모국방문 행사로 '고향으로의 첫 여행First Trip Home'을 운영한다. 해외로 입양된 뒤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며 2008년부터 약 200여 명이 거쳐갔다. 행사에 참가하는 입양인들은 입양기관과 보육원, 경찰서 등을 방문하며 친가족찾기를 진행하고 한옥체험 등 한국문화 체험 행사도 한다.

홀트아동복지회의 'Happy Journey'

국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외입양인에게 모국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모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뿌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신의 입양서류 원본 열람, 출생지 방문, 요청에 따른 위탁모, 친생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사단법인 둥지(NEST Korea)의 'Let's Go to Korea'

가자코리아Let's Go to Korea는 모국을 찾는 해외입양인들과 한국의 아름다운 정취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한국 문화의 체험과 역사, 자연을 탐방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의 'GK Summer Camp'

매년 5월~8월 사이, 2주 동안의 여름학교Summer Camp를 통하여 해외 성인입양인들에게 한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국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또래의 다른 입양인들 및 한국의 대학생들을 만나 한국에 머물며 모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YWCA의 'Summer School for Korean Adoptees'

1990년부터 17년간 조직된 해외입양인 여름학교다.

세계한인입양인협회의 'IKAA Gathering'

IKAA는 국제 입양인 단체 간 연대 형성, 각 입양인 단체 간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매년 게더링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개최한다.

한국입양인선교센터(Korean Adoptees Ministry Center)의 'Spiritual Journey'

2주간의 영적 한국여행 및 내적 치유 수련회는 서울, 부산, 대구, 전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가족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DMZ, 절두산,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지, 남원, 두류산 등 한국의 많은 성지 및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다른 활동으로 예배참여, 쇼핑, 내적 치유 수련회 등이 포함된다.

재외동포재단의 '국외입양동포 모국문화체험연수'

1998년부터 입양동포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 언어를 소개해 민족정체성을 고취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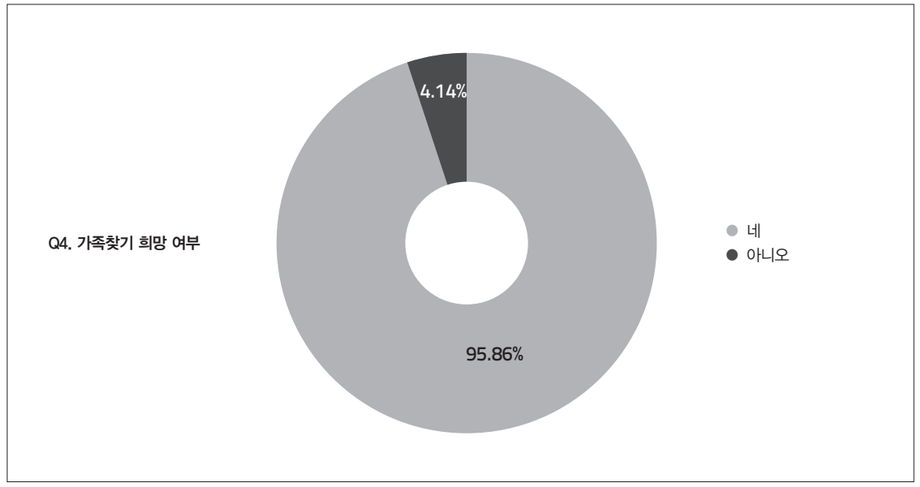
진흥문화㈜의 '해외입양인초청 모국방문행사-저니'

진흥문화(주)는 1996년부터 매년 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저니'(Journey) 라는 모국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모국방문프로그램 진행하는 단체의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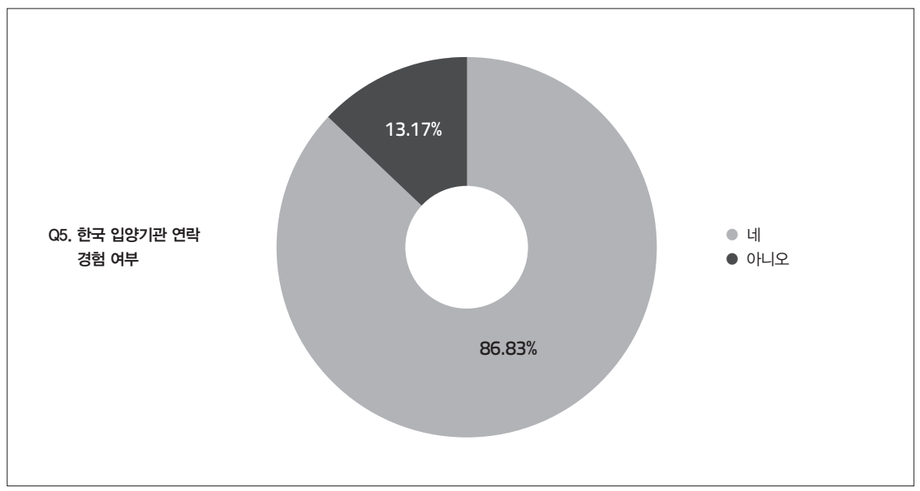
(11) 생물학적 친족 찾기 의향

응답자의 95.9%(163 명)가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관계있는 사람을 한국에서 찾기를 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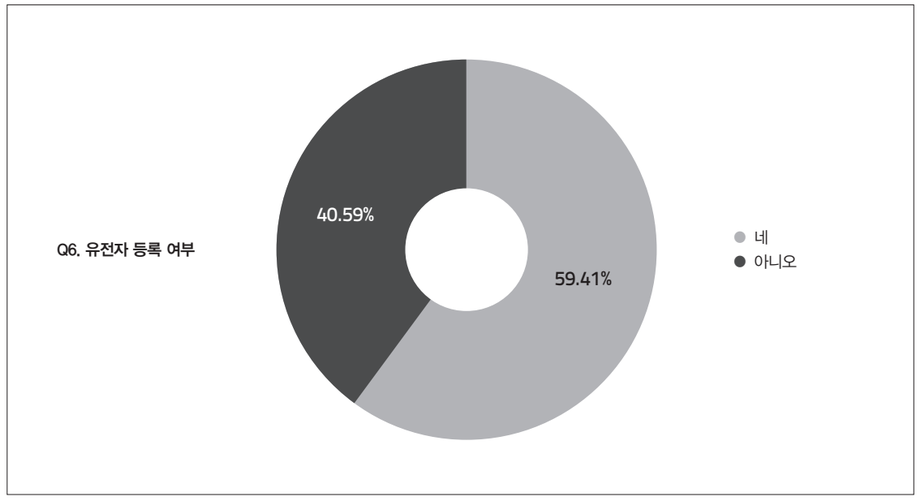
(12) 한국 입양기관 연락 경험

응답자의 86.8%(145명)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입양기관에 연락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3) 유전자 등록 여부

응답자의 59.4%(101명)가 가족찾기를 위해 유전자 등록을 했다고 답했다.



연령대에 따른 유전자 등록 여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전자 등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 응답자 그룹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전자 등록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교차분석: 유전자 등록 여부

		연령대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네	빈도	3	19	46	20	13	101
	퍼센트	50.0%	39.6%	64.8%	69.0%	81.3%	59.4%
아니오	빈도	3	29	25	9	3	69
	퍼센트	50.0%	60.4%	35.2%	31.0%	18.8%	40.6%
전체	빈도	6	48	71	29	16	17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 유전자 검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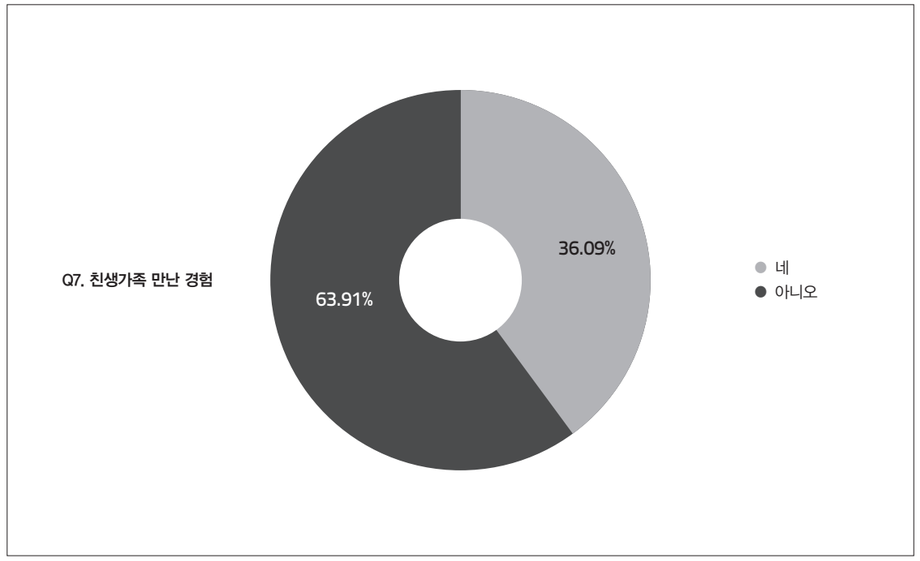
유전자 검사처를 묻는 문항에 99명이 응답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고 전체 검사처는 185곳이었다. 응답자 다수가 여러 기관에 유전자를 등록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한국의 경찰서가 가장 많았다(36.4%, 36명). 유전자 검사기관인 〈23 and Me〉도 많았으며 (35.4%, 35명) 그 밖에 유전자검사 기관인 〈FamilyTreeDNA〉에 30.3%, 〈Ancestry〉에 26.3%, 〈325캄라〉는 15.2% 순으로 유전자를 등록했다고 답변했다.

유전자검사처	응답수	중복허용 퍼센트
한국경찰서	36	36.40%
23andMe	35	35.40%
FamilyTreeDNA	30	30.30%
Ancestry	26	26.30%
325KAMRA	15	15.20%
MyHeritage	13	13.10%
GEDmatch	5	5.10%
뿌리의집	4	4.00%
다우진유전자연구소	2	2.00%
기타	19	19.20%

(15) 한국 가족 상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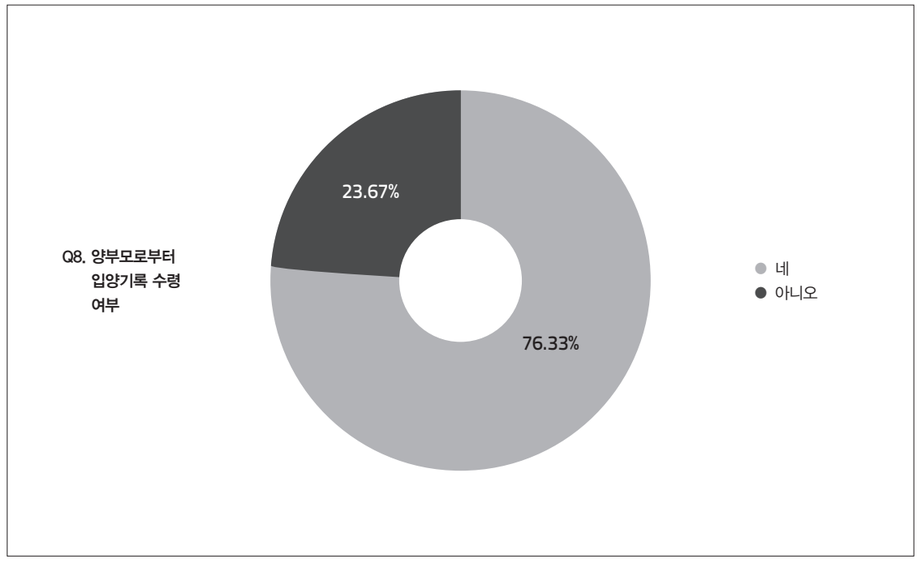
응답자의 37.4%(64명)가 한국 가족(Korean family)을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의 재회성공율 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본 설문조사에는 재회를 경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과밀하게 표집되었다 할 수 있다. 또 이는 응답자의 한국방문 및 그 빈도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 친생가족을 만난 응답자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2-30대는 50%가 넘었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하였다. 또한 높은 연령대 그룹일수록 친생가족을 만나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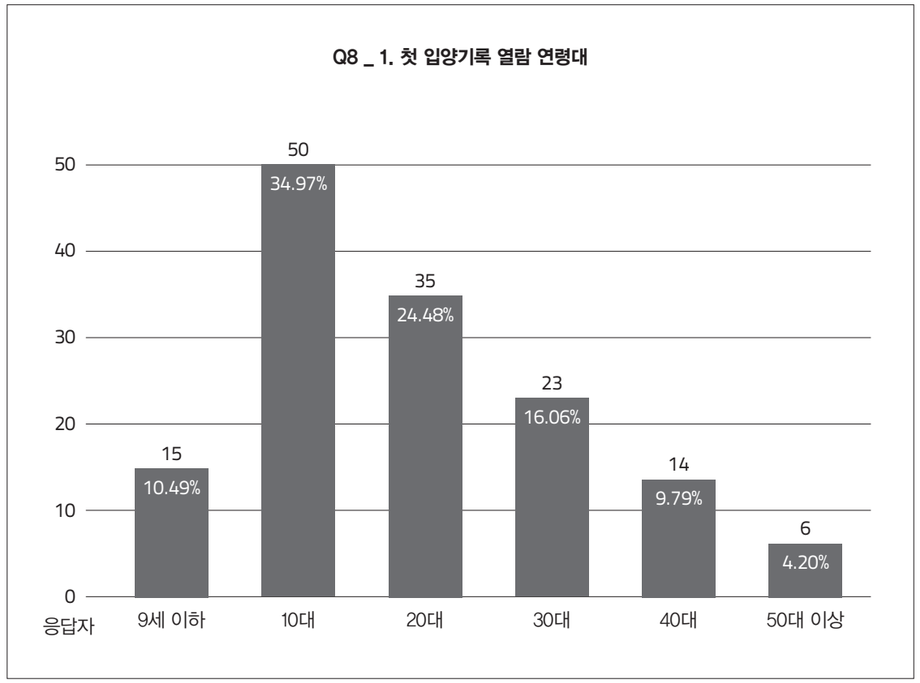
(16) 양부모에게 입양기록 수령 여부

응답자의 76.3%(129명)가 양부모에게 입양기록을 받았다고 답했다.



(17) 첫 입양기록 열람 시기

입양기록을 처음 열람한 시기는 10대 시절이 35%(50명)로 가장 많았다. 70%가량이 29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첫 입양기록 열람 시기를 보면 자아정체성의 확립기라고 할 수 있는 10대와 20대에 가장 많이 입양기록을 열람했다. 그 외에 표집단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60대 이상 국외입양인 중 5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입양 기록을 열람한 비율이 가장 높은 37.5%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60대 이상의 국외입양인 중 상당수가 Me & Korea의 2014 년 이후 하파투어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고 입양기록을 열람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입양기록 열람나이		응답자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세 이하		20%	12.8%	12.1%	8%	0%
10대		80%	53.8%	29.3%	20%	18.8%
20대		-	23.1%	25.9%	32%	18.8%
30대		-	10.3%	20.7%	16%	18.8%
40대		-	-	12.1%	24%	6.3%
50대 이상		-	-	-	0%	37.5%
합계	응답자수	5명	39명	58명	25명	16명
	퍼센트	100%	100%	100%	100%	100%

양부모에게 받아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에 대한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양부모가 보유한 모든 서류를 받았다는 서술과 추상적으로 '입양기관에서 받은 서류' 또는 '입양서류를 받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언급된 구체적인 서류명은 귀화증명서, 출생증명서, 건강(접종)기록, 입양기관이나 보육시설(구 고아원)의 아동생활기록부, 비자신청서, 여권, 사진, 입양기관과 양부모 간 편지, 친권포기각서 등이다. 가족찾기에 유용한 친생가족의 연락처나 호적등본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입양가정에서 본 입양기록은 가족찾기에는 불충분한 정보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 "전체 파일을 받았으나 불어로 번역된 자료만 읽을 수 있었음, 사진을 받음."(no.79)
>
> "모든 자료를 받았지만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없음."(no.167)

일부 양부모는 서류를 못 보게 하였거나, 일정 연령 이후에 열람이 가능했다. 입양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보거나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 "서류를 처음 봤을 때는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훨씬 나이가 든 후에 갖고 있던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내줬습니다."(no.39)

소 결

이 장은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루었다. 해외입양인 모집단에 대한 정보와 비교해 보면 좋겠지만, 현재 공개된 통계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모집단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해외입양인에 대한 과거 설문조사(윤인진 외, 2012; 김미숙 외, 2013; 이미선 외, 2018)의 응답자 특성과 비교하여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유추하였다.

응답자의 입양국 분포는 모집단과 비교했을때와 비슷하여 절반 이상이 미국이고 나머지는 유럽국가들이다. 응답자의 한국 입양기관 등은 입양연령은 선행연구와 비슷한 분포로, 절반 이상이 1세 이하에 입양되었으며(김미숙 외, 2013),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한 입양이 가장 많았다(윤인진 외, 2012).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표집 특성이 반영된 부분은 성별과 연령대이다.

응답자의 지정성별은 여성이 80%로 남성보다 많이 참여했다. 해외입양아동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여성이, 이후에는 남성이 더 많은데, 본 설문조사 응답자 다수가 7-80년대 생으로 여성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라는 비율은 모집단의 성비보다 여성이 과다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가족찾기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하는데(Schechter and Bertocci, 1990: 권지성 외,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성은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설문조사(2008)에서 여성응답자는 67%였다.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개더링(Gathering) 행사 참여자와 국내외 해외입양인 자조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설문조사(김미숙 외, 2013) 응답자는 여성이 67.4%였고, 해외입양인연대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윤인진 외, 2012)의 응답자 역시 여성이 65.6%로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해도, 본 설문조사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80%로 타 설문조사보다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연령대는 40대가(42.1%) 가장 많다. 40대 이상은 응답자의 68.4%를 차지한다. 이는 뿌리의집 게스트하우스의 주요 방문자 층이 3-40대이고 게스트하우스가 설립된 지 15년이 된 시점에 설문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응답자의 연령대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설문조사에 협력한 〈미앤코리아〉가 주로 5-60대인 혼혈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재회에 적극성을 가진 집단으로 파악된다. 응답자의 한국방문 횟수, 입양기관 연락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가족찾기에 적극적인 해외입양인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미숙 외(2013)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82.6%가 가족찾기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데 비해, 본 연구 응답자의 절대다수(95.5%)가 가족찾기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미숙 외(2013) 연구에서는 가족찾기를 시도한 입양인 중 20.7%만이 유전자검사를 받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59.4%가 유전자검사를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2015년 이후 혼혈입양인들을 중심으로 한 〈325캄라〉의 해외입양인 유전자검사 등록 운동을 비롯하여 해외에서의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족과의 재회 같은 사회적 · 문화적 흐름을 통해, 최근 들어 해외입양인들의 유전자검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응답자의 상당수(76.3%)가 양부모에게 입양기록을 받았고, 대부분이 20대 이전에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입양기록을 본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는 50대가 넘어서 입양기록을 처음 열람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별 문항에 대한 답변에 논바이너리나 무응답이 있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이는 최근 20여 년간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으로, 지정성별과 이분법적 성별구조에 대해 도전하는 젠더퀴어, 트랜스, 논 바이너리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본 설문조사 또한 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설문조사의 다른 주관식 문항 응답에서는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친생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재회 시 친생부모와 입양인 간 극복해야 할 문화 차이 중 하나로 파악된다.

2) 입양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해 알 권리는 2012년 '입양특례법' 제36조에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제입양의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해 놓은 '헤이그 아동입양협약'에서도, 체약국에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고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 (제30조). 현재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자신의 입양이 처리되었던 한국의 입양기관과 아동권리 보장원 (구, 중앙입양원) 두 곳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입양인들은 입양기록청구에 대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해 입양정보를 청구한 응답자는 152명으로 전체응답자 중 88.9%에 달하고,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입양정보를 열람한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 중 61%인 105명이었다.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한 152명을 살펴보면, 118명은 이메일 연락이 77.6%로 가장 많았고, 방문 접촉도 106명(69.7%)이었다. 이 문항에 응답한 총 152명이 271개의 응답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방문과 이메일, 전화 등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정보 요청방법	응답수	(중복허용)퍼센트
이메일	118	77.6%
방문	106	69.7%
전화	22	14.5%
기타	25	16.4%
전체	271	178.3%

4) 국제입양의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한 헤이그 아동입양협약은 1995년 발효되었다. 한국정부는 2013년 대한민국 정부는 헤이그 아동입양협약에 서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1) 입양정보 요청에 대한 기관의 정보제공

입양정보 요청을 한 응답자 중 입양인의 절반가량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9%(80명)가 입양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48.1%(74명)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서류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24.5%(24명)에 불과했고,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75.5%(74명)였다.

(2) 추가 입양정보 획득 여부

입양기관에 요청했을 때 추가적인 입양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사람의 33%(58명)가 정보를 받은 반면, 56.1%(96명)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추가정보의 획득은 13.5%(23명)이고 받지 못한 응답자는 76.5%(75명)였다.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열람청구를 받아 우선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입양기관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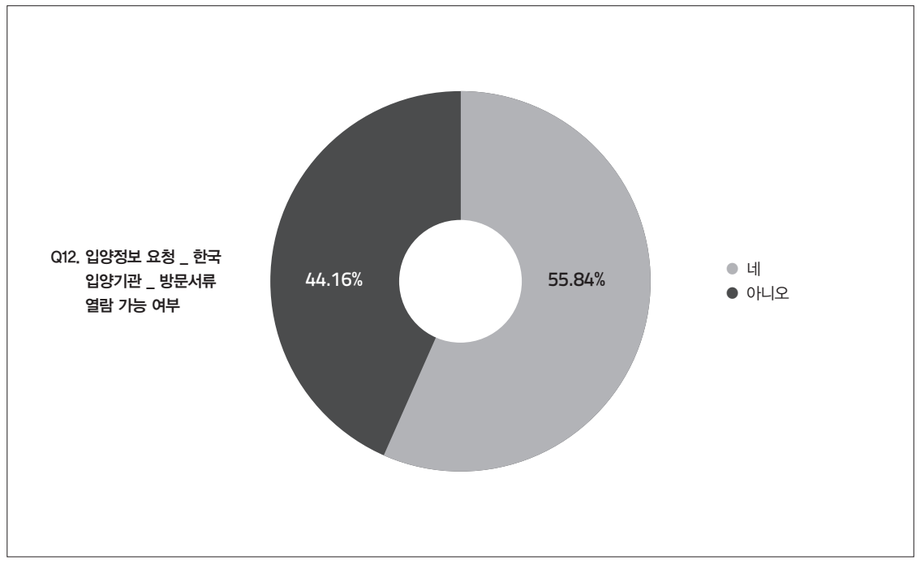
(3) 추가로 요청하여 받은 입양정보

입양기관을 통해 추가입양정보를 받은 응답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 한국어로 된 입양서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보다 상세한 입양배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자신의 입양배경, 고아호적, 아동인수 리포트, 보육원 기록, 자신이 발견된 장소, 위탁가정의 기록, 발견 당시 옷차림새, 자신을 발견한 경찰서의 기록).
- 그 기록 중에는 친모/부의 생년월일, 친모로부터의 편지, 가족의 편지, 가족사진, 입양가족에게 주지 않았던 사진들
- 또한 업데이트된 친부의 연락처, 친생가족의 전화번호, 친생가족이 찾고 있다는 사실, 또 다른 친형제/자매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한꺼번에 다 챙겨 들을 수는 없었다. 조금씩 조금씩 전달받았다.
- 입양기관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구두로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 입양기록을 열람할 때, 보육원, 경찰서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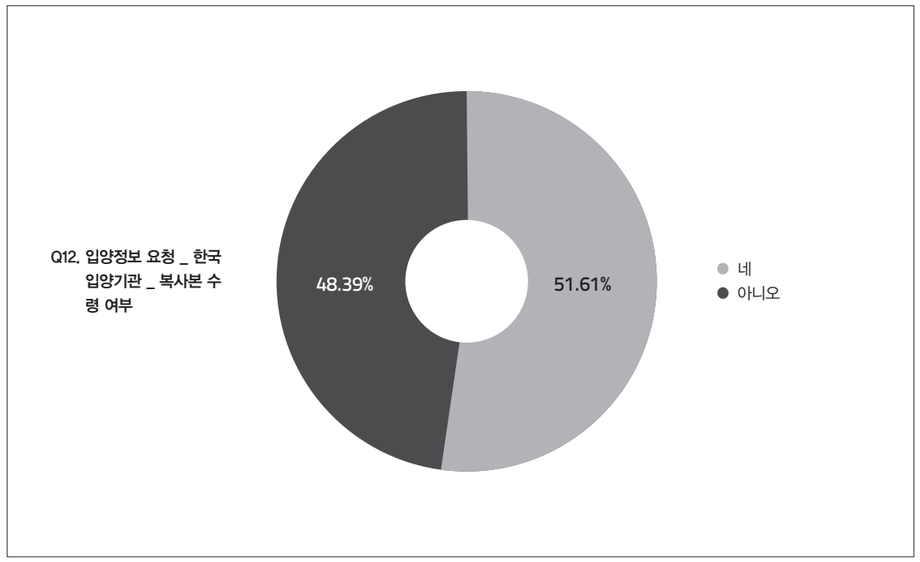
(4) 방문 입양서류 열람

입양기관에 방문하여 입양서류를 볼 수 있었다는 답변은 50.3%(86명)이고, 볼 수 없었다는 응답자도 39.8%(68명) 있었다.



(5) 입양서류 복사본 수령

입양기관에서 입양서류 복사본을 받았다는 응답 51.6%(80명), 받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3.9%(75명)이었다.



입양서류 복사본을 받은 경우, 그 서류의 내용을 묻는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양부모가 가진 서류와 같거나 그보다 부족한 서류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서류 사본을 소포로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파일과 동일했고 언제, 어떤 이유로 입양되었다는 설명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연세, 키, 그리고 통통하셨다는 설명 외에는 추가 정보가 없었습니다.”(no.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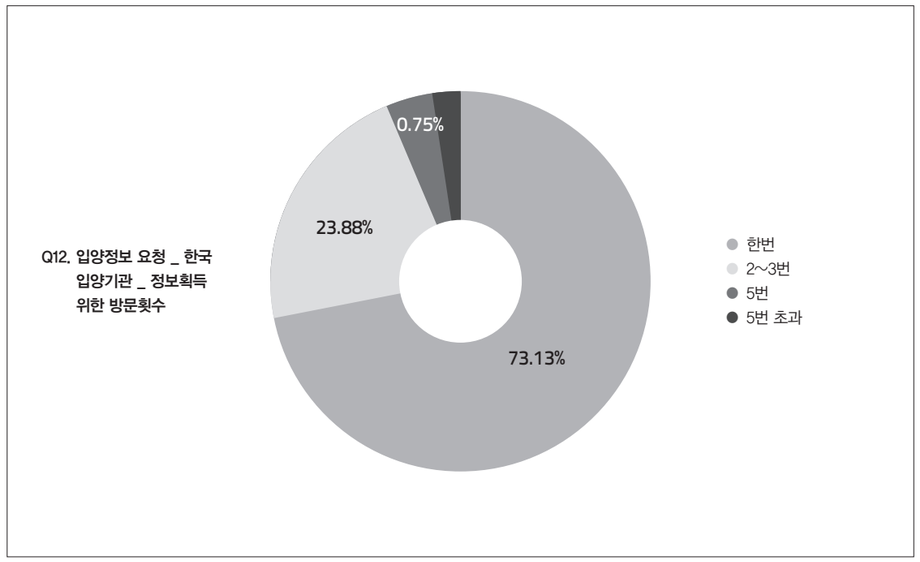
■ 반면 호적등본이나 입양배경 같은 새로운 정보나 서류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

■ 입양기관에서 입양인들에게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문도 많았다.

> “파일을 직접 다룰 수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계속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출생 당시의 의사 진단서 사본을 받긴 했습니다. 다른 서류는 공유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no.109)

(6) 입양기관 방문 횟수

입양정보 획득을 위해 한국 입양기관에 방문한 횟수는 한 번이 가장 많았다(73.1%, 98명). 두 번 이상 방문한 응답자는 26.8%(36명)이며, 5회 이상 방문자도 있었다(2.9%, 4명).



(7) 입양기관 방문 시 동행자

한국 입양기관 방문 시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중복 선택할 수 있는 질문에 가족(입양 가족, 배우자나 파트너 등)과 함께 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0.3%, 36명). 입양인 친구(22.7%, 27명), 시민사회단체 자원활동가(22.7%, 27명)와 방문했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시민사회단체 자원활동가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해외입양인연대 G.O.A.'L〉과 〈미앤코리아〉가 다수 언급되었다. 혼자 방문했다는 답변도 23.5%(28명)로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그룹투어 중 방문, 언론과 방문, 입양국 입양기관 직원과 방문 등이 언급됐다.

한국 입양기관 방문 동행자	응답수	퍼센트(중복 허용)
가족	36	30.30%
혼자 갔음	28	23.50%
입양인 친구	27	22.70%
시민사회단체 자원활동가	27	22.70%
한국 친구, 지인	22	18.50%
전문 통역사	8	6.70%
기타	15	12.60%
전체	163	137.00%

**기타의견 – 파트너, 투어 프로그램 매니저(직원), 입양가족(아버지, 여동생), 친생모, 방송국 관계자 등
**무응답 – 32명

(8) 입양기관 정보획득 도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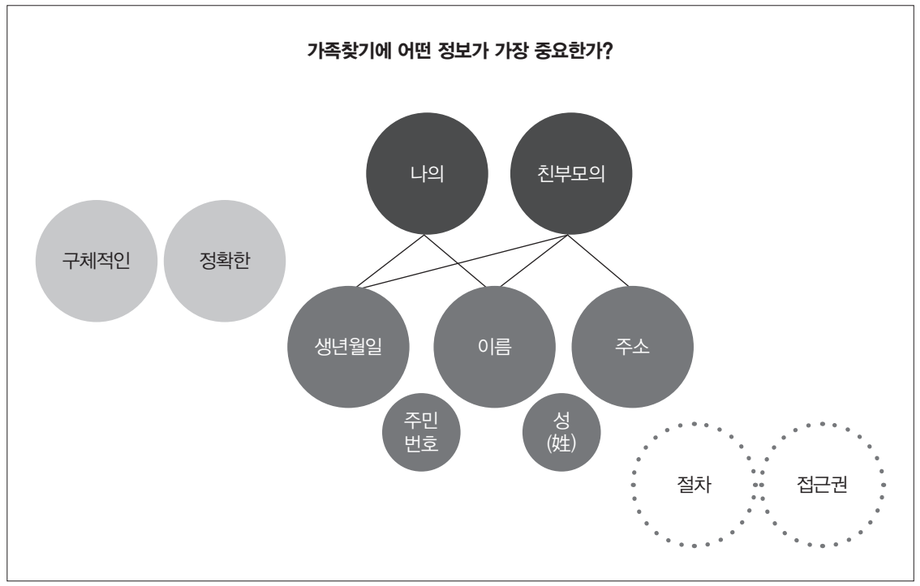
어떤 요소가 당신의 생각에 입양기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잦은 연락(이메일, 전화)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0.5%(69명)로 가장 많았다. '잦은 방문'이 20.2%(23명)였고, 한국어 통역사와 동행이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27.2%(31명)로 나타났다.

한국입양기관 정보획득 도움 요인	응답수	퍼센트(중복허용)
잦은 연락(이메일,전화)	69	60.5%
잦은 방문	23	20.2%
한국어 통역사와 방문	31	27.2%
입양가족과 방문	6	5.3%
기타	40	35.1%
전체	169	148.2%

**기타의견 – 영향력 있는 친구, 독일 기관의 편지, 신뢰있는 기관을 통한 연락(IKAA 게더링, Me&Korea 등), 투어프로그램 관계자, 입양가족, 친생가족(친생모), 입양국 입양기관 등
**무응답 – 49명

(9) 가족찾기에 필요한 정보

가족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묻는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자신과 친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의 주소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이때 '구체적 정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많았다. 입양서류 접근성 제고, 가족찾기 절차 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0) 정보열람에 대한 대가 요구

입양서류를 받는 대가로 입양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5명(9.68%)이었다. 입양서류를 받는 대가로 후원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13명(7.6%)이었다.

(11) 관계기관에 서류열람 요청 시 직원들의 태도

가. 한국 입양기관 직원들이 입양서류 열람을 꺼리거나 주저하는 것을 경험한 응답자는 38.3%(59명) 있었다. 입양기관 직원들의 태도에 관해서 경험은 직원마다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촉 시기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된다.

"처음 입양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직원이 무례하고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다정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2015년에는 제 파일에 있던 서류가 두 번째로 갔던 2019년에는 없었습니다."(no.170)

전반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에 대한 기술이 많았다.

"직원은 요약본에 있는 내용 외에는 더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파일을 같이 검토하던 중에는 한쪽 모서리만 들어서 페이지 전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no.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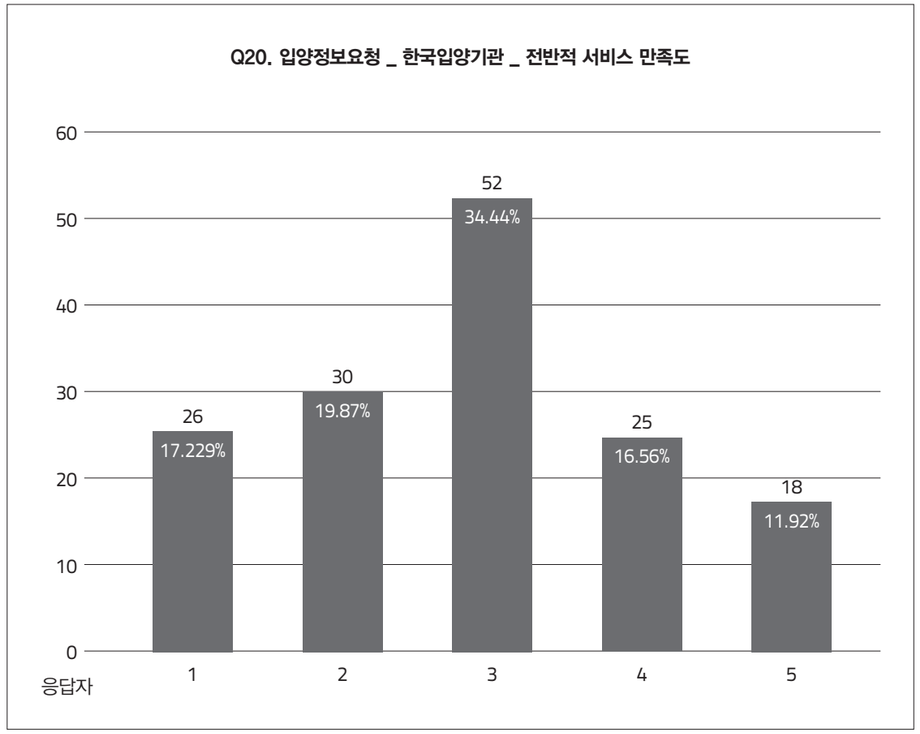
직원이 가족찾기에 대해 부정적인 개인 인식을 표출한 경우도 보인다. 찾지 말라고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사례들이 보고된다.

"입양기관 사례담당자는 저에게 가족찾기를 진행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당시 친어머니는 어렸고, 아마 지금은 재혼했을 것이고, 제가 연락하면 친어머니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no.139)

사전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열람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12) 입양기관의 입양정보 제공에 대한 입양인의 만족도

한국 입양기관의 입양정보 제공에 대한 입양인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2.86점이었다.



입양기관에서 경험하는 입양정보 요청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가 가족과 재회한 경우(평균 3.10)가 재회하지 못한 응답자 그룹(평균 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친생가족과 재회했음	3.10	1.315	2.232	0.27
친생가족과 재회하지 못했음	2.62	1.167		

소 결

해외입양인은 입양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입양인들이 양부모로부터 받은 자료는 번역된 자료로서 정확한 이름이나 지명,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입양인들의 가족찾기에는 한국 입양기관이 가진 기록 '원본[5]'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입양인들의 정보청구에 응해야 하는 기관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다.

입양인들이 기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족찾기에 필요한 '정확하고' '충분한' 수준의 정보다. 이러한 정보란 '정확한' 정보를 의미한다. 입양인들이 입양기관에 요청하여 친생부모나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의 연락과 방문 등 언어적 · 시간적 · 장소적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을 요한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0%는 입양기관에 방문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으며, 56%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고, 44%는 복사본을 수령하지 못했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75%의 응답자는 추가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의 입양인에 대한 입양정보 사유와 독점, 횡행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되었던 아동권리보장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응답자 중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비율이 높았는데, 고연령층에서 가족 찾기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이는 입양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과거일수록 입양기록 자체가 제대로 기재되거나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입양인의 입양서류 요청에 대해 입양기관은 전반적으로 방어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38%가 입양기관 직원들이 입양서류 열람을 꺼리거나 주저하는 태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서술형 답변을 통해 입양기관에 방문했을 때 정보 제공이 해당 직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르는 경향도 파악되었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가족찾기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5) 입양기록의 원본자료에는 입양당시 입양을 의뢰한 친생가족의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입양상담 시 입양기관 실무자가 이름이나 연락처, 사진 등을 메모로 기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절에서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입양정보청구제도는 입양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의 기록을 전수조사, 보존, 열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개인의 입양인들의 요청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바, 입양인의 알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입양정보요청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6점에 그쳤다.

3) 가족찾기

입양 관련 정보요청을 하는 모든 입양인이 가족찾기를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어떤 입양인들은 가족찾기를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입양기록만을 열람하며, 입양기록 열람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른 계기로 가족찾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입양인의 가족찾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조력기관과의 협력정도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가. 한국 입양기관의 조력에 대한 평가

(1) 가족찾기 절차 안내

한국 입양기관이 가족찾기 절차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32.4%(48명),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7.6%(100명)이었다.

(2) 입양서류 열람 서비스 제공

입양기관은 입양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31.3%(46명),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은 68.7%(101명)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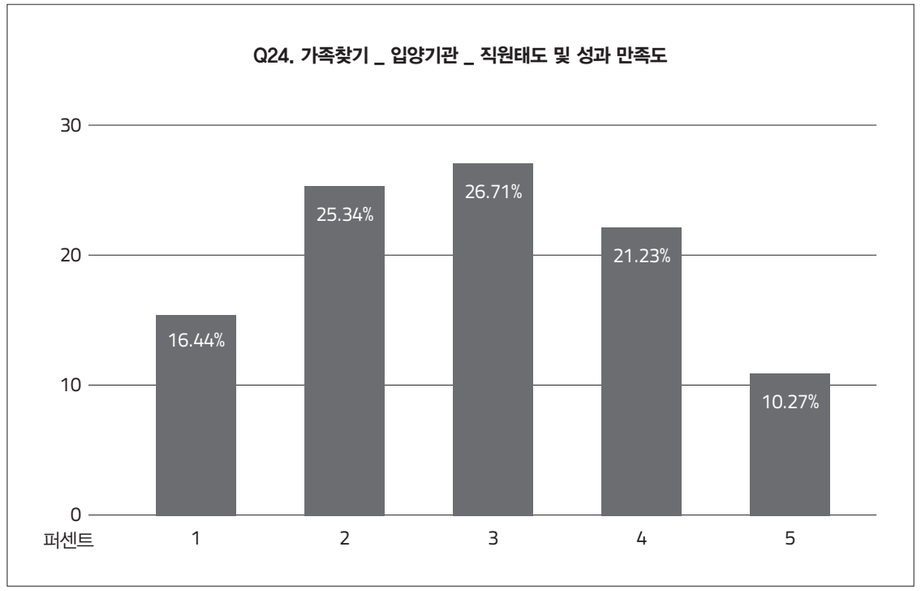
(3) 가족찾기 후속 정보 제공

입양기관으로부터 가족찾기에 대한 후속 정보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27.4%(40명),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2.6%(106명)였다. 후속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빈도는 '한 달에 한 번'(18명, 36.7%), '석 달에 한 번'(12명, 24.5%), '6개월~1년에 한 번'(38.8%) 등 다양했다.

후속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응답자를 포함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후속 정보제공의 빈도에 대한 일관적인 가이드가 없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입양실무매뉴얼』(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입양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입양인에게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4) 입양기관 직원 태도와 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한국의 입양기관 직원들의 전반적인 태도와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84점이다.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4점과 5점, 31.5%)보다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1점과 2점, 41.8%)이 더 많았다.



(5) 입양기관과 소통 언어

응답자 중 3명을 제외한 대부분(97.7%, 137명)이 영어로 소통했다. 설문조사가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했다는 응답이 다수였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설문조사 응답자 중 35%가 비 영어권 국가의 입양인임을 감안할 때, 한국 입양기관과 전반적인 소통이 영어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통 언어	응답 수	유효 퍼센트
영어	137	97.9%
프랑스어	1	0.7%
한국어	2	1.4%
전체	140	100%
무응답	31	

(6) 입양기관의 번역 만족도

소통했던 한국 입양기관의 번역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이었다.

(7) 입양기관 직원으로부터 부정적 태도 경험

입양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차별과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5명(17.4%)이 직원에게 차별과 무례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구체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답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공감 부족

"무례함보다는 remorse, (입양 당시 입양기관의 불찰에 대한)회한이 없었고, 공감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no.165)

"무엇보다도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미팅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친어머니의 성함을 안다고 했는데(그때까지 가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음) 직접 만나서 어머니 성함을 물어봤을 때에는 리스트를 보고서 "아, 다른 분이었네요."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사과 없이 가버렸습니다."(no.16)

■ 자의적 판단으로 입양인에게 포기하라고 반복적으로 권유

"입양기관 직원이 추측과 예측으로 제 삶을 얘기한다고 느꼈고, 정보공유를 꺼려했습니다. 아, 행복해 보이는데 굳이 왜 가족찾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no.139)

"홀트에서 만난 제 담당직원은 가족찾기를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제 친생모는 어렸고, 지금은 다시 결혼을 했을 것이고, 제가 친생모를 찾아 연락을 한다면, 그녀의 삶을 망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no.139)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저에게 최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no. 120).

■ 정보를 감추려고 하고, 거짓을 말함

"사회복지사는 정보를 감추려고 했고 아기였을 때 저를 찾은 경찰과 재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no.117)

"수차례 저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친가족찾기를 말렸습니다."(no.22)

"저는 입양기관을 몇차례 방문했지요. 처음에는 나의 파트너, 두번째는 입양인 활동가, 세번째는 뿌리의집 자원활동가, 그리고 네번째와 다섯번째는 친생모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매번 달랐죠. 그런데 입양기관이(모든 정보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친생모가 고소와 소송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그들은 나의 입양기록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no.87)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no.82)

"저는 언제나 그들이 아주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다고 느꼈지요. 그리고 가끔씩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답니다."(no.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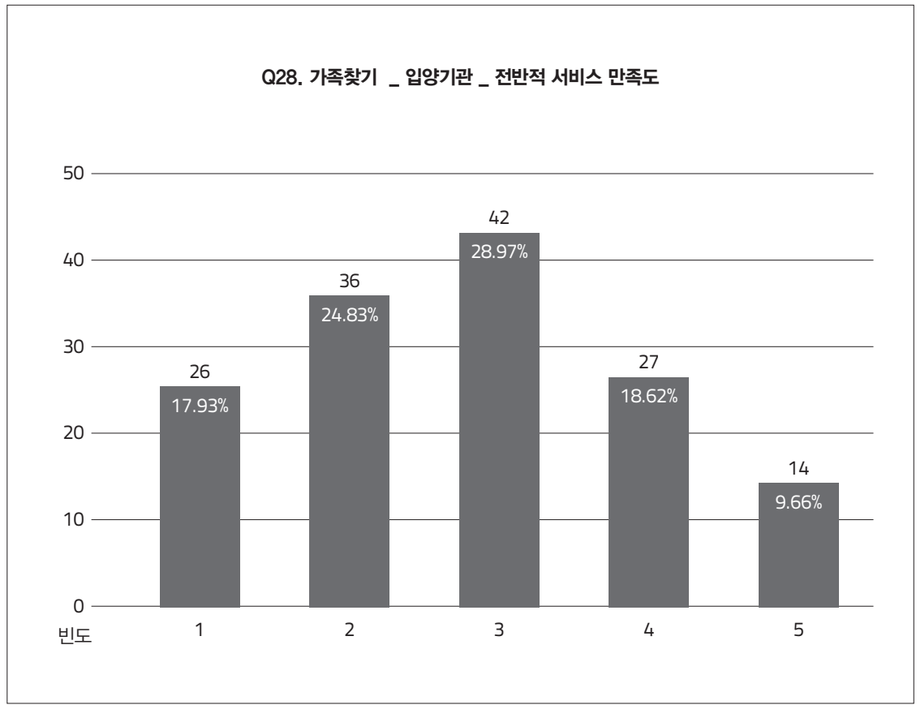
"그들은 내 입양서류의 어떤 부분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고, 어떠한 사진도 못 찍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 입양서류 묶음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 있는 경우였는데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서류를 봤을 때도 그랬지요."(no.140)

"그들은 소위 '빨간 봉투'에 있는 서류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양)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요. 저는 당시 마흔살이었고, 서류를 보기위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no.123)

"1990년대 초반 제가 친생가족을 찾으려 했을 때 저는 친생가족 찾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0년대 초반에 그 말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지요. 제가 두번째 방문했을 때 담당자조차도 왜 그런 거짓말을 제가 들어야 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no.161)

(8) 입양기관 가족찾기 조력에 대한 만족도

가족찾기에 대한 입양기관의 반응과 조력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7점으로 측정되었다. 만족(4점과 5점) 응답(28.3%)보다는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1점과 2점)이 더 많았다. (42.8%)



입양기관 만족도는 친생가족과 재회 여부에 따라 달랐다. 친생가족과 재회한 집단(평균 3.13)은 재회하지 못한 집단(평균 2.56)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친생가족과 재회했음	3.12	1.236	3.476	<.001
친생가족과 재회하지 못했음	2.40	1.122		

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경험

가족찾기를 시도할 때 아동권리보장원과 접촉 경험이 있었던 사람에 한해 응답하도록 했다. 전체 응답자의 61%인 105명이 응답했다.

(1) 가족찾기 절차 안내

아동권리보장원과 접촉경험이 있었던 응답자 중 가족찾기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35.2%(37명)이었고, 61.4%(68명)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서류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은 24.5%(25명)에 불과했고,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75.5%(74명)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추가정보의 획득은 13.5%(23명)이고 받지 못한 응답자는 76.5%(75명)이었다.

(2) 소통 언어

아동권리보장원과 소통 언어는 한 명을 빼고 모두(98.7%) 영어로 소통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번역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8점이었다.

(3) 직원의 부정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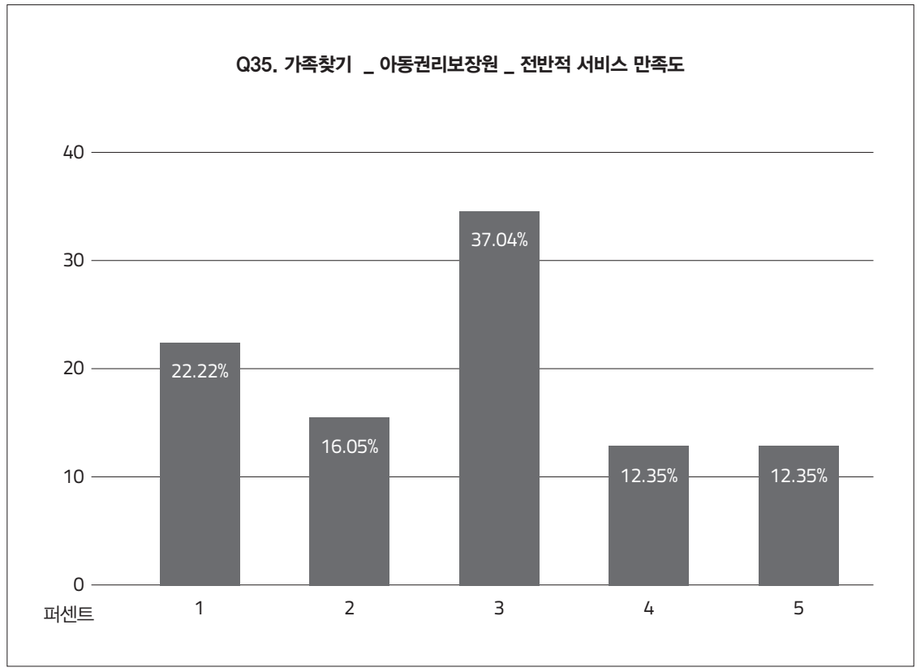
아동권리보장원 직원과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 중 6%(5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 서술을 살펴보면, 직원의 무반응이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한 내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 “아직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것뿐이지만 몇 차례 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no.50)

"왜 그렇게 많은 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저는 2001년부터 가족찾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관료주의로 가득합니다. 제가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같은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no.147)

(4)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서비스 만족도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7점으로 평가되었다.
만족에 가까운 응답(4점, 5점)보다 불만족에 가까운 답변(1점, 2점)이 더 많았다.



아동권리보장원 서비스 만족도는 입양기관 서비스 만족도와는 달리 응답자가 가족과 재회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서비스 만족도는 입양기관 서비스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즉 아동권리보장원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입양기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인 재회경험 만족도는 아동권리보장원 재회실무에 대한 만족도 및 입양기관 서비스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즉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재회경험 만족도가 높았다.

	재회년도	아동권리보장원 서비스만족도	입양기관 서비스만족도	재회 경험 만족도
재회년도	1.0			
아동권리보장원 서비스만족도	0.468*	1.0		
입양기관 서비스만족도	0.140	0.431*	1,0	
재회 경험 만족도	0.079	0.395*	0.308*	1.0

다. 기타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경험

(1) 가족찾기를 위해 접촉한 기관 및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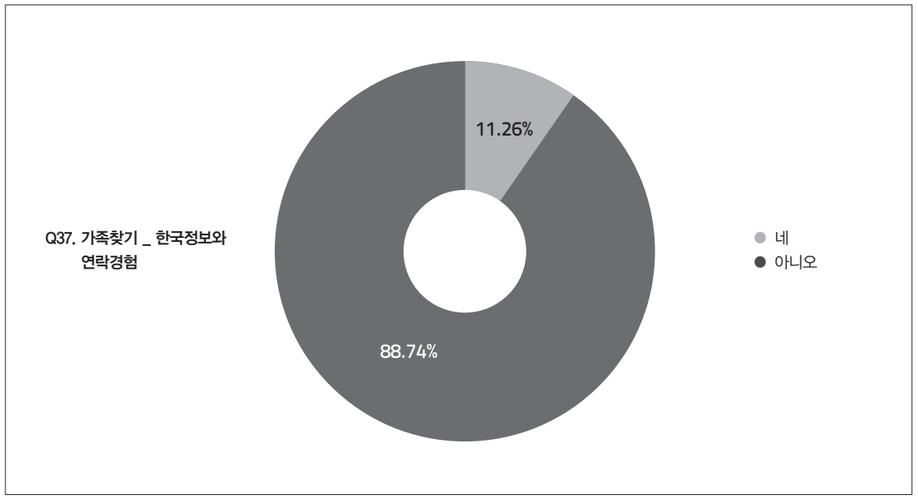
입양인들은 가족찾기를 위해 한국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외 경찰서(51.7%, 62명), 보육시설(구 고아원, 36.7%, 44명)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접촉한 시민단체로는 〈해외입양인연대 G.O.A.'L.〉(50.8%, 61명)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입양인 친구나 한국인 친구 등 개인들과 접촉한 경우도 많다(41.7%, 50명). 일단 한국에 나와서 재회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은 여러 기관과 단체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찾기_기타방문한 곳	응답 수	퍼센트 (중복 허용)
경찰서	62	51.70%
해외입양인연대(G.O.A.'L.)	61	50.80%
다른 개인들 (입양인 친구, 한국인 친구, 기타)	50	41.70%
보육원	44	36.70%
다른 단체	34	28.30%
한국정부(보건복지부/지자체)	16	13.30%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	16	13.30%
교회	9	7.50%
사단법인 둥지(Nest Korea)	4	3.30%
기타	19	15.80%
전체	315	262.5%

**기타의견 – 대사관, 개인산부인과, 고아원(보육원), 언론사(방송국, 신문사), 자신이 살았던 곳 근처의 수녀원, 미혼모단체, 입양인 지원 단체(유전자 검사 단체 등), 온라인(페이스북 입양인 그룹) 등

(2) 한국 정부와 소통 경험

가족찾기를 위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 한국 정부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3%(17명)로 저조했다.



(3) 한국 정부의 지원 체감

한국 정부가 가족찾기에 충분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5명만이 응답했는데,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답변(68.6%)이 더 많았다.

그 이유에 대한 서술형 답변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연락할지 방법도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한국 정부에 연락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no.148)

또한 친생가족 정보(이름, 주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도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 "시간이 없었고 전혀 생각지 못했고 친부모님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no.97)

소 결

친생가족찾기에 단서가 될 만한 입양서류를 보관, 열람, 그리고 친생가족에게 입양인이 재회를 희망하고 있다고 연락하는 일까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은 해외입양인의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실무 능력과 입양인의 재회의 조력 태도를 본 연구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비교
이용 경험자 수	148명 (86.5%)	105명 (61.4%)	가족을 찾는 입양인에게 아동권리보장원보다 입양기관 이용이 더 잘 알려진 것으로 보임.
가족찾기 절차 안내 제공받음	32.4%	35.2%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이들은 세 명 중 한 명 꼴로 비슷함. 절차를 안내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음.
입양서류 열람 서비스 제공받음	26.9%	24.5%	가족찾기의 단서를 구하는 중요 단계인 입양서류 열람을 받은 비율이 네 명 중 한 명임.
후속 정보 제공 받음	23.4%	13.5%	기관에 가족찾기 희망 의사를 밝힌 입양인은 친생가족의 소재나 단서에 대한 후속정보를 갈망하지만, 후속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낮고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이 더 저조함.
소통 언어	영어 97.9%	영어 98.7%	대부분이 영어로 소통하였음. 입양인 중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세부적인 감정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본 설문조사가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고려돼야 함.
번역서비스 만족도	3.26점 / 5점	3.08점 / 5점	번역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
직원으로부터 차별과 무례함 경험함	17.4%	6.1%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차별과 무례함을 경험한 이용자가 존재함. 가족찾기에서 입양인들이 위계를 경험하였음을 확인함.
가족찾기 서비스 만족도	2.77점 / 5점	2.77점 / 5점	두 기관 동일하며 '보통' 이하 수준임.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관련 입양인의 경험은 기관의 조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77점이면 '보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2019년 조사한 사회서비스기관의 평균 만족도는 4.4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저조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3.14.). 물론 응답자에 따라 긍정적인 경험을 했거나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어떤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선행연구 및 해외입양인의 문화생산물 등을 통해 입양인들이 가족찾기 과정에서 강한 불만족과 입양기관과의 관계에서 위계를 경험한다는 내용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미숙 외, 2013; 이미선 외, 2018; 사단법인 뿌리의집, 2020).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입양기관 직원으로부터 차별과 무례한 언행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17.4%였다. 또한 입양정보 요구에 대해 감추거나 냉담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목격했다고 서술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서류 열람, 재회를 희망하는 입양인의 친생가족의 현주소 파악, 연락,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조력자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회의 기본인 가족찾기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응답이 없거나 느리며, 접촉하는 직원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점 등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외에도 입양인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원과 경찰서, 지자체 등 여러 곳을 직접 접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느냐', '친가족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통해, 가족찾기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에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입양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관을 통해 친가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친생가족 상봉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171명의 입양인 중 64명(38%)이 친생가족(Birth family)과 상봉 · 재회했다고 응답했다. 친생가족과 만난 시기는 1992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93%가 2000년 이후 상봉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재회한 연도는 2019년(8명)이다. 재회 시 응답자의 나이는 14세~62세 사이였으며 평균 31.5세였다. 20대에 재회한 응답자가 47.6%, 30대에 재회한 응답자는 37.7%였다. 주로 20-30대에 재회가 많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 방문 횟수에 따라 친생가족 상봉의 성사 여부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2회 이상 방문자의 재회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국 방문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 친생가족과 재회하는 비율이 높았다($p<0.05$). 하지만, 이 결과를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여야 재회 성사가 가능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 가족과 재회한 응답자가 재회 이후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1) 한국입양기관과 재회

입양기관 연락 여부와 재회도 관련이 있었는데, 입양기관에 연락한 경험이 없는 그룹이 가족을 찾을 확률은 매우 낮았다(p.05). 입양기관을 통한 가족찾기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차분석: 한국 입양기관 연락 경험과 친생가족 재회

			한국 입양기관 연락 경험 유무		전체
			네	아니오	
친생가족과 재회 여부	네	빈도	61	2	63
		퍼센트	46.9%	15.4%	44.1%
	아니오	빈도	69	11	80
		퍼센트	53.1%	84.6%	55.9%
전체		빈도	130	13	143
		퍼센트	100.0%	100.0%	100.0%

입양된 한국입양기관에 따라 친생가족과 재회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동방사회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로 입양되었던 입양인이 다른 기관에 비해 친생가족과 재회했던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조사 · 연구된 바가 없지만, 〈뿌리의집〉 입양인 게스트의 재회 과정을 관찰하고 조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재회 성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입양기록의 관리, 상대 입양국의 가족찾기 관련 제도, 입양인이 가족찾기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영어 구사능력 등)이 재회 성사율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교차분석: 재회_친생가족과 재회 여부

		한국 입양기관					전체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기타	
네	빈도	27	10	13	13	1	64
	퍼센트	36.0%	37.0%	56.5%	72.2%	25.0%	43.5%
아니오	빈도	48	17	10	5	3	83
	퍼센트	64.0%	63.0%	43.5%	27.8%	75.0%	56.5%
전체	빈도	75	27	23	18	4	147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상봉 시 만난 가족

재회한 친생가족을 모두 기술하는 답변에는 어머니를 만났다는 응답자가 44명(69%)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를 만났다는 응답자도 20명(31.7%), 응답자 중 29명(60%)은 친생모만 만난 경우였고, 친생부만 만난 경우도 8명으로 전체의 15.7%가 된다. 부모 둘 다 만난 경우는 14건으로 전체 재회응답의 27.5%를 차지하고. 그 밖에도 17.5%의 응답자가 형제/자매(이복형제/자매 포함)와 24%의 응답자가 기타 친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포함) 상당수가 여러 가족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미국의 아버지를 만난 사연,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형제/자매를 만난 사연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기타 친척을 만난 경우가 많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형제자매나 기타 친척만 먼저 만난 경우도 일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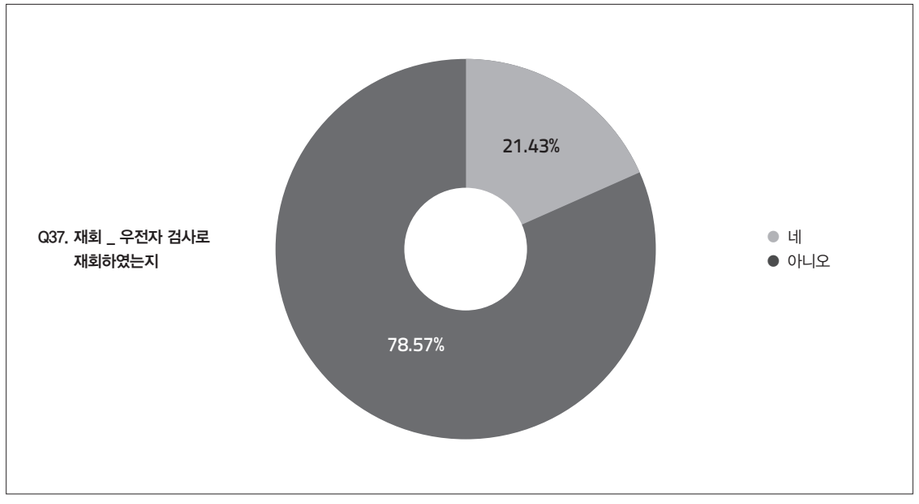
재회한 가족	응답수(중복허용)	퍼센트(중복허용)
어머니	44	69.80%
아버지	20	31.70%
형제자매	27	42.90%
기타 친척	34	54.00%
전체	125	198.40%

(3) 재회 장소

유효한 답변 58건 중, 입양인이 국내로 들어와서 만났다는 답변이 45명, 나머지는 미국에서 재회한 8명, 독일에서 1명, 중국에서 1명, 네덜란드에서 2명, 그리고 스웨덴에서 1명이 있었다. 재회 장소로서는 서울, 일산, 광주, 대구, 여수, 전주, 군산, 마산, 울산, 청도, 통영 등으로, 이는 친생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시로 가서 만난 경우이다. 구체적인 재회의 장소를 기입한 경우, 뿌리의집(3명), 입양기관(16명), 방송국 (2명), 경찰서(2명), 호텔(1명) 친척집 등이 있다.

(4) 유전자 등록과 재회 성사

응답자의 15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재회가 이뤄졌다고 응답했고 이 수치는 전체 재회를 경험한 64명 중 23%에 해당한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 성공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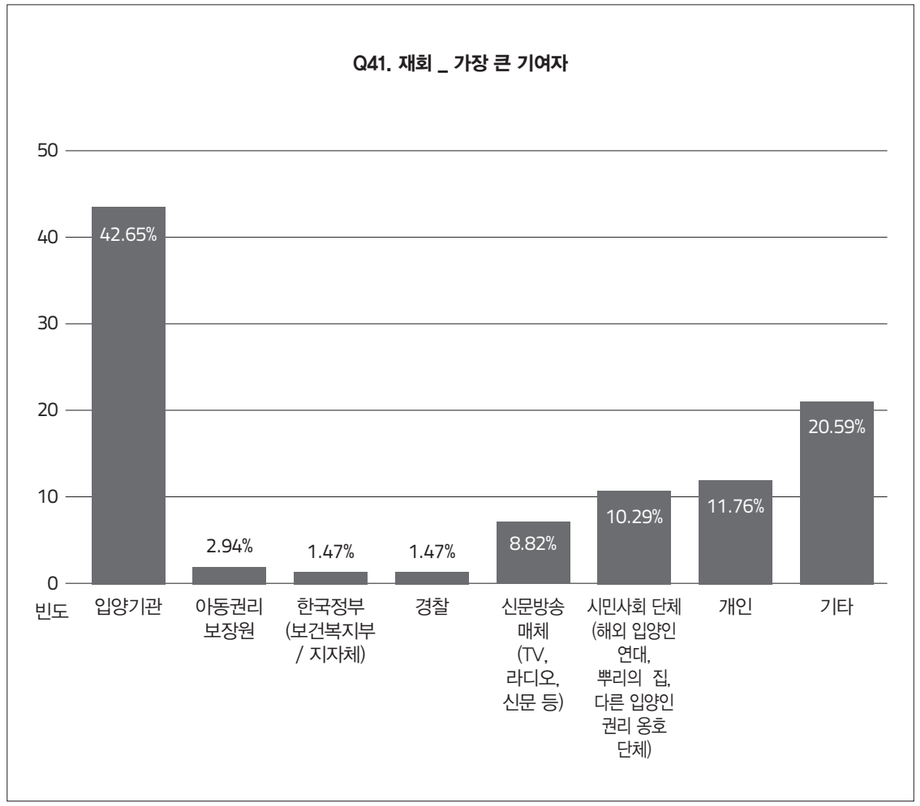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재회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0대와 40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 응답비율이 낮았고, 50대 이상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 경우, 특히 50대 이상의 응답자 중, “혼혈인”의 비율이 높고 그들 중 한 명이 미국 아버지를 찾은 경우가 재회응답에 포함되었다.

교차분석: 유전자검사로 재회하였는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네	빈도	1	2	4	6	2	15
	퍼센트	33.3%	6.9%	15.4%	60.0%	100.0%	21.4%
아니오	빈도	2	27	22	4	0	55
	퍼센트	66.7%	93.1%	84.6%	40.0%	0.0%	78.6%
전체	빈도	3	29	26	10	2	70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재회 기여자

본조사에서는 한국 친생가족과의 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주체로 입양기관을 꼽았다. (29명, 42.6%). 그 다음은 개인(8명, 11.8%)과 시민사회단체(7명, 10.3%) 순이었다.



(6) 가족찾기 소요 기간

재회에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친생가족을 찾는 데 소요된 기간은 짧게는 최소 1주부터 최대 62년이다. 재회 시도의 시작점에서 1년 안에 친생가족을 만난 경우가 31명(49.1%)이었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재회를 한 입양인은 15명(23.7%), 그리고 오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재회에 성공한 분들도 16명(27.3 %)이나 된다. 재회를 시도하고 5년이 넘게 기다려 만난 입양인 응답자의 재회여정에 대해 상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친부모임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만남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지, 아니면 확인하는 데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재회조력 절차의 문제로 만남이 지체되었는지 많은 상황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서베이의 결과로만 해석하기에는 미진하다.

친생가족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자면,

재회에 걸린 시간	응답자 수(명)	퍼센트(%)
< 1 달	13	20.0
1 – 3 달	3	4.6
3 – 6 달	15	23.1
1 – 3 년	11	16.9
3 – 5 년	4	6.2
5 – 10 년	4	6.2
10 + **	12	18.5
무응답	2	3.1
	64	100.0

** 입양인의 답변 중 58년 1달, 그리고 62년의 답변이 눈길을 끈다. 이것이 입양된 후 헤어짐의 세월인지, 아니면 자신의 나이만큼인지 살펴볼 일이다.
** 64개의 답변 중, 친부모나 친가족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과 그것이 재회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별도로 기입되었다.

(7) 가족찾기 소요 비용

총 171명의 응답자 중 52명이 가족찾기비용[6]에 관한 주관식 질문에 답을 했다. 비용의 상세 사용처를 살펴보면,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유전자 검사비용, 입양서류 복사비용, 통역 비용, 정보공개법에 의한 이민자료 신청비, 그리고 선물이나 단체의 기부 등이다.

〈금액 : US달러〉

비용	인원	비율(%)
1,000달러 미만	12	23
1,000달러 이상~5000달러 미만	21	40
5,000달러 이상~10,000달러 미만	6	12
10,000달러 이상~40,000달러 미만	13	25
	52	100

**유로화도 달러로 전환하여 산출하였다.

(8) 통번역 섭외 조력 주체

상봉을 준비하는 해외입양인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번역의 문제이다. 입양인들은 본인 스스로 통번역자를 섭외하기도 하고, 입양인 권리옹호단체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며,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섭외를 도움받기도 한다.

재회통역가 섭외 조력기관	응답자 수	퍼센트 (중복 허용)
본인	31	40.3%
입양기관	26	33.8%
아동권리보장원	7	9.1%
그 밖의 입양인 권리옹호단체	35	45.5%
일반 개인	19	24.7%
기타	8	10.4%
전체	126	163.6%

6) "내 가족을 찾기 위한 비용은 얼마일까? 나는 내 가족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여름마다 나는 내 가족을 찾고 있다. 나는 어림잡아 647만 원을 썼고, 이는 식비, 한국에서의 교통비, 해외에서의 의료보험과 기타 제반 비용들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은 금액이다."
(출처: 「프레시안」/제니퍼 권 돕스,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올라프(St.Olaf) 대학 영문학과 조교수 / 2009.10.2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7558)

5) 상봉 이후

(1) 입양인의 상봉 후 감정

본 연구에 참여한 입양인들은 응답자 70명 중 90%(63명)가 상봉에 대해 긍정평가로 대답했다[7]. 하지만 친생가족과의 상봉경험은 복잡다단하고 중첩적이면서 일관적이지 않은 경험이 대부분이다. 아래의 입양인들의 서술형 답변은 상봉 이후 경험하는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를 키워드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벅참, 놀라움, 압도적인 느낌

전반적으로 재회 순간의 '벅참', '놀라움', '압도적임'의 감정에 대한 짧은 서술이 많았다.

"굉장함. 축복받은 기분."(no.37)
"꿈이 현실이 됨"(no.72)
"굉장히 행복하고 삶이 변하는 경험"(no.104)
"혼란스럽고 매우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친가족과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no.12)
"놀라웠지만 벅찼습니다. 친누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제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내고 당연히 혈육을 찾게 된 것이 진심으로 놀라웠습니다!"(no.28)
"비현실적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지는 않고, 때로는 따라가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no.5)
"비현실적임. 큰누나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no.128)
"비현실적임. 미팅 전에는 매우 감정적이었지만 미팅 중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머니를 실제로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입양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제 파일과 커가면서 들었던 얘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소화할 내용이 많았지만 그 후 즉시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no.165)

■ 복잡함, 혼란스러운 감정

친부모가 입양 사실을 주변에 완전히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접하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준비하고 고대하던 시간이라도 예상했던 것과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접하기도 하고, 재회 당일의 정신없는 상황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

"복잡함. 친어머니는 만나기를 꺼려하셨고 재회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매우 방어적이셨고 비밀스러우셨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숨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재회가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no.9)
"마법 같은 경험이었음. 다른 입양인들보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받았고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어머니와 제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친어머니를 만나는 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입양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저의 입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면 한국 어머니께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신 얘기가 있어서 아직 제가 모르는 정보가 많습니다. 아마 수치스럽거나 떠올리시기 힘든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알권리와 한국 어머니께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균형을 항상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재회 경험을 공공연하게 알린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어머니가 상처받을 위험 없이 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재회를 통해 수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no.27)

■ 정신없음, 지침

재회 당일 이뤄진 일정과 만남의 과정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심리적으로도 정신없었던 경험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음. 정신적으로 지침."(no.4)
"혼란스러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18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MBC와 친부모님을 만났고 만나기 전까지 제 부모님이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보았을 때 서로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꿈 같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좋게도 그날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에 함께 있어서 부모님이 하신 모든 얘기를 노르웨이어로 번역했습니다. 아무도 그 상황에 준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뉴스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확신하셨다고 했고, 저를 직접 만났을 때는 100% 확신하셨습니다.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no.80)
"첫 미팅은 좋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25살이었던 당시 제 앞에 대가족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초 전까지는 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를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하는 가족을 갑

7) 질문지에서 상봉에 관한 단답형 질문(PART 6 – Q. 39)에는 64 명이 그렇다라고 이야기 한 반면, 서술형 질문 (PART 6) 에는 70 명이 자신의 상봉과 재회에 관한 경험을 술회하고 있다. 이는 질문지 작성 시 참여자의 해석오류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문항별 분석으로 두 답변 모두 유효답변으로 처리했다. 70명이 재회를 했다고 본다면 서베이에 참여한 입양인 171명 중 41 %가 친생가족과 상봉을 경험했다.

자기 만났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해외입양인연대 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공항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더할 나위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미팅은 더 재회다운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실제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는 훨씬 나았지만 이와 동시에 모든 것이 원만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가족은 아직은 덮어두고 싶은 입양을 둘러싼 비밀에 덧붙여 저에게 너무 벅찬 기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없었고, 재회 자체로 인해 생긴 다르거나 새로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서 좋았지만 저에 대한 비밀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저는 제한적으로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no.19)

■ 정체성 확인, 궁금증 해소

궁금증이 해소됨으로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경험이었다. 자신의 '근본을 찾는 경험'이자 '균형잡힌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얻었다는 언급이었다.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격렬했지만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제 근본을 찾아가는 경험이었습니다."(no.3)
"궁금증 해소와 평안을 얻게 된, 말 그대로 삶이 변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더 균형잡힌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no.55)
"어떤 면에서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졌습니다."(no.76)
"저를 만난 것을 반가워하셔서 안도했습니다. 자주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인지 말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를 입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no.42)

■ 슬픔

오랜 시간 서로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슬픔, 친부모의 마음이나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무 너무 슬펐습니다. 재회했을 때 서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친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프신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no.25)
"좋은 가족이 있어서 좋았으며 또한 저희가 잃어버린 시간이 많아서 슬펐고,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괴로우셨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no.88)

■ 현실 장벽, 기대와 다름

언어와 문화차이로 현실적인 장벽을 경험하고, 기대했던 부모님과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도 했다.

"어색하고 특별하게 느껴짐."(no15)
"실망스러웠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이 없으신 친아버지를 먼저 만났지만 그 후 나머지 가족을 만났습니다."(no.161)
"저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no.1)
"어머니 – 흥미로움. 매우 가까우면서 동시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 특별히 부정적인 경험은 없음. 아버지는 감정이 복받치셨지만 그 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웠음."(no.13)

재회의 과정 속에서 해외입양인이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친생가족과의 상봉은, 개인의 준비 정도, 상봉 당시의 여건이나 분위기, 처음 확인되는 입양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 등을 마주하면서 행복하고 벅찬 감정 이면에,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 등을 보여주고 있다.

(2) 상봉 후 어려움, 해소되지 못한 감정

친가족 상봉 후, 부정적이거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에 70명의 응답자 중 45명(64.3%)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 중에는 상봉에 대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no.22), 친어머니가 연락을 거절했다거나(no 14), 연락이 두절되었다(no.30) 라고 회고하는 답변이 있었다. 그 외에 입양인의 상봉 후 어려움이나, 해소되지 못한 감정에 대한 서술을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이질감

수십 년간 떨어져있던 입양인과 친생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났을 때, 자신의 실제와 다른 부모의 기대감에 벅차하거나 서로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한국 친어머니는, 제가 (그녀의) 기독교 사역에 기꺼이 조력하고 지지하기를 원하셨고, 그 바램이 (우리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회의 꿈이 저에 대해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되었던 한국 남동생과도 재회했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은 두고 저만 입양하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과 저를 대할 때 가족의 성차별을 감당하는 것과 때로는 (성차별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no.87)
"저와 어머니 사이에 수많은 차이점을 깨닫는 것, 가질 수 있었던 삶, 상실에 대한 감정과 시각, 방향잡을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 다이나믹했음."(no.154)

■ 비밀로 부쳐진 관계

많은 응답자가 재회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현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비밀로 부쳐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미혼모에 대한 낙인이 심한 한국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한편, 친생부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저의 존재가 어머니의 새로운 가족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연락하면 답변을 주십니다. 더 균형잡힌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no.33)

"친아버지는 모르고 친어머니는 (현재의) 남편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다"(no.72)

"어머니를 만난 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고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저와의 관계를 원치 않으실까 염려됩니다."(no.107)

■ 여전히 베일에 싸인 진실

친생가족과 만나면서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 이전의 삶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입양인 당사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친생부모나 가족에게는 잊혀있거나, 말하기 어려운 소재인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어머니는 제가 유기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와 안 하려고 하십니다."(no.67)

"가족들이 제 과거와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얼마나 솔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에 부쳐진 이야기나 꾸며진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진실되거나 직설적인 해답을 얻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no.76)

"재회는 까다로운 주제이며 가족찾기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친어머니를 뵌 후 제 입양에 대해서 들은 3가지 이야기 중 어느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친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친아버지와 두 명의 남동생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no.165)

■ 언어 장벽

입양인들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함으로서 서로에 대해 차차 배워나가며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다. 입양인과 친생가족 사이의 미묘한 감정과 정확한 사실의 확인에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입양인과 친생가족들이 겪는 언어의 단절은 이들의 관계 회복에 장벽이 되고 있다. 아래는 입양인의 서술형 답변 중, 언어장벽, 통역지원의 부재가 만들어낸 재회의 장면이다.

"처음에는 설렜지만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no.33)

"전부 다시 할 수 있다면 편견 없는 통역사를 고용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어머니가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no.61)

"저와 한국 가족은 재회한 후 번역사 및 숙소 준비와 같은 실행계획 관련 문제에 지속적으로 부딪쳤습니다. 여러 번 스마트폰에 있는 온라인 번역 앱으로 그럭저럭 소통했습니다. 저는 암울했던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감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한영통역사가 옆에 없이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도움 없이 남겨진 것 같습니다."(no.146)

■ 입양기관의 정보조작 확인

재회를 원하는 양자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 – 에게 입양기관은 유일한 소통창구이자 정보제공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래의 입양인의 답변은, 입양기관이 친부모에게 입양아동의 소재, 입양절차, 그리고 심지어는 입양아동의 안위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거짓말을 했던 경우이다.

"제 생각에는 입양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자 친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절대 가족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no.36)

"제가 입양되기 전에 입양기관에서 어머니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얘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no.161)

"친부모님과 얘기를 나눈 후 저희가 더 빨리 재회하거나 가족과 같이 자라지 못한 이유는 단지 입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회를 막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당시 한국에 있었지만 친부모님에게는 제가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개방입양(open adoption)을 하기로 했으나 저와 양부모님에게는 폐쇄입양(closed adoption)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no.84)

이처럼 응답자들은 상봉과 그 이후, 관계 회복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문화적 적응, 언어 소통,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변 중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홀로 남겨졌다고 표현하면서, 당사자 개인이 직접 직면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사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가족이 재회 경험으로 인해 받을 감정적인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재회와 관련하여 더 좋은 사후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재회 조력 교육 등) 이 상황에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현존하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지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재회경험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자원을 조달하는 데 장애물이 상당히 컸고 돌아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되지 못했던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no.146)

상세 답변 중 눈에 띄었던 입양인의 재회에 관한 정의는, 우리는 영어식 표현 reunion을 써서 재회를 지칭하고 질문지를 구성해서 물어보았다. 거기에 대해 답변 입양인은 reconnection 또는 re-introduction으로 부르기를 주장하면서, 물론 친생모의 임신기간 중에 있었던 것을 입양인과 친생모가 이어진 시공간의 화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별이 자신의 선택이 전혀 아니었던 상황에서 다시 합쳐짐으로 부른다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3) 재회경험 만족도

재회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보다 상세히 입양인 응답자로 하여금 재회 당일의 갖가지 경험들을 돌이켜 보고, 재회조력기관이나 조력담당자들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므로, 앞서 밝힌 "재회"가 갖는 주관적 의미와는 별도로, 상봉 당일 재회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질문이다. 재회경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84점이다. 4점 이상 긍정적 만족도 응답이 65.2%이지만, 1점이라고 답한 매우 부정적인 경험자도 7명(10.1%)이었다.

(4) 재회 통번역 서비스 만족도

재회 시 통번역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6점이다. 4점 이상 긍정 만족 응답이 66.7%이지만, 매우 나쁨의 경험도 8명(12.7%) 있다.

(5) 재회 관련 필요한 서비스

가족 재회 경험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특별한 서비스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 허용)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가족상봉 통역에 대한 접근(71.4%, 40명)[8]과 입양서류 번역에 대한 접근(67.9% 38명)을 꼽았다. 즉,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재회 시 통번역

재회 시 지원받았던 서비스와 재회 입양인이 원하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통번역이다.
재회 시 통역 서비스를 받았고, 이전의 서신교환 번역 서비스를 받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래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시간적이고 일회적인 통번역 서비스에 많은 입양인들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낀다.

"편지 번역, 실제 재회를 위한 오후 1회 통역"(no.56)

특히, 많은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통번역 지원과 해외입양에 대해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있는 전문 사회복지인력의 도움을 원했다. 친생가족 · 부모와 재회한 입양인들에게 통번역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한 번의 만남을 지속적인 관계로 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아래의 답변은 입양인이 재회를 준비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통번역 서비스의 한계를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재회경험에 관해서는 숙달된 번역사와 사회복지사가 있었다면 저와 제 가족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이 맹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대체적으로 느꼈습니다. 입양기관 통역사는 매우 유능했지만 그 도움은 몇 시간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자형제는 저를 만나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왔고 입양기관에서 첫 재회를 마친 후 수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여러 비영리 단체와 다른 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비영리 단체를 통해 또 다른 통역사 한 분과 친구를 통해 통역사 한 분의 지원을 받아 첫 재회 며칠 동안에 걸쳐 몇 시간을 지원받았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통한 통역사는 대학 학점을 받기 위해 지원했고, 재회 상황에 대해 훈련받지 못한 상태였고, 친생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 분의 지원을 받는 몇 시간 동안 불편했습니다. 제 인맥을 통해 찾은 다른 통역사는 저와 제 가족이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탁월하게 잘해주었지만 (그분이) 자리에 없을 때는 소통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해외에서 사전에 통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도움받을 방법을 찾고 매끄러운 재회를 준비하는 것이 입양인 개개인의 몫인 것 같았습니다."(no.147)

8) 재회관련 번역 서비스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p.79 - 80 참고.

신뢰할 만한 전문적인 통번역 서비스 확보 이외에도, 재회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충격과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해외입양 전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요구도 눈에 띈다.

"그저 좋은 통역사와 힘이 되는 사회복지사를 원했습니다."(no.42)

그 밖에 가족상봉 전 문화감수성이나 관련 이슈를 위한 사전 워크숍(64.3%, 36명)이나 정신건강과 지원 가이드(66.1%, 37명) 같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있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되돌아보면 한국의 미혼모에 대한 정보와 한국에서는 입양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사실, 한국의 예의범절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no.27)

또한 한국에서의 이동 차량, 주소나 지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 결

이 절에서 본연구에 참여한 171명의 입양인 중 64명(38%)이 친생가족(Birth family)과 상봉 · 재회했다고 응답했다. 친생가족과 만난 시기는 1992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93%가 2000년 이후 상봉했다. 어머니를 만났다는 응답자가 44명으로(69%) 가장 많았고, 아버지를 만났다는 응답자도 20명(31.7%), 부모 둘 다 만난 경우는 14건으로 전체 재회응답의 27.5%를 차지하고, 그 밖에도 17.5%의 응답자가 형제 · 자매(이복형제 · 자매 포함)와, 24%의 응답자가 기타 친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포함), 상당수가 여러 가족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재회 시도의 시작점에서 1년 안에 친생가족을 만난 경우가 31명 (49.1%)이었고 1-5년 사이에 재회를 한 입양인은 15명(23.7%), 그리고 오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재회에 성공한 분들도 16명(27.3 %)이나 된다.

입양인들은 친가족 상봉에 가장 영향력이 큰 주체로 입양기관(42.5%)을 꼽았다. 앞서 입양기관의 가족찾기 지지와 조력에 대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입양인들에게는 입양기관이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제치고 가족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입양기관은 입양인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유해왔고 이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2013년 입양특례법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지만 이 접근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사나 지침이 확실하지 않다. 입양인 서류의 아동권리보장원 이관작업과 전산화작업[9]이 진행중이긴 하나, 현재까지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산화 작업으로 수렴된 입양기록은 일부에 불과하며, 원본에 포함된 사진이나 상담과정에서의 메모 등 중요한 단서가 될 정보는 전산화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양인 연구참여자들은 입양기관의 정보 독점 권한과 입양정보에 대한 기관 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재회응답자 64명 가운데 15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재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의 성공율이 두드러졌는데, 이 결과는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요한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들 중에, 첫째, 해외입양인 유전자등록운동 주체가 되는 〈325캄라〉의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둘째, 이들이 재회한 친생가족이 한국 친생가족인지 미국인 아버지의 친생가족인지 구분이 필요하며, 셋째, 전체 인구 대비 유전자 검사율은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회의 가능성이 앞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있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한 측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재회성사율이 높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고령 입양인인 경우, 한국의 입양복지사업의 초창기에 입양절차를 밟았을 확률이 높고, 입양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찾기가 거의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친생가족과의 상봉 경험에 대해 90%가 긍정적 감정을 느낀 동시에, 64% 응답자가 부정적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밝혔다.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답변은 압도, 벅참, 혼란, 궁금증이 생김, 비현실적, 슬픔 등에 대한 것이었다. 부정적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는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여전히 비밀로 부쳐진 관계, 화가 나고 슬픈 감정, 입양기관의 거짓말 확인 등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통해 재회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감정과 상황의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재회의 경험

9) 중앙입양원이 수집 및 보관해야 하는 기록과 정보는 입양 대상이 되는 입양인의 경우에는 첫째, 입양 전의 성명,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 일시, 출생 장소, 혈액형, 혼혈 여부, 건강 상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유형, 장애 등급 판정 등과 같이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둘째, 인수일자, 입양기관 고유번호, 보호유형, 조치일자, 조치 내용 등과 같은 입양 이전에 해당 아동의 보호를 위한 기관이나 조치에 관한 내용, 셋째, 입양된 후에는 입양 후 변경된 성명, 파양 이력, 국외 입양의 경우에는 출국일, 국적취득일, 변경된 국적, 국외협력기관,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등과 같은 사항이 해당된다. (최용길, 제주대학교,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0, p.44)

과 감정에 대해서는 양적연구뿐 아니라 심도있는 질적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로에 대한 기대나 예상,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어, 심리, 문화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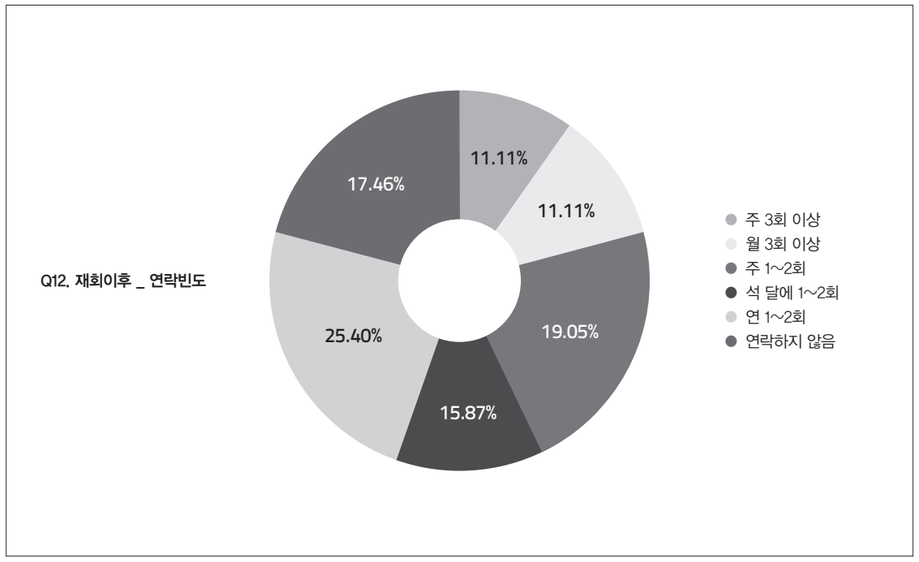
재회 경험에 대한 응답과, 재회 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특화된 전문적 통번역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재회경험에 대한 여러 서술형 답변에서 통번역으로 인한 답답함, 소통의 오류,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를 통해 통역은 단순한 언어교환이 아니라 입양과 재회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감정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통번역 지원에 있어서도 기관과 단체의 도움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구했다는 답변이 40%로 높았던 것을 볼 때, 가족찾기뿐 아니라 재회에서도 정부나 민간단체의 체계적 지원보다는 입양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봉/재회 관련 지원항목	응답수	퍼센트(중복 허용)
가족상봉 통역	40	71.4%
입양서류 번역	38	67.9%
정신건강/지원 가이드, 문학, 기타 등등	37	66.1%
가족상봉 전 문화 감수성 및 기타 관련 이슈를 위한 사전 워크숍	36	64.3%
상봉/재회의 절차에 대한 교육	32	57.1%
기타	5	8.9%

6) 상봉이후 친생가족과의 관계

"긍적적이고 치유되고 힘이되고 계속 진행중인 경험입니다."(no.41)

이처럼, 재회의 사건은 많은 질문들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상봉 이후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은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을까? 첫 상봉 이후 한국에 재방문한 응답자는 76.6%(49명)이다. 응답자의 78.8%(52명)가 한국의 친생가족과 연락하고 지내며, 21.2%(14명)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친생부모·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주 3회 이상 (11.1 %), 월 3회 이상(11.1 %), 월 1-2회라고 대답한 응답자수가 19%로, 응답자의 41.3%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회입양인의 4분의 1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취한다고 응답했다.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다음과 같다.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소통하고 있었다. 그 밖에 이메일, 직접 방문, 전화 등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와 연락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모의 연령이나 SNS 활용 여부 또는 영어 능숙도에 따라, 혹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소통의 방식과 빈도는 다양했다. 온라인 소통채널을 사용하면서 형제·자매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누이, 조카딸, 때로는 엄마(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신저, 카카오톡, 카카오 영상통화, 페이스타임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no.162)

"올해 여름까지는 아버지가 영어를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했지만 올해 여름에 형제들과 재회하면서 주로 그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연락하지 못합니다."(no.38)

상봉 이후 한국에 방문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응답이 90%(54명)에 달했다. 친생가족과 관계형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요약하면 '언어장벽', '문화차이'로 요약된다. 대부분의 답변이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 언어 장벽

언어를 통한 세심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은 관계형성에 큰 걸림돌이다.

"언어적 장벽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의식. 저는 완벽하고 싶기 때문에 가족과 만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진심으로 제 자신이 미국인임을 의식합니다."(no.25)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관계를 맺기가 힘듭니다. 더 나은 의사소통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료를 보내면 저와 제 친구가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쁘다는 건 맞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해봅니다."(no.160)

"언어의 장벽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다. 여기다 문화적 차이 또한 상당하다. 각자 애도와 그에 맞물리는 여러 감정들을 헤쳐 나가고 있다. 나의 한국아버지와 관계는 특히 어렵다. 현재의 부인이 아버지에게 다른 여성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no.146)

"엄마가 얼른 문자 메시지를 하지 않을 때, 특히 읽고도 답하지 않을 때, 너무 쉽게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장벽이 많고요."(no.107)

언어의 장벽은 단지 소통이 불편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려고 붙드는 어학사전이나 카카오 번역기 등의 번역에서 상황적 변수와 의미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통과 오해가 쌓이기 쉽다.

■ 문화 차이

한국인의 외모를 가졌지만 서구 문화권에서 성장한 입양인들 간에는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에 대한 이해와 상봉 이후의 상호 관계맺음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입양인의 경우, 외모나 이상적 결혼상대에 대한 구하지 않은 조언, 그리고 딸에 대한 가부장적인 태도와 기대감은 재회 이후 친생가족과의 유대감형성에 방해요소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한국가족은 여전히 저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란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먼저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 보냈지만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관용적이지 않습니다."(no.55)

"문화적 차이가 있고 36년 넘게 따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삶에 대해 배워야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계는 매우 좋으며 가족들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빠에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no.80)

■ 존재에 대한 비밀

입양인들은 재회로 만난 친생부모 외의 가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형제 자매 등)을 알고 싶지만 이에 대해 함구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친생부모의 새로운 가족관계에 입양인이 위치되기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재회를 통해 온전한 재회, 가족으로서 건강한 관계맺음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다.

"저의 존재를 모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두 번 뵈었던 외할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남편과 아이들은 저의 존재를 모르고 어머니는 비밀리에 저를 만납니다."(no.27)

"친어머니와 재회한 지 거의 6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해 주신 이야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친아버지와 남동생 두 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혼하셨고 과거는 잊으시려고 합니다. 친아버지와 친형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제 관점과 바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남편과 아들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거의 노력하지 않으시고 서로 양보하기보다는 저만 타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친어머니께서 더 개방적이고 솔직해지시지 않으면 저희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no.165)

그 밖에 '먼 거리'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답변들도 있었다.

입양인과 친생가족 사이의 언어의 장벽은 단순히 소통의 부자유스러움만을 뜻하지 않는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것, 그리고 언어의 어려움으로 인한 친생가족의 침묵마저도 입양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입양인에게는 친생가족이 자신의 연락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심리적 두려움을 갖게 한다.

소 결

재회한 응답자의 약 80%가 재회 이후에도 친생가족과 연락을 하며 지냈다. 온라인의 소통 여건이 나아지면서 해외에서도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친생가족과 자주(월 1회 이상 41%)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재방문자도 76%였다.

재회 이후 한국에 방문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90%에 달했다. 이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또한 많은 응답자가 재회 이후에도 친생부모와 자신의 관계가 비밀로 부쳐진 경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친생부모의 현재의 배우자가 입양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입양인의 재회경험을 통해, 입양인의 재회경험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로 인한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나 재회 이후의 관계회복을 입양인이나 친생가족 개인의 과제로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는, 재회 이후의 과정을 지지해주는 입양인–친생가족의 치유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서술형 답변을 통해, 재회의 경험과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다른 입양인들과도 공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회는 일시적인 첫 만남이 아니라, 재회 후의 관계 복원, 치유와 회복 등을 포함하는 긴 과정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따라서 재회에 대한 사후서비스는 일시적인 이벤트로서 첫 상봉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재회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고 지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7) 재회에 관한 소회

입양인들의 재회의 경험에 대한 서술형 답변은, 재회의 시작과 과정에서 절차상의 개선점뿐만 아니라, 재회가 입양인의 정체성, 삶의 여정에서 갖는 의미를 드러내 주었다. 아래 조사된 개개인의 재회에 관한 소회는, 재회 = 힐링 · 화해 · 치유라고 보는 간편한 이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 특히 입양인들의 재회 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입양을 담당했던 입양기관, 입양을 장려하고 방조했던 한국정부, 또한 해외입양에 대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① 해외입양인만이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온전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재회는 의미가 있다.

‘친가족과 재회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었다.’
‘재회는 입양인에게 무척 중요하므로 좀 더 쉬운 가족찾기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가족을 찾는 여정은 저에게 매우 길었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14년에 두 번 가족찾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법도 바뀌고, 다시 할머니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저의 친생모의 이름도 알 수 없게 되었죠. 많은 입양인들은 두 번 버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입양을 통해, 두 번째는 입양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해. 이는 마치 나을 수 없는 환지통 같은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을 꼭 바꾸어주십시오.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입양인이 자신의 생애사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자신의 기록 접근권). 모든 입양인들이 고아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국외입양일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no.79)[10]

② 해외입양을 발생시킨 한국사회와 한국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입양인의 재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저는 재회를 전담하는 중앙기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료한 절차와 과정이

10) 원문 : “Family search was a long way for me. I researched twice, in 2004 and in 2014. In the meantime, law was changed and they couldn't contact my grandmother again and I couldn't have the name of my mother. Many of us feel abandoned twice, the first time when relinquished to adoption, the second when we could not have access to a precise file or a story. It's like a phantom limb pain that could never be healed. Please make a change in law. Yes, the anonymity of the parents has to be respected but the right to know our story is really important. Not all adoptions are better than staying orphan, even more so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adoptions.” (no. 79)

입양인에게 각종 언어로 공유되는 그런 기구 말이죠. 이 가족찾기 과정에는 통번역, 재회 전 · 후 상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조언, 재회여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실질적 조언 (예를 들면, 여행에 필요한 짐, 무선인터넷 보조장치, 유심카드 구매, 대중교통 이용, 도움이 될 만한 책, 영화, 팟캐스트 추천, 입양인 국적회복에 대한 상담, 한국으로의 이주상담, 필요한 비자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홀로) 친생가족을 찾고 또 재회 이후를 헤쳐 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새로운 삶(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역사, 다른 관계, 다른 정부 속에서)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운다는 건, 지지와 지원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no.158)[11]

'한국 정부가 좀 더 책임있게 입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입양은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만드는 사회사업이었다. 첫번째는 입양 수수료를 통해, 두번째는 모든 가정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득, 세번째는 돌아오는 입양인으로 인한 경제소득 부분이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그동안 해외로 추방된 모든 해외입양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비용과 재회에 드는 모든 비용 – 개인적으로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비용까지도 – 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치유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19년 동안 찾았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no. 147)[12]

'미혼 여성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에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입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갖고 지원해야 한다.'

11) 원문 : "I think it would also be helpful to have a central organization with clear instructions and process for birth family search and with staff members that are able to communicate in the various languages of adoptees. The process should always include access and availability to therapy, translators, cultural tips, travel support which could include monetary aid in addition to just practical tips – what things to bring, where to get wifi eggs or SIM cards, navigating public transportation, helpful apps, etc., suggestions on other resources – books, movies, podcasts, etc., access to support groups, how to move back to Korea, dual citizenship and f4 visas. Navigating birth family search and then navigating what to do after reunion are both really daunting. Trying to learn how to live an entire new life (language, culture, history, relationships, government) is impossible to do without support." (no.158)

12) 원문 : "Adoption is a triple profit: 1) they make money when they sell us, 2) they save money because they don't have to create a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ystem to support ALL families, 3) they make money off us when we return to Korea. This needs to stop and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provide reparations for all overseas adopted Koreans starting with those who have been deporte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doption agencies need to cover all DNA testing and search fees, including hiring a detective if that is what we choose. This is the path to healing. I've been searching for my Korean family for 19 years. How much longer do I have to wait?" (no. 147)

③ 재회에 대한 편견과 환상을 깨고 재회의 진실을 입양인과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화해와 치유는 오랜 여정이다.'
'재회의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어려움 등도 알려져야 한다. 재회는 기쁨과 슬픔, 이해와 동시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입양 가족들과 친생가족들 사이에서 균형잡기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완벽한 재회'를 꿈꾸는 입양인이 환상을 갖지 않도록, 다른 입양인들의 경험을 듣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재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재회 이후 경험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개인별 경험이 다르기에 지지 그룹(입양인 모임 등)의 존재가 유익하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입양인에게 재회에 대한 단계별 일정표가 제시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 결

해외입양인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현재 해외입양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재회를 조력하는 일을, 해외입양을 알선하고 진행시킨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과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 외에도 이미 많은 단체들이 해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입양인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시민사회의 조력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었다.

서술형 답변에서는,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게 해외입양의 재회절차에 대한 인지도 교육, 인력의 전문성 증강처럼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 지지망, 그리고 재회 시 입양인들과 짝을 이룬 멘토링 시스템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특화된 제안도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사설 입양기관과 정부의 아동권리 보장원에 대한 견제와 제도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요구가 눈에 띈다. 특히 주의를 끈 것은 접근성에 관한 문제이다. 입양인들은 많은 재회 조력단체에게 언어적, 물리적, 정보력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 친생가족 심층 인터뷰[13)]

1) 재회와 한국의 친생가족

(1) 친생가족의 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는 재회에 관하여 해외입양인만이 재회를 원하고 시도한다는 기존의 선입견에 대항하여, 친생부모 · 가족들의 재회 시도, 노력, 여정, 그리고 상봉, 재회 후의 관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친생부모 · 가족들의 재회욕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친생가족들께 본 연구에 대한 참여를 의뢰하기 위하여, 〈뿌리의집〉은 〈325캄라〉의 유전자 데이터 뱅크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 〈325캄라〉의 협력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은 친생가족들 중 다섯 분께 연락을 취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또 다른 다섯 분은, 〈뿌리의집〉에서 그동안 해외입양인 지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친생가족들께 연구협조 요청과 동의를 구하여 총 열 명의 친생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는 2019년 7월부터 11월초까지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고, 입양인 재회경험 설문지를 바탕으로 친생가족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입양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였지만, 친생가족들은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어가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기입하고 발언내용을 녹취하였다.

총 열 명의 친생가족 중, 생모는 여섯 명, 생부는 한 명, 형제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입양에 관여한 고모와 외삼촌이다. 이들의 나이는 2021년 기준, 만 40세부터 74세까지이고, 해당아동의 입양연도는 1966년부터 2000년에 이른다. 모두 〈325캄라〉에서 주관하는 친생가족 유전자검사등록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다. 열 명의 친생가족이 총 열두 명의 입양인[14)]을 찾고 있었고, 이 중 다섯 명은 입양인과 재회를 경험했다고 전한다. 전체 참여자 중, 세 명은 실종으로 인해 자식이나 자신의 친형제 · 자매와 이별을 경험하였고, 이 중 두 명은 수십년의 노력 끝에 〈325캄라〉의 유전자 등록 사업을 알게 되어 〈뿌리의집〉에 유전자 등록을 위해 직접 방문하였다.

입양에 이르게 된 계기는 실종, 가정불화, 이혼으로 인한 생활고와 양육의 어려움, 장애아동 출산, 미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가족들의 종용, 그리고 아동유괴 등이다. 하지만 가정의 불화나 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이 입양으로 이어지기까지 우연하고도 복합적인 원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연을 종합해 보면, 스스로 입양기관에 의뢰를 했던 어머니는 고작 2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입양기관에 아동의 입양을 의뢰했던 아버지는 두 명이다.

13) 친생부모 · 가족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이의 의견이며, 관련 법제도와 당시 입양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연구자 주)

14) 가정의 해체로 인한 해외입양의 경우, 한 친생부모가 다수의 아동을 입양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연구에 참여한 재회를 희망하는 친생가족[15)]

참가자명 (출생연도)	입양인과의 관계	입양사유 (입양의뢰자)	입양연도(추정)/성별 입양국	입양기관	유전자 검사처	재회여부/연도 (비고)
이금녀 (1952년생)	친모	실종 (시설)	1976년 미국 **1975년 5월 9일 실종	홀트아동복지회	어린이재단; 325캄라	Y/2019년 **실종된 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재회. 44년만에 상봉.
이미선 (1969년생)	친모	미혼모 (친모)	1990년 미국(확인필요)	홀트아동복지회	325캄라	N
김정화 (1961년생)	친모 (두 아이를 입양보냄)	가정불화 (딸: 친언니가 친모 동의 없이 입양의뢰) (아들: 친모)	1986년/딸 미국 1987년/아들 프랑스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325캄라	Y and N 딸과 연락과 중단 반복 하다 2012년 다시 연락. 2017년 미국방문. 아들은 찾지못함
박은미 (1956년생)	고모	미혼모 (친모남동생)	1986년/두 딸 (당시 3세, 5세) 입양국 알수없음	고아원 (진주 남강 근처) 부산 홀트 아동 일시 보호소	325캄라	N 친모인 여동생과 유전자 검사/친부는 유전자 검사 안 함
김병호 (1948년생)	외삼촌	미혼모 (친정엄마, 친모남동생)	1974년 추정/딸 미국 누나가 미혼모로 1966년 출산, 8세경 입양됨.	서울 녹원영아원 입양기관	325캄라	Y/ 2019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연결, 재회
신선화 (1964년생)	친모	가정불화(경제적사유)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시누이 계속된 독려	1983년/딸 미국	봉천동산부인과 홀트아동복지회	325캄라	Y/ 2020년 연결 2019, 재회 2020 2010년부터 가족찾기
이선혜 (1961년생)	친모	가정불화/이혼 (시어머니, 동서) 작은 동서가 생모로 기재됨–1995년 홀트 방문시 확인	1985년/아들 미국	홀트아동복지회	325캄라	Y/2019년 2019년 미국방문 딸이 중앙입양원에 사연을 올려주어 찾음
김태섭 (1947년생)	친부	실종아동	**1982년 만4세였던 아들 실종	근거는 없지만 해외입양추정	어린이재단 경찰청 325캄라	N 실종아동협회에서 오래활동
오지영 (1971년생)	친모	장애아동 (친부,친모)	2000년 8월경/아들 출생 후 100일 시점	부천 세종병원 홀트아동복지회 (인천 주안)	325캄라	N 간호사 이름으로 기재되어 입양(미혼모)
최영진 (1983년생)	누나	실종아동	**1984년생 남동생 (7–8개월) 실종	근거는 없지만 해외입양추정	325캄라	N 서울대공원에서 실종됨 (입양브로커 유괴 추정)

15)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친생부모 · 가족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연구자 주)

2) 참여 가족의 개별 서사

아래는 친생가족들의 참여자 시선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구조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개개인의 입양의 경험과 재회를 결심하게 된 동기, 망설임, 그리고 경험을 중심으로 다시 직조해 보았다. 여기서는 친생가족분의 증언을 토대로 담당기관들의 행정적, 관례적 절차와 친생가족이 마주하게 되는 난관들을 파악해 보았다.

(1) 친생모와 해외입양

김정화님 (1961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1월 18일
1986년, 1987년 두 번의 입양과 몇 차례 재회

"그 아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아이가 내가 죽기 전까지 언제 마음이 풀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려주기로…"

김정화님은 1986년 당시 아이 둘 (첫째는 4 – 5세의 딸, 둘째는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첫째 딸은 본인 모르게 큰언니가 입양기관인 한국사회봉사회를 통해 입양보냈고, 둘째 아들은 친모 본인이 1987년 홀트아동복지회에 가서 입양의뢰를 했다고 한다. 당시 기혼 상태였으나 남편되는 이가 그렇게 '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1986년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던 첫째는 간간히 입양기관을 통해 소식이 끊기지 않았고, 그 후로도 입양부모를 통해 편지 또는 사진이 전달되어 몇 번 소식을 이어가다가, 자신이 보낸 편지가 반송이 되면서 연락이 끊겼다. 소식이 단절된 후, 2012년 지인의 도움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연결되었고, 그 길로 2017년 딸이 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가서 9일을 지내다 왔다.

첫째 딸을 자발적으로 입양보내지 않은 김정화님에게 재회를 위한 첫걸음은 입양 절차의 합법성을 질문하는 것이었다.

"친모나 친부의 동의 없이 어떻게 아이가 (입양을) 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친부나 친모가 동의 없이도 갈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가 입양을 가려고 하면 친부나 친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외에 이 아이가 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친모나 친부의 동의 없이도 아무나 데리고 가도 입양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해당을 시켜서 입양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에서 얘기는 하는데 서면으로 남겨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가게 됐느냐고 질문했을 때 저한테 답은 해주셨지만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한편, 김정화님은 직접 입양을 보낸 아들을 찾아보려고 홀트아동복지회에 갔을 때의 경험은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전한다. 홀트에 방문하고 아이의 연락여부를 확인할 때, "너무 자존심 상하게 … "무엇 때문에 아이를 찾느냐"는 느낌으로 대했고,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경제적인 의지를 하려고 그 아이를 찾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후로도 각각의 입양기관을 세네번씩 방문했다. 모멸감과 차별을 견디면서도 입양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정화님은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보낸 사람들(은) 입양을 보낸 기관에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양기관에서 너무 죄인 보듯이 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생활이 좋아졌던 나빠졌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입양 간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거라도 알고 싶어서… 입양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 저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죄인 취급을 안 해주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아이를 찾아내라고 떼를 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회 이전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김정화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막연하게… 막연하게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동안 계속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성격상 남들한테 의지를 잘 못해요. 제 이런…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남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있어서 항상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하고 30년 동안 지인관계 유지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제 속마음을 터놓지 않다 보니까 상대도 저한테 약간씩 벽이 좀 있고 제가

항상 벽을 쌓고 살고 있고 … 그 항상 돈을 쫓아서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또 제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니까 제가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모르니까 계속 사람들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 삶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요."

재회를 경험한 후, 김정화님은 "아이가 너무 안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일단 제 걱정은 좀 나아졌다고 할까요?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좋아진 상황이에요."라고 말했다.

"(딸과 만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못하고 있다가 딸과 재회를 하고 딸을 위해서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도 좀 하고 자격증도 하나 따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활도 앞으로 나아질 예정이고, 나아지고 있고 나도 이렇게 사니까 '너도 공부 좀 더 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딸한테 그 부분은 전달이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생활도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어쨌든 예전에는 주변에 자식이 있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입양을 보낸 자식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나한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다, 아들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아들, 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가끔 사진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제 생활이 딸을 찾음으로 인해서 연락을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많이 좋아요,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두 아이를 입양 보내신 김정화님은 소식이 닿지 않아 아직까지 못 만난 둘째 아들이 맘에 걸리시는 모양이다.
"그냥 마음에 짐으로… 그냥… 가져가야 될 거라고 아예 지금은 포기를 한 상태예요. 아이가 저를 안 찾을 거라는 믿음이 가는 게… 그 홀트아동복지회에 그 아이를 보내고, 그 사무실에 그 아이를 두고 나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 속에 그 아이가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를 들었고, 해서 아마도 그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고, 쉽게 말해서 자기를 버렸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안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를 원망도 안 하고, 어차피 제 잘못이니까 그냥 그 아이를… 그 아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아이가 내가 죽기 전까지 언제 마음이 풀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려 주기로…"

이미선님 (1969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8월 15일
"입양인들을 통해 생모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미선님은 1990년 미혼모 시설에서 기거하면서 출산하고 입양을 보냈다. 시설 원장님과의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17년 동안 미혼모시설 운영위원으로 일해왔다. 현재는 사회복지학으로 박사과정 학업을 계속하시고, 가족상담, 우울증 상담 등을 하면서 국외 및 국내입양가족 모임,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 뿌리의집 등 여러 곳에서 입양과 사회정의, 입양인의 알 권리 등의 갖가지 공론장에 연사로,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미선님은 본인의 어머니가 국내입양인으로서 자신의 부모를 찾고자 집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 1990년 당시, 남자친구(대학생)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내 아이가 확실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찾아온 해결책은 인공유산이었다. 대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유산을 하려고 했지만, 수술대에 누워있던 이미선님의 쇼크증상으로 인해 인공유산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러다 엄마가 계신 서울에 올라가 엄마의 권유로 입양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미혼모 생활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시설에 만삭이 다 되어 들어간 이미선님에게 바로 입양기관에서 직원이 찾아왔다고 한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친권포기각서 쓰는 것이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지금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하면 애기를 영영 못 본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충분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애 놓기도 전에 이거 쓰고 입양 결정하고, 애 놓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니까… 정 떼기에는 최고에요. 진짜. 잔인하게 얘기하면." 입양 기관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당연히 입양할 거라는 전제 하에 딱 세 가지를 일러주었다고 했다. "입양기관 직원이 오셔서 친권포기각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해외입양을 미국으로 보내고 싶냐, 유럽으로 보내고 싶냐… 저는 인제 엄마가 해외입양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 가정이냐 비크리스찬 가정이냐', 세 번째는 '형제 있는 가정이냐? 없는 가정이냐?'를 질문했어요."

30여년 전 이미선님의 입양 경험을 (자신의) 아버지나 자신의 현재 가정의 자녀들(삼남매로 딸과 아들 두 명)에게는 아직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과 딸아이는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심리적 지원을 해준다고 느낀다. 남편은 홀트에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입양간 아이에게) 연락이

올 까봐 번호를 못 바꾸고 지낸다. 또한 작년부터는 입양사실을 아들들에게도 공유하자는 제안을 하신단다. 이미선님도 유전자 등록을 뿌리의집에도 해두고 입양인이 모이는 행사 때마다 가능한 참석하면서 입양인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언제 보냈냐고 묻는데, 저는 아직도 보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동안 더 나이가 어린 입양인들도 와서 찾는데 왜 안 오나 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었다가, 입양인을 맞이하는 쪽에서만 있었던 이미선님은 최근 사이드 바이 사이드 프로젝트side by side project[16]의 입양인 감독 글렌 모리스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되뇌였다. 재회를 위해 노력하는 입양인들의 곁에서 입양에 대해서 배우고, 입양에 대해 알려면 생모들이 입양인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요 제 안에 치유가 생기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음…재회를 거절하는 생모들이나, 아니면 재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모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면 특별하게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서 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거절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지만 하고 여지를 두던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생모들도 예의있게 행동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그런 거를 배운 거예요. 내가 상담하는 생모들에게 이야기해 줘야겠다."
"성장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재회와 관련해서 입양인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같이 만난 것 자체가… 계속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 느낌이에요. 단절되어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다가 때 되어서 나타나면 '그래, 나 너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라고 만나면 돼지. 보낼 때도 언젠가는 만나지 생각하고 보냈다고 했으니까요… 음 나도 입양은 진짜 입양인한테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입양한 사람도, 입양 보낸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입양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도 크는 거 같아요.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가거든요. 입양인들을 만나면서 저도 생모로서 성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재회를 기다리면서, 얘가 혹시 나중에 무슬림이 되어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게이가 되어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장애를 입거나 범죄자가 되어서 올 수도 있어…그래도 엄마니까 딴사람들은 다 저기해도 오죽하면…그 상황에서 날 찾아오겠냐…그럼 나는 거절하면 안 되잖아…이거 자꾸 (스스로에게) 교육시키거든요. (웃음)"
"기다리는 재회의 이면에는, 아이에게 지금 맞는 건지, 이게 내가 찾는 거 때문에 혹시 아이가 곤란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은 있어요."

"입양기관을 찾아갔을 때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들어가려고 수위아저씨에게 말해야 하고, 특히 예전에는 딱히 사후입양 상담 서비스 이런 게 없어서, 어두침침한 골방 같은 곳에서 이야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입양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 말투, 태도, 비언어적인거… 눈빛" 에서부터 차별감을 느끼고 불편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에서는 직원들의 비전문성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개개인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저희 입양을 둘러싼) 가족은 가족이라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자식인데 자식이 아닌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가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둘이 의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흔적도 없는… 내 지금 가족 빼고 우리 둘이서만 하고 싶은 얘기를 영상에 담는 작업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겨레21] 스무살 엄마의 절규,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6~7년 전 내 사무실로 한 소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갓 20살이었고, 19살의 어느 날 아이를 낳았다.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친권 포기 각서를 쓰고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다. 아이를 낳은 뒤에는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입양을 보냈다고 했다. 당시 미혼모 대부분이 그랬듯 그녀가 있던 시설도 입양기관 부설 미혼모 시설이었다. 미혼모 시설은 입소 자체가 입양을 약속해야만 가능하다. 사설 입양기관의 존립은 입양할 아이의 존재와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부설 미혼모 시설은 안정적인 입양아동 공급처였던 셈이다. 이런 미혼모 시설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절대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가 철칙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 얼굴을 본 엄마는, 젖을 물려본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아이를 포기한 엄마들은 많은 경우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지 못한다. 그녀처럼 마음이 바뀌어도 법에서 정한 입양 취소 절차를 밟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출처 : 「한겨레21」 제954호 2013-03-2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197.html

16) Side by Side'는 영화 감독이자 한인 입양인 출신인 글렌 모레이Glenn Morey(한국명 김 강)씨가 한인 입양인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7개국, 16개 도시, 6개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계 입양인 10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뉴욕, 시애틀, 시카고, 보스톤, 파리,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멜버른 등에서 촬영이 되었으며, 짧은 기록 영화는 100여 개의 이야기를 포함한 방대한 프로젝트 중의 일부이다. 프로젝트 전체 영상은 sidebysideproject.com 에서 볼 수 있다. 각 영상에서 한국계 입양인들의 입양에 대한 솔직한 심경과 경험들을 녹여냈다.

(2) 장애와 해외입양

오지영님 (1971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0월 23일 (2000년 입양)

"산부인과 간호사의 이름으로 미혼모라고 기재되어 입양 보내져서,
그 간호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저희는 못 찾고"

오지영님은 2000년, 백일이 좀 못 된 둘째 아들을 입양 보냈다. 아주 힘들게 출산을 했고, 아들이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아이 아빠가 먼저 보고 간호사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부천 세종병원에서 출산하고, 인천 주안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보냈다고 한다.

"다들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정하고 시댁도 그렇고… 식구들은 아이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찾고 싶은 건… 그건 보낸 날부터 계속…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애기 찾자고 한빈이 찾자고… 제가 보낼 때는 이름이 천상으로 올라가 있고, 예명으로 부르는 거는 한빈이거든요. 그래서 한빈이 찾자고 그랬더니 아빠가 어딘가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와서 찾으면 뭐하냐…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면 되지 그러더라구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한 번은 봐야겠다… 보고싶다고 생각했어요. 나 용서 안해도 한 번 보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기 보내고 여태까지…제가 우울증도 심하게 앓고 있고, 자살시도도 몇 번 했고… 그래서 그런 일 있고나서 큰애가 엄마 동생 찾아봐야지 그러더라구요."

"(예전에)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깨어났는데 큰애가 동생에 대해서 아니까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듣고 찾아보자고 해서 홀트에 연락하니까 우리가 직접 못 찾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홀트에 연락을 해 보았고, 저희는 부모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못 찾고[17],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이름으로 미혼모라고 기재되어 입양 보내져서, 그 간호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저희는 못 찾고 그쪽에서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주안 홀트가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 직원이 아직 있는지 궁금해요. 아이를 데려간 직원분을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잘 갔는지, 갈 때 울지는 않았는지…(흐느낌) 알고 싶어요."

17) 인터뷰에 따르면, 부모가 산부인과에서 친자포기각서를 썼고, 해당 병원의 간호사의 이름으로 미혼모라고 기재되어 입양보내졌다고 함. 따라서 자녀가 산부인과 간호사가 미혼모인 친모로 기재되어 입양보내진 것으로 추측됨.

2018년 방송을 보고 뿌리의집에 연락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 아이 아빠에게 (함께 유전자등록을 하자고) 연락을 했으나 거절하여, 지금은 큰 아들과 본인이 유전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다.

오지영님은 자신이 점점 몸이 아파오고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아이를 찾아서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울음) 사죄도 하고 싶고, 눈이 멀어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용서도 빌고 싶고, 밥도 한 번 먹이고 싶다고, 너무 미안하지만 한 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 찾고 싶은 말 끝에는 이미선님의 두려움처럼,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번민도 자리하고 있었다. 번민의 자리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나서 잘 살아야 하는데 아이 아빠와도 헤어지고, 본인은 아프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상황이 걸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찾아놓고도 엄마 원망할까봐. 원망하고 안 볼까봐. 안 만난다고 할까봐. 그래서 안 만난다고 해도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멀리서…(흐느낌) 보고 싶어요. 내가 내 손으로 밥 한끼 떠먹이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우리아들 잘 커줬다 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흐느낌) 엄마가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서 밥먹여주고 싶어요."

비록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만날 날을 대비해서 아이 아빠에게 만날 의향을 미리 묻고 만나겠다는 다짐을 받으셨다고도 했다. 또한, 만일 본인이 못 만날 때를 대비해서 "나 대신 큰 애가 지 동생 만나게 될 때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흐느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인터뷰의 중간에 입양보낸 아이의 사진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 옷 (준비하신 옷) 입고 갔어요. 팔은 없고… 우리애 같은 애는 금방… 만약 찾게 되면 애기가 팔이 양쪽이 없으니까 찾으려고 하면 찾기는 어렵지는 않다고 그 얘기는 했어요. 커서도 팔이 없으니까 우리애가 전세계에서 한 명 꼴로 태어날까 말까 하니까… 우리애가 거기 걸렸었어요."(흐느낌)

1954년 정부가 처음 해외입양아의 통계수치를 작성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해외입양은 장애의 범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제1세대인 혼혈아동 또한 장애로 분류되어 있었고, 입양의 원인이 "장애"로 분류되어 있었다. 1980년대 입양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입양쿼터제에서도, 장애아동의 해외입양은 예외적으로 처리되었다. 다시 말하면, 장애아동은 한국의 해외입양실천에서 한국에서 가정을 찾을 수 없는, 언제나 최우선으로 입양되어야 하는 아동으로 분류되었다.



오지영 씨의 이야기 중에는 친권포기각서를 썼다는 내용과, 병원의 간호사가 미혼모로 되어있어 못 찾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친권포기각서를 썼었고, 간호사가 엄마로 되어있어서 아이를 찾으려면 간호사를 찾아야 하고, 그 간호사가 찾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당시 해외입양절차에 있어서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산부인과와 입양기관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있어 절차상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님의 인터뷰는 해외입양 절차상의 친생모의 인권침해 사실을 드러내고, 입양기관뿐만 아니라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의료기관이 함께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좌측 상단은 오지영님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와 헤어졌던 부천 세종병원의 사진이다.

(3) 실종과 해외입양[18]

이금녀님 (1952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2월 16일 (1976년 입양)

"걔를 하루라도 잊어버린 날이 있나. 하루 1분 1초도 잊어버린 날이 없는데."

이금녀님[19]은 큰딸 윤희와 1975년 헤어졌다. 아이가 없어진 실종 첫 날, 그녀는 근처 할머니 집에 갔나보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이를 찾으러 할머니집을 가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다. 혹시 근처의 경찰서에 가면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해서 한동안 거의 날마다 경찰서를 갔다고 했다. 딱히 실종아동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없어 갈 때마다 다른 경찰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마땅히 앉을 자리도 없는 경찰서 앞 담벼락에 기대어 두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곤 했었다.



아이가 없어진 그 날부터 거리에서 윤희를 찾는 전단지를 돌렸다. 하지만, 아이 사진이 찍힌 전단지를 구겨 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81년부터는 방송과 신문을 위주로 아이 찾기를 했다.

"걔를 하루라도 잊어버린 날이 있나. 하루 1분 1초도 잊어버린 날이 없는데." 지난 45년간 없어진 딸을 찾으려고 살았다고 회고하시는 이금녀님은 1983년 KBS의 이산가족 찾기에도 출연하였고, 신문과 방송 가릴 것 없이 수많은 행로로 미아찾기를 시도했다.

특히, 생업으로 해온 미용실 일도 "사람들하고 많이 말을 해서 애 잊어버렸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가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돈을 벌어서 애를 찾아야겠다는 목적이었고, 또 애를 데리고 내가 안 잊어버리고 집에서 애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해서 미용을 배운 거예요. 목적은 확실하게 그거예요."

그러던 중, 1990년도쯤에, 유철종 씨와 이지연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는 실종아동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본인의 딸과 잃어버린 시기, 이름, 나이도 비슷한 사람을 찾았다. 잃어버렸던 딸로 생각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시집도 보내고 2-3년이 지나, 그 딸로 생각한 아이가 실제 딸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그 이후로 이금녀님은 다시 잃어버린 딸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한 일은 어린이 재단[20]에 가서

18) 2019년 11월부터 해외 입양인은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외공관에서, 자신의 유전자와 실종자 가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9년 12월 손동석 씨, 2020년 이상애 씨 모두 실종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사례이다.
기사 링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e006619e4b0843d35fe31f1?ncid=other_huffpostre_pqylmel2bk8&utm_campaign=related_articles
정가영, "실종아동 해외수출, 정부가 묵인"
기사 링크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3

19) 이금녀님 사연은 유전자 검사로 입양인을 찾은 이야기로 신문과 방송 여러 곳에 보도되었고, 또한 325KAMRA의 엮음책 『결국에는 함께: 입양 스토리와 DNA 검사 시대의 재회(Together at Last: Stories of Adoption and Reunion in the Age of DNA)』에는 이금녀님의 입양인 딸과의 재회의 감상을 적은 글이 실려있다.

20) 한국에서는 어린이재단에서 1986년 5월부터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개설하고 미아찾아주기사업을 전개해왔다. 이후 2005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실종 아동 및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립했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다가 2018년 1월 중앙입양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듬해인 2019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고 해당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는 부설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 실종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89)

유전자등록을 해놓은 일이었고, 그리고 실종아동찾기협회[21]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도 (여자아이라서) 누가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하면 미용실 문을 닫고 가봤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수도 없이, 사창가를 갔었다고 고백하였다. 혹시 내 아이가 거기 있나 해서.

2016년 4월경, 325캄라 유전자등록을 위해 뿌리의집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고, 2018년 10월 딸 윤희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 '사기쳐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남편과 함께 뿌리의집에 도착했다.

재회란, 이금녀님한테 '큰 숙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실종아동이었던 당시 만 5세의 윤희씨는 집에서 나와 제인 화이트 씨(한국이름: 백제인)가 1962년에 세운 제천의 '제인화이트 영아원'에 69년생으로 입소, 10개월 정도 있다가 서울 홀트로 이관되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그 영아원에서 지난 50여년간 204명의 아이들이 해외의 "부모"를 찾아 입양을 떠났다고 한다.

2019년 10월, 딸이 재회를 위해 한국에 도착하던 날, 제천에 제인화이트영아원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다시 요구해도 그 다음부터는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44년만에 만난 모녀
〈KBS뉴스 2019.10.20〉DNA가 찾아준 모녀…44년 동안의 뒷 이야기[22]

21)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www.fmca.kr)는 실종 아동 인권에 대한 가치 인식의 확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수색 수사활동 및 홍보활동, 실종 아동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실종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문제점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실종아동부모들과 실종가족이 있는 분들이 가족을 찾기 위하여 1995년 "전국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 2000년 "전국미아찾기시민의모임", 2005년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2008년 "전국실종아동찾기협회", 2010년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로" 발전되어 왔다.

22) 〈KBS뉴스 2019.10.20〉 DNA가 찾아준 모녀…44년 동안의 뒷 이야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06295

이금녀님은 입양정보 공개와 실종아동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경찰의 안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여러번,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나는 찾았지만, 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 입양간 사람들의 서류를 보여줘라" 국내에서 찾을 만큼 찾았는데 없는 아이들, 해외입양 정보 공개해서 알려주라고 요구하셨다.
"경찰이 그때 DNA검사를 하러 갔을 때… '대부분의 이런 애들을 잃어버린 경우를 보면… 자기네, 부모 입장에서는 버리는 게 쉽지 우리같이 잃어버린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요구를 해야 겨우 마지못해서 하는 거 같은 시늉이 나오지 적극적인 자세 이런 거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해. 시키는 거 일처리하는 듯, 숙제하듯이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이금녀님의 입양인 딸의 감상 중 눈에 띄는 내용은, 미아가 된 이후 모르는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가게 된 사연, 고아원에서 지낸 시간의 기억들, 그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녀가 입양 후에도 제천의 영아원장인 제인 화이트와 계속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지냈고, 1988년 좀 더 깊은 대화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때 그녀는 혹시 고아원에 한국의 부모가 찾아와 자기를 찾은 적이 있는가 질문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해 제인 화이트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겠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태섭님 (1947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0월 30일

"아니 입양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김태섭님은 1982년 2월 18일, 만 4세가 되었던 아들이 실종됐다. 아이가 없어지고 35년간 계속 찾아 다녔다고 한다.
"가두방송하고 동사무소 가고, 처음에 첫째 경찰서부터 연락했지. 대구부터 동서남북 중부 뭐 인제 경찰서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찾아가가 방송 좀 해달라 이카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가두방송하고 그 뒤로 신문사나 방송국에 가가, 좀 사연 좀 내달라꼬, 이카고 또 뭐 전단지 만들어가 붙이러 댕기고."
전단지 붙이고 다니니까, 그거 전단지 보고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 가보니 어린이 재단에, 그 당시 86년에 어린이 재단에서 인자 하루에 한 50명 그땐 정말 사비로, 자기 돈으로, 사비

로 하루에 한 50명씩 부모들이 인제 모이가 아를 찾아 달라고… 1년에 1000명도 넘어요.”

그 이후로 실종아동찾기협회[23]에 가입하면서 열심으로 경찰서, 아동 일시 보호소, 고아원 시설 등을 돌면서 아이의 행방을 쫓았다. 당시 상황을 김태섭님은 이렇게 회고했다.
“일 년에 한 8,000명 지금 요 자료 보면, 만 명 가까이 실종되는데도 정부에서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러지만 뭐 입양 쪽으로 이래 보내는데 그런 데만 신경 쓰지, 찾아주려고는 신경을 안 써요.”
“86년도에 우리 뭐 높은 사람 친척 되는 애가 실종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KBS, MBC 이제 방송국에서 보도해주고 인자 뭐 내주고 이런 형편이거든.”

김태섭님은 1986년에 처음으로 어린이 재단에 실종아동 가족으로 유전자 등록을 해놓고, 실종아동협회활동을 하면서 실종아동이 해외입양을 간 사례[24]를 4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지 (운이 좋았으면) 해외로 입양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해외입양 사례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김태섭님은 한국정부의 해외입양에 대한 책임과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찾을 권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1980년대 당시 ‘그때는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상황에 아(이)를 그래 국가에서 관리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보내놓고, (입양기관) (고아원 시설) 원장 자기들 맘대로 보내놔 놓고, 인제 와서 손 빼면 뭐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되도 않고”.

그렇기에 지금도, “필히, 얘가 성인이 되면은 부모 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양과정에서 입양부모와 입양인 모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입양서류에 관한 접근권이 심각히 제한되어 있어 예전보다 정책적으로 훨씬 후퇴했다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동안, 김태섭님께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애타게 찾고, 또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함 찾아봅시다.” 했던 ….”대구 시청으로부터 사진 세 장을 받은 것이다. 대구시에서 당시 실종신고가 된 아동들을 중심으로 소재파악이 된 아동 세 명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23)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24) 참고기사 [베이비뉴스 2015.03.24]실종아동 해외 수출, 정부가 묵인
기사링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53

“그래 보니 야가 (내 자식하고) 정말 닮아가 올 봄에 동방사회복지회에 갔어요. 야를 경찰에서도 조사해보니 야는 북부주차장서 발견되었는데, 자기 동생하고 부모가 버린 걸로 그래 확인됐는데. 나는 좀 닮아가 혹시 그래도 유전자검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검사했다가 또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면 걔한테도 상처가 되고.”
김태섭님의 회고에는 입양기록/신원기록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난 35년간 쭉 없어진 아이를 가슴에 품은 애타는 마음과 다른 입양인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유전자검사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고뇌가 서려있다. 김태섭님은 86년 처음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센터에 유전자 검사등록을 마친 이후, 10년마다 재등록하고 있고 대구 경찰청 그리고 〈325칸라〉에도 다시 등록을 해 두었다.

최영진님 (1981년생)

인터뷰 일시 : 2020년 1월 15일
“합정역을 지나는데요, 합정 홀트아동복지회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된 그거예요. ‘홀트’ 입양기관을 미화한.”

최영진님은 84년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 있다. 최영진님이 만 3세 되던 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동생과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어린 영진님의 기억에,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아줌마들도 함께였다. 엄마랑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 아줌마들은 엄마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다. 공원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니, 엄마는 7개월 된 남동생을 함께 온 아줌마들에게 잠시 봐달라고 부탁하고 영진님을 데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다녀왔더니 남동생도 그 아줌마들도 이미 사라진 후였다. 남동생은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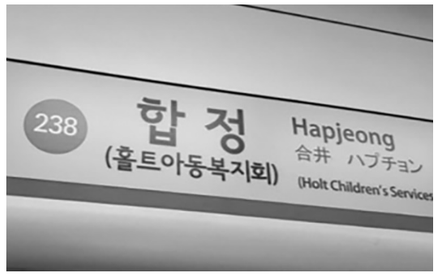
그렇게 잊고 지내다 〈325칸라〉를 알게 되면서, 최영진님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유괴사건을 “천추의 한”으로 표현하신다. 당시에 뜨내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던 봉천동에는 그렇게 아이를 입양으로 유인했던 ‘입양 브로커’가 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은 아버지의 증언으로는, 당시 “그때 그 집 근처에, 동네에 아줌마들 이렇게 좀 몇 명이 엄마를 자꾸 꼬시더래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준 내용에 따르면 남동생을 잃어버리고 “엄마는 반쯤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어하셨고 아버지도 많이 고생하셨다. 아버지는 없어진 경식이의 취학 통지서를 받고 우셨다. 그리고 1984년도 당시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빌렸던 300만 원을 아버지

는 2010년에야 다 갚았다고 전했다.”

동생 경식이의 실종은 영진 씨를 어린시절 내내 죄책감을 갖고 살게 만들었다. “나도 물론 남동생을 잃어버린 거로 인해서 죄책감을 조금씩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입양 브로커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나 때문에 잃어버렸다’라는 죄책감, ‘내가 오줌만 안 누러 갔으면’ (안 잃어 버렸을텐데) 그래서 미안한 건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동생이 어릴 때 겪은 일이어서 사실 정이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애틋하고 사실 그런 건 없는데 ‘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뿌리의집을 알게 되고 동생 나이 또래인 입양인들을 보면서 동생이 입양을 갔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기를 시도해야 하는지 막막했고, 현재의 가족관계나 지금 가족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아…이게 만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찾기가 좀 주저되기도 했다.

최영진님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질문했다.
“입양인들이 뿌리를 찾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입양기관에서 제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좀 그런 거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찾는 역할을 중간에서… 또 뭐가 있을까? 음… 그 해외입양 수수료 이런 거… 아이를 사고파는 이런 것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런 것도 정말 명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포장하잖아요. 엊그저께 합정역을 지나는데요. 합정역 지하철역에 보통 합정이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어 망원역 몇 번 출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합정역에는 합정(홀트아동복지회)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예요. 아 ‘홀트’ 입양기관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한. 물론 정말 그 입양을 필요로 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합정역 지하철을 지날 때마다 ‘홀트’가 역명에 같이 표기되어서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국가에서 너무 그런 거만 홍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미화시켜서.”





[경상일보] 신생아 밀매시대

국내에 아기 밀매조직이 있다는 소문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암암리에 흘러다녔다. 이른바 ‘입양 브로커’가 흥신소, 조산원, 산부인과, 입양기관 등과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미혼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조산원이 아기 밀매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출산 서류 등이 남아있지 않아 아기를 빼돌리거나 매매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5년 12월 강원 속초에서 한 조산원 원장이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30만~100만 원에 팔아넘겼다가 구속된 적도 있다.

출처 – 경상일보/2009.09.03/박철종 기자
기사 링크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419

이금녀님의 딸이 실종된 1976년 한국의 해외입양 숫자는 6,597명, 최영진 씨의 동생이 실종된 1981년에는 4,628명, 그리고 김태섭님의 아들이 실종된 1982년 한국의 해외입양의 숫자가 6,434명으로 매년 기록적인 숫자의 아동들이 해외로 집을 찾아 떠났던 시기이다. 2005년 실종아동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실종아동의 복리와 후생에 관하여 제대로 된 조사나 체계적인 복지 실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2019)는 책『아이들 파는 나라』를 통해 1970년대~1980년대의 실종아동들이 해외입양으로 유입된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의 관행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다. “경찰은 길을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보육원,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의 보호시설로 아이를 보냈고, 아이는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둔갑해 불과 5~6개월만에 해외로 입양보내졌다.”(46). 또한 1976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대상아동을, “보호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아동으로 바꾸어 고아가 아닌 아동도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133,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레카, 2019)

최근에는 실종아동과 해외입양의 연결고리가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의 재회로 다시 밝혀지고 있다. 2019년 3월 서대문 경찰서에서 1967년 미국으로 입양된 A씨는 실종되고 58년만에 친생가족을 만났다. 2014년, 한국의 친생가족은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DNA 샘플을 남겨놓았고, 실종으로 입양을 갔던 딸이 2018년 한국을 방문하고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10월, 44년 전 남대문에서 실종된 윤상애(미국명, 데니스 멕카티)씨는 유전자 정보 공유를 통해 78세 된 어머니 이응순 씨와 오빠 윤상명 그리고 쌍둥이 언니 윤상희 씨를 만났다[25].

25) 44년 전 남대문서 잃어버린 딸이 미국에…눈물의 ‘화상 상봉’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 2020.10.18.]
링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18/RELOOYKT5ZCB3PLYZVHHC723DM/

2016년부터 해외입양인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생가족찾기를 주도하고 있는 〈325캄라〉는 실종아동과 해외입양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장기실종아동 가족의 유전자와 해외입양인의 유전자를 대조하고 입양인의 재회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은 2019년 11월부터 한국에 방문하는 대신 한국의 공관에서 자신의 유전자기록과 실종아동가족의 유전자 기록을 대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0년간, 얼마나 많은 실종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어 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가족이 있고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가 있는 실종아동이 해외로 입양될 수 있었는가? 실종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을 경우, 김태섭님과 최영진님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알 수 없음 그리고 불확실함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해외입양을 간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최소한의 정보가 확인이 안 되니 재회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연락하거나 찾아볼 방법도 없었다.

이금녀, 김태섭, 그리고 최영진님의 이야기는 해외입양과 실종아동의 연관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40여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다가 2019년에 해외입양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을 만난 이금녀 씨, 35년째 실종된 아들을 찾다가 "잘 되어 있으면 아마 입양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신 김태섭 씨, 자신 때문에 7개월된 남동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최영진님의 이야기는, 그저 '안타까운 사고'로 바라보았던 해외입양과 실종아동의 연결고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무, 아동보호 시설과 해외입양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4) 친생부모가 아닌 그 외 친생가족이 입양인을 찾는 경우

입양인을 찾고 기다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비단 친/생부모에만 국한 되어있지 않다. 아래의 두 사연은, 남동생의 아이들, 그리고 누나의 아이를 입양보낸, 고모와 외삼촌의 입양과 재회의 이야기이다.

박은미님 (1956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2월 1일 (1986년 입양)

"살아 있다는 그것만 알면 좋겠네."

박은미님은 남동생이 입양보낸 조카들을(당시 나이, 세 살과 다섯 살 여아)를 찾고 있다. 남동생이랑 같이 살던 부인이 집을 나가고, 2년 정도 할머니가 두 딸을 키우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동생이 진주 남강 근처의 고아원에 조카들을 맡겼다. 진주고아원에서 부산으로 조카들이 옮겨졌고, 부산의 입양시설에서 입양 보내졌다. 1986년 입양 보낼 당시, 부모의 사인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남동생과 함께 누나인 박은미님(입양인의 고모)이 부산에 다녀왔다.

박은미님은 2016년쯤 KBS 아침마당 방송프로그램[26]에서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나온 걸 보게 되었다. "잘 지내는가? 어찌 됐는가?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KBS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아… 그래서 무조건 (뿌리의집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애들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DNA검사라도 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인데 작년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유전자 등록을 해놓고 왔어요. 그렇게 〈325캄라〉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를 여동생과 같이 〈뿌리의집〉에 가서 해 두었다. 친부인 남동생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다.



[KBS 1TV] 2016년 아침마당 방송에 출연한
〈325캄라〉와 〈뿌리의집〉

죄책감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걸려서 더 빨리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남동생이 애 둘을 낳고 살았는데 남동생 마누라가 집을 나가버렸어. 애들 키울 사람이… 그 후 친할머니가 키웠는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키울 사람이 없는 거야, 고모인 나도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입양을 보내자 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자기가 못 키울 형편이니까 보내는 게 낫다고… 그 결정을 고모인 나하고 아빠되는 남동생하고 했는데, 그게 죄책감이 항상 들어서"
"(입양보낼 당시) 애들 아버지한테로 스무 살 때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애들 신상파악 같은 거 적어두고 한 부 넣어서 보냈거든요."

26) [KBS 1TV] 아침마당 방송프로그램에 〈325캄라〉와 〈뿌리의집〉이 함께 출연하여 '뿌리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DNA로 가족찾기 사연이 방송되었다. (방송일 2016.4.13.)
링크〉〉 https://youtu.be/MT5TH6U0G1A

아이들은 진주의 고아원에서 부산 초량동의 입양기관으로 보내졌고, 그때 큰 고모인 박은미 씨와 아이들 아빠가 함께 갔다고 한다.
“애들이 스무 살 되면 한국으로 한 번 찾아온다고… 프랑스에서 한 번 내보내 준다고 한국으로… 그 소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입양을 가는 날짜도 알려주고, 고아원을 통해서 아이들 사진도 받았어요. 아, 잘됐다 싶더라고요. 외국 옷 입혀서 까만 치마에 발목까지 오는 구두 신겨서, 프랑스에 애들 그리 입는데… 흰 남방에다가 까만 치마 입혀가지고…(울음) 형제 간, 자매끼리 둘이 한 집에 간 거 하고, 또 옷을 깔끔하게 입혀가지고 침대도 있고 사진을 두 장 보냈는데 큰 정원에 그네하고 또 한 장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하고… 그래서 아이고 지 아버지한테 있어봐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건데 잘됐다 싶더라고요.”
“입양기관에서 엄마하고 같이 와서 동의를 해야 한다는데 초량에서… 엄마가 없으니까 고모라도 대신하라고 하던데…”

남동생, 아이들의 친부도 “아이를 찾아봐야겠다”는 말을 해 본 적은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찾을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찾았죠.” 정부나 다른 기관에 뭐 바라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다. “미안하고 고맙고,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그것으로 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인데…”

“만난다고 해도 통역도 그렇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 통역해주는 그런 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형편이 정부에서 수급받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박은미님은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 알면 좋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터뷰를 맺으셨다.

김병호님 (1948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1월 1일

“내가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감사가 있죠. 무조건 나는 감사해요.
잃어버렸던, 버렸던 아이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 내가 감사해요.”

1960년대 중반, 당시 입양 간 조카는, 누님이 결혼 전 관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가버리는 바람에, 누님이 혼자 낳아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외할머니)가 아이를 백일까지는 키우면서, 떠난 아버지를 기다려보자 했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서울에 혼자 사는 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오겠다고 데리고 왔다. 그때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던 김병호님과 함께 아이를 녹원영아원에 맡기고 돌아가 버렸다. 하지만 누님은 당시 제주도라도 가서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고 전했다.

2010년경부터, 김병호님은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고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되기도 하여, 손위 누님의 입양 간 딸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름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입양을 갔다고 하는데 이름과 추정되는 입양기간(1966년~1968년)만 가지고 찾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양기관 세 곳에 다 연락을 해서 혹시나 연락이 오면 연락해 달라고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2019년에 뿌리의집을 통해 〈325캄라〉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김정현이라는 남성과 연락이 닿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이 찾는 조카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카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한국에 가족 찾으러 나온 김지현 씨의 아들 김정현 씨가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등록된 유전자 검사자료로 같은 해 4월경에 유전자가 일치되어 연결이 되었다고 전한다.

소식이 닿은 후 김병호님은, “내가 평생 내 마음의 미안함, 조카 지현 씨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찾아줘서 고맙다 고맙다.”고 통화를 했고, 이후 2019년경 미국에 가서도 “미안하다 했더니 이놈도 역시 왜 늦게 찾았는지 거기에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십년 전에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는데 DNA로 찾게 됐다. 그러고 너네 엄마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조카의 소식을 안 후, 김병호님은 입양보낸 조카의 친모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본인의 거주지인) 여수 좀 내려와라 일이 있다.” 친모는 동생 김병호님이 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줄 알았었다. “내려오셨길래 충격 받지 말고 누님은 내가 자기 딸이 있는 것도 모르는 줄 알죠. 어머니가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전에 생각이 나서 노력을 해서 찾았다, 어제 내가 지현이하고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자식을 버렸으니까. 자기가 버리려는 마음은 없었지만은 어머니가 이모한테 맡긴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 시설에다가 보낸 다음에 사실 이모한테 안 맡기고 입양 보내버렸다. 근데 자기는 그때부터 찾을 길도 없고 그리고 포기하고 죄책감만 가지고 살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한 번 만나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내가 무슨 낯으로 딸을 만나냐 나는 죄인이다. 살아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근데 그것은 아닌 거 같다. 당신이 몸이 불편

하니까 못 가니까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평생 못 한 것을 이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적인 이제 고국이니까, 남편 아들, 딸, 지현이 거 (이렇게) 해서 한복을 맞춰서 갔었죠. 너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하고 선물한 것이다."라고.

미국에 가서 만난 조카는 자기의 출생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다.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누님에게 단편적으로 들은 것. 그래서 이제 지현이를 만나기 전에 지현이하고 나하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중간에서 역할을 요청해서, 지현이가 그 친구에게 말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말하고, 내가 하면 이렇게 대강은 어느 정도 알려줬지만은 조카가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은데 내가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조카가 한국에 나오고 싶다고 했고 2019년 추석 바로 전에, 김병호님이 찾은 조카가 한국에 오게 되어 서울 사는 엄마를 한 번 만났다. 생모는 "이미 결혼해서 다 늙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족에 알려서 무슨 이익이 되겠냐" 하는 마음과 "그러나 딸을 만나고 싶으니까" 현재 가족들한테는 감추고 김병호님이 사는 여수에 와서 만난 후 조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김병호 씨의 누님(1948년 이전 출생), 김지현 씨의 친생모는, 아직도 자신의 아이를 "지금 결혼" 전에 출산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안 알리고 싶으니까 계속 비밀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가족들, 형제들끼리도 안 알리고 있죠." 그래서 입양 보낸 조카의 존재는 김병호님과 친생모, 그리고 아이를 키워줬던 이모님 이렇게 세 명만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내가 걔를… 찾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기관들이 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없더라구요.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모두 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의지가 없고 행정적인 것만 있더라구요."
"조카를 찾고, 내가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감사가 있죠. 무조건 나는 감사해요. 잃어버렸던, 버렸던 아이를 내가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 내가 감사해요. 요즘은 사진만 한 번씩 보내줘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웃음)"
"제발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보내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됐는데 실은 입양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남의 나라에 파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해외입양을 금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나도 두 명을 입양해서 기르고 있거든요."

(5) 유전자 검사로 입양인을 찾고 확인한 경우

아래의 두 사연은 유전자 검사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재회를 위해 출국을 기다리는 두 친생모의 인터뷰다.

이선혜님 (1961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0월 24일
"내가 엄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대요.
이혼을 하고 시댁에 놓고 나온 아들이 입양을 간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1985년, 이선혜님은 시어머니와의 갈등, 가정불화로 인해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선혜님은 출산을 하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처음에는 파주, 그리고 산달이 다 되어서는, 오빠와 올케가 사는 부산에 가서 조금만 아이를 키워주면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고 했지만, 오빠와 올케는 아이를 아빠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아이를 업고, 시누이가 다니는 회사에 가서 시누이를 찾았으나 그날따라 직장에 나오지 않아, 독산동 동사무소에서 시아버지 이름을 대고 주소지를 파악했다.
"어렵게 찾아간 시댁에 내가 (아이 아빠) 주소를 알 수 없어 여기 아이를 두고 간다. 그래서 내가 찾지를 못하니까 이 애를 아빠에게 좀 데려다주라고… 그때 애를 놓고 나왔어요. 그 길로 다시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때 일하는 그 집 주인이 애를 찾아와서 같이 키우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찾으러 갔어요. 가니깐 애가 없는 거예요. 입양을 했다는 거야."

경위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자신은 못 키운다고 노발대발을 하시고, 시누이는 왜 애를 받았냐고 혼이 나고 있는 처지에, 그때 동네에 부업 물건을 대주는 아줌마가 홀트이야기를 하셔서 홀트에 입양을 맡기게 되었다고 했다. 입양 서류에는 최ㅇㅇ, 동서(전 남편의 동생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1995년쯤, 이선혜님이 완구공장에서 일할 때 마포에 위치한 홀트에 가보았다.
"그 홀트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얘기 나눈 것도 없고, 그냥 '찾아보세요.' 하더라고. 거기 뭐 지금 그거는 못 보게 되어 있는 서류 있죠? 그때 당시(1995년경)에는 보게 돼 있더라고. 그때 당시

에는. 그래서 나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런 상태니까 (내가) 그러면 적어놓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연락처를 적어놓고 왔어요. 그랬는데 나보고 '요 보세요.' 하더라고. 쫙 있어요. 서류가. 근데 내가 뭐 암거나 하나 집어가서 봤는데, 뭐 알아야지."

홀트 직원은, 이선혜님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당시 전화번호를 두고 나왔는데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항상 아이를 찾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2018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 실종아동찾기에 가봤어요. 경찰이 이 아이는 실종아동은 아니다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었고… 그리고 제가 찾는 사연을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에 올리게 되고 우연하게 아이의 지인이 그걸 보게 되서 찾게 된 거예요."
"사진을 갖고 오니까 막 찾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 사고가 나지 않았나, 또 어디 파양돼가지고 어디로 입양되지 않았나, 노숙자는 되지 않았나 염려가 많이 되고, 인터넷 들어가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막 들어가 봤지."

입양기관과의 만남과 입양기관의 재회업무과정에 대해 이선혜님은 너무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다. 처음에 홀트에 스스로 친생모라고 밝히고 아이를 찾으려고 했을 때부터, 2018년에 다시 갔을 때 이선혜님 이름으로 입양을 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엄마라는 증명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엄마라고 해도 못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 그 입양서류에 기재된 최○○를 통해서 내가 엄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그 사람이 무슨 보호법상 보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최○○에게 내가 엄마라는 말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입양기관은 먼저 연락을 해주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홀트에서 나한테 통화했다고 연락을 준다고 했으면 연락을 줘야 되는데,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해야 돼… 입양기관에서는 우리 아이가 미국에 동부 코네티컷으로 갔다고만 알려주고 이름은 안 알려주고, 그냥 어디로 갔다는 것만 알려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그 정보로는 못 찾으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 편지를 전해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들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편지 소리도 없더라고. 편지 소리도 없고 그냥 그… 인제 내 아들 최○○ 씨는 미국인이라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야만 되지. 내가 찾으면은 안 된다고… (그쪽에서) 찾아와야만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양부모에 대한 정보는 더 달라고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들었다고 전했다.

이선혜님의 재회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본다.
"너무 길었어. 재회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혹시나 애가 거기 미국에서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애가 안 찾으면 애들이라도 DNA검사를 하겠지. 내 후세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이라도. 내 우리 딸한테 그랬어. 내가 죽고 나면 만약 DNA 검사해서 연락이 오면은 만나고, 형제간에 너 둘 밖에 없으니까 잘 지내라."
"얘는 아무래도 나를 안 찾나보다. 내가 딸한테 그랬어. (딸이) '엄마 기다려봐. 찾게 기다려봐. 인제 해놓은 지 얼마됐다고 그러느냐'고 딸이 그래. 그랬더니 '그래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연락이 와가지고. 인제 한참은 막 보고 싶고 그래요."
"예전에는 미국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제는 미국 뉴스만 나오면 그것만 쳐다보고, 사건사고 나면 쳐다보고, 얘가 거기 있지 않나? 이 생각 들고. 입양한 애들이 와가지고 부모 찾다 죽은 것도 보고, 사연도 보고 그랬어요."

이선혜님은 인터뷰 이후 한국에 사는 딸과 함께 재회를 위해 2019년 11월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다.
"제가 어릴 적 모습 보고싶다고 했더니 어릴 적 사진 쫙 보내주고, 어저께는 양부모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올라왔더라고." 그거 보고, 이제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김치 잘 먹느냐고, 김치 좋아한대요. 그래서 김치(양념) 조금 해 가지고 가서 담아주고, 한국 음식 조금 갖고 가려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 걔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식성도 모르고,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가요. 조금 조금씩 알아가려고 이제."

이선혜님은 이번에 미국에 재회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 딸에게 한국에 오겠냐." 했어요. 딸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냐고. 6개월이나 일 년에 한 번씩은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가고 내년에 걔가 두 번 나온다 하니까. 후년에는 엄마가 또 가라고 그렇게 지 동생한테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선혜님은 곧 미국으로 입양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 "미국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그것만 준비하려고요. 김 좋아한다 해서 김 사가지고 가고… (입양인) 얘가 미국에서 요리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갖다주고 싶어서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뭐 이런 거 가서 김치 담을 재료들을 싸가려고 해요."

신선화님 (1964년생)

인터뷰 일시 : 2019년 10월 31일

"내가 평생 도와줄게 걱정 마요."

신선화님은 2019년 10월 18일 해외입양 보낸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선화님은 막 스무살이 된 1983년 12월, 둘째 애를 낳았다. 그해 1월 첫째를 낳고 같은 해에 둘째를 가졌다. 신선화님의 남편도 스무살.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이 힘들었다. 임신기간 내내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님은 윽박을 지르고,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보내라고 압박을 하셨다. 관악구 신림동 조산부인과에서 12월 14일에 둘째를 낳았는데, 애를 낳은 다음날 입양기관인 홀트에서 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인적사항을 묻고 했단다. 신선화님은 자신이 애를 안고 울고 있었다는 사실 밖에는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다. 지금 같았으면,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안 보낸다고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못했다고 했다.



관악구 신림동 조산부인과 사진

신선화님은 둘째 딸이 입양을 국내로 갔다고 생각했다. 보내는 그날부터 무척 찾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만날, 얼마나, 마음속으로 매일 담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다 담겨 있었겠죠. 또 생활하면서 얘가 어딘가 있을까? 언제 어딘가에서 혹시 부딪히거나 만나지지 않을까? TV나 이런 거 보면 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기 쓰고, 보고 싶다는 일기 같은 거 많이 쓰고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홀트도. 어쩌다 홀트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화했다가 너무 어린 마음에 끊어버리고, 전화했다가 끊고 이랬었어요. 제가."

그러다 "2010년 2월 2일 홀트에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전화 받은 분이 '어머님 주민등록번호 한번 대보세요.' 이랬어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니까 '기록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전적으로 연락했어요." 신선화님은 홀트 직원 이○○씨가 아이의 행방에 대해 미국으로 입양갔다고 일러주었다고 했다. 신선화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 수첩이 한 권, 두 권 계속 쌓였다고 전했다.

이후 신선화님은 입양 관련 TV방송을 많이 찾아보고, 필요한 정보가 나올 때마다 기록하고, 마포구청 그리고 뿌리의집에 가서 〈325감라〉의 유전자 검사 등록을 해놓았다. 또한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에다가 혹시 자신을 찾으러 나왔을 수도 있는 딸, 입양인 박○○가 있는지 확인해봤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연락을 몇 번이고 했고, 해외입양인을 돕는 시민단체인 뿌리의집과 사단법인 둥지에도 연락을 취했다. "그때 유전자 검사 등록 이후 TV를 많이 보면 입양된 애들이 한국에 나오더라고요. '저런 애들은 어떻게 만나는 거지? 나 같은 친생엄마들을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뿌리의집에 내가 "친생엄마들 만날 수 없어요?" 물었고, 친생가족모임 '민들레'[27]에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민들레 많이 쫓아다녔어요." 민들레 모임을 통해 신선화님은 민들레 회원인 친생부모들을 만나왔다.

홀트나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이 (미국)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한번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나와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가 아마 2019년. 서울에 간 김에 민들레 회원인 김○○씨가 알려준 해외입양인연대 G.O.A.'L을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입양 간 딸의 영어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민들레 모임을 통해 파주에서 진행한 입양인 방문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 입양인들에게 딸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입양인들이 가족찾기를 올리고 소통하는 등의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연결 연결이 되어서 입양인들이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려주고, 모임에도 다니면서 부탁할 수 있는 입양인들 있으면 매달리고, 저번에 미혼모 모임 갔다가 노르웨이에 조○○씨 알죠? 이번에 찾은 입양인, 걔가 우리 아이랑 나이가 83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미혼모 모임에 제가 참석했어

27) 민들레는 친생모 중심으로 2007년 만들어진 네트워크 형식의 자조모임이다. 활동기간은 2007 년부터 2017년까지 비혼모가정지원활동, 해외입양인과의 간담회, 입양특례법 개정활동 등을 통해 해외입양인 권익신장, 해외입양과 재생산 부정의, 그리고 해외입양과 재회에 관한 사회적 책임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 일조했던 친생모부 단체이다.

요. 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너도 찾고, 나도 찾고. 우리 애 같다.'고 나이 동갑이니까. 옆에 대표분이 통역해줬어요. 조ㅇㅇ씨가 그랬어요. '어머님 딸 사는 곳이 어디예요?'라고 물어서 '미국 미주리주' 라고 말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 나 미주리주에 대학 다녀요'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붙잡고 또 매달렸죠. 미국 들어가면 내 딸이 미주리주로 입양을 갔다고 하니 꼭 알아봐 달라고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입양인이 미주리주에 우리 딸의 입양을 담당했던 입양기관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홀트에서는 그 입양기관이 없어졌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페이스북으로 입양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첫째 딸이 엄마의 페이스북을 보고 이상히여겨 신선화님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었다. 신선화님은 "괜히 애들한테 죄인인 거 같고, 내가 입양보낸 거 갖고서는 괜히 일찍 결혼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큰딸이 이모(신선화님의 여동생)에게 엄마의 입양에 대해 물었다. 입양 간 신선화님 딸의 존재에 대해 들은 여동생은 한국에 있는 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간의 사연을 들은 딸은 "엄마 그냥 내가 다 이해하고, 우리 같이 끌고 나가자."고 했어요. (울음) 그래서 내가 첫애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첫 애가 젊은애니까 입양보낸 둘째 딸을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입양인들을 만나고 찾고 알아본 결과, 신선화 님은 2019년 10월 딸을 찾은 것 같다는 소식을 받았다. "저기 10월 27일 날 12시 56분인가 9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산 정상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너무 놀라서 덜덜 떨고 막 울고만 있었어요. 저를 도왔던 김ㅇㅇ씨가 "어머님, 찾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소리쳤던 거 같아요. 너무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정상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정상 꼭대기에서."

그 다음날 딸하고 처음 영상통화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는 시점이, 딸과 영상통화를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저 지금 오늘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제 온몸에 너무 힘든 무언가가 있었는데 쏙 떨어져 나간 느낌이고, 온 식구들이 몰랐었는데 이제 큰 올케 다 알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저도 전화하고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다른 사람들 찾을 때 너무 부럽고 부러우면서도 속상하고 그랬는데 나한테도 이렇게 찾을 수 있을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아빠랑 어떻게 헤쳐나갈지, 남편이 "연락했어? 소식 안 끊기게 해."라고 자기도 화상통화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급하게 하지 말라고 상황도 좀 보고, 그렇잖아요… 조심스럽잖아요. 그쪽 부모님는 어떤 마음일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양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될지… 미국 가족에 입양한 한국 남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기는 한데 좀 조심스러워서 애 아빠한테도 그러자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이번 만남을 통해서 신선화님의 아들도 입양사실과 입양을 간 누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에 대해서 신선화 님은 부정적인 견해였다.
"중앙입양원도 정부에서 하는 거라 도움이 많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겠다고 해도 별로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한번은 중앙입양원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입양인들 오면 친생부모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러면 각 기관에다가 입양인들 나오면 친생부모와 만나는 계기가 있는 것을 얘기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어, 그래요?' 그런 것 제의하고 해봤는데 그닥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가지 제의를 해봤는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면서 명칭이 바뀌고 조직에서 정리가 안 됐는지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당시 마포경찰서에 갔다가 마침 들른 홀트는 "왜 예약도 안 하고 오셨냐"며 입양기관 직원의 태도는 너무 불친절하고, "나를 억압,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화통화에서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게 세게 있더라고요. 그걸 10년 넘게 계속 느껴요." 특히, 입양인의 도움으로 딸의 입양을 중개했던 미국 미주리주 입양기관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 아이 입양기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있다네요."라고 다시 묻자, 입양기관 직원 장모 씨가 "그럼 어머니가 알아보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입양기관의 비협조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에도 "우리 애가 왔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해주면 어쩌나 싶어서" 본인은 입양기관과의 관계가 늘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신선화님의 말씀 중에는 "조심스럽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던 딸을 만났지만, 그쪽 부모도 계시고 해서 조심스럽고, 연락 안 끊기게, 그리고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해야 해서 조심스러웠고, 또 여기 있는 아들도 어떻게 느낄지 몰라 조심스럽다고 하셨다.
"만나고 앞으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보니… 나는 또 보내고 그런 입장이니까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더라고,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 여기 한국에 있는 이런 애 같지 않으니까 그쪽에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언어나 그런 것이 충분히 되면 표현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3자가 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내 속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이분(통역)이 빠지고 우리아들이 끼면 좋은데, 아들래미가 끼면 좋겠는데 아직 말을 못했고, 말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오해는 없을까도 신경 쓰이고.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또 연락을 자주 하면 성가시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였어요."

오랜 노력 끝에 만나게 된 딸과의 만남에 대해, 신선화님은 “37년 내내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아이를 몇 낳으셨어요?” 하고 물으면 맘이 무겁고 그랬는데, “숙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고, 남편(친부) 또한 “잠도 못 자고서 사진 보고 옛날 내모습 같다고 하기도 하고, 계속 밤새도록 얘기하더라고, 애기 아빠가.”
“재회 후 마음이 너무 즐겁고, 전에는 절 같은 곳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엊그제 절에 갔는데 감사하다고 절을 하러 간 것도 그렇고, 내가 어제 밥 먹으면서, (식당 일하는 분한테) 원래는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우러나서 “잘 먹었어요.” 이런 말도 나오고… 운전하면서도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것도 생기고 괜히 마음이 좋아지고. 전에는 절에 가서는 막 혼자 저기한다고 그렇게 헤매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는 마음도 혼란스럽고 정리도 하는 김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러 찾아갔어요. 마음이 바뀌고 좋아지더라고요.”

신선화님은 재회의 노력을 하면서 입양인을 찾은 엄마, 못 찾은 엄마 등 많은 분들을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에 아이 사진 하나 올리고 싶다고 한 것은 에ㅇㅇ씨나, 미주리주 대학 다니는 김ㅇㅇ씨나 도움주신 분들에게 고맙고, 못 찾은 입양인들에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올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에ㅇㅇ씨에게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지만 페북 친구여서 고맙다고 문자 보내고, 김ㅇㅇ씨에게도 ‘나 아이 찾았어요, 고마워요.’라고 감사문자 보내고 그랬어요.”

재회의 과정에서 많은 입양 보낸 어머님들과 입양인들을 알게 되었고, 재회 후에도 이분들이 재회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다.
“제가 친생부모 모임을 많이 다녔잖아요. 만난 분들 너무 부러운데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만나면 또 문제라고 그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엄마는 “뭘 찾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엄마는 속 썩는 거 같아 아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만났잖아요, 이 심정도 알고, 이 심정도 알고. 어떤 부산 사는 어머님이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못 찾은 엄마인데 자기랑 죽을 때까지 알고 지내자고는 하셔서 ‘아이고, 내가 왜 연락을 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친생엄마들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속마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평생 도와줄게 걱정 마요.’ 그 아줌마 계속 연락 오고 적극적으로 막 그러고 또 부산에 또 다른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는 호주 쪽인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정보를 알려 달라고… 지금 나도 정신이 없는데 ‘알았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움 드리고, 어제도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난 이렇게 해서 찾았다’.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못 찾은 엄마한테…”

신선화님은 2017년 딸을 찾은 후, 2020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찾고 싶어하던 딸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인터뷰 시점은 아직 딸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고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이를 보낸 후부터 계속 아이를 찾아다녔고, 2010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아 동분서주했어요. 언론사에도, 방송국에도, 계속해서 연락해 봤고, 그러다가 뿌리의집도 알게 되었고.” 미앤코리아 김ㅇㅇ 씨와 사단법인 둥지의 사업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입양인들과 만나는 자리에 몇 번이고 참석해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렇게 해서 누구와 연락이 닿을까 해서…”라고 말했다.

그녀가 경험한 홀트의 상담직원의 태도는 겉으로는 친절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도 매한가지인 것 같았다. “찾아가거나 한다면, 그냥 전화로 말씀하시라고 하고, 조금은 귀찮은 듯이…” 이런 반응을 접할 때마다 친생가족들은 상처를 입는다.

10여 년간 아이를 찾아 쫓아다니시다 또 다른 아이들을 찾는 친생모들을 알게 되었고, 또 친생가족들을 찾는 입양인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신선화님의 페이스북에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를 위한 메시지가 가득하다.

연구자는 신선화님의 인터뷰 이후 2020년 2월 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미앤코리아〉의 행사에서 신선화님을 다시 만났다. 2020년 미국에 오셔서, 입양인과의 상봉을 앞두고 있다고 기뻐하셨던 게 기억난다.

3) 분석: 친생가족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재회의 과정과 의미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김정화, 이미선, 오지영, 이금녀, 김태섭, 박영진, 박은미, 김병호, 이선혜, 신선화님께 감사드린다. 여섯 분의 친생모, 한 분의 친생부, 고모 및 외삼촌, 형제의 재회의 여정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재회를 위한 시도와 노력의 흔적들

열 명의 참여자들이 재회를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다 다르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티비에 해외입양인들이 가족을 찾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또는 "거기 미국에서 잘못돼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재회에 나섰다. "가는 그날부터 찾고 싶었다."는 신선화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재회를 둘러싼 친생부모들의 마음의 자락을 오지영님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나한테 손가락질해도(울음) 사죄도 하고 싶고… 한번 보고 싶어요." 용서도 빌고 싶고, 밥도 한 번 먹이고 싶다고, 너무 미안하지만…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 이게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찾아놓고도 엄마 원망할까봐. 원망하고 안 볼까봐. 안 만난다고 할까봐. 그래서 안 만난다고 해도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요. 멀리서…(흐느낌) 보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우리 아들 잘커줬다 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흐느낌) 엄마가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서 밥먹여주고 싶어요."(오지영님)

재회를 시도하고, 재회를 기다리는 마음의 이면을, 이미선님은 "아이에게 지금 맞는 건지, 이게 내가 찾는 거 때문에 혹시 아이가 곤란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재회는 찾고 싶다는 간절함과 이것이 맞을까 하는 번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1) 재회의 첫걸음 – 입양기관 연락

생사를 확인하고 싶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 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재회. 그 재회를 위해서, 해외입양이라는 블랙홀로 실종된 아이들인 입양인의 소식을 구한다는 것은 아이의 입양을 담당했던 입양기관에 연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선화님은 입양기관에 전화했을 때 아무말도 없이 끊겨버린 기억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전한다[28]. 이렇게 어렵게 발을 들여놓은 입양기관에서, 친생가족은 다시 한 번 냉대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전한다.

"입양기관을 찾아갔을 때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들어가려고 수위아저씨에게 말해야 하고, 특히 예전에는 딱히 사후입양 상담 서비스 이런 게 없어서, 어두침침한 골방 같은 곳에서 이야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입양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 말투, 비언어적인 거… 눈빛"에서부터 차별감을 느끼고 불편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미선님)

많은 친생부모 · 가족들은 직접 입양정보를 찾아보려고 입양기관에 갔을 때의 경험을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전한다.

"너무 자존심 상하게… '무엇 때문에 아이를 찾느냐'는 느낌으로 대했고,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의지를 하려고 그 아이를 찾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 쉽게 말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김정화님).

"입양기관에서는 '왜 예약도 안 하고 오셨냐', 입양기관 직원의 태도는 너무 불친절하고, 나를 억압,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화통화에서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게 세게 있더라고요. 그걸 10년 넘게 계속 느껴요."(신선화님).

"입양기관과의 만남과 입양기관의 재회업무처리에 대해 너무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곳에서 나한테 연락준다고 했으면 연락을 줘야 되는데 나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또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해야 돼."(이선혜님).

모멸감과 차별을 견디면서도 입양기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정화님은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보낸 사람들(은) 입양을 보낸 기관에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양기관에서 너무 그 죄인 대하듯 하거나 저희가 현재 지금 생활이 좋아졌던, 나빠졌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입양 간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아파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런 거라도 알고 싶어서… 입양기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 저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죄인취급을 안 해주시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아이를 찾아내라고 떼를 쓰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김정화님)

---

28) 신필식은 재회를 희망하고 경험한 친생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친생가족이 경험하는 재회의 망설임과 입양기관의 높은 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저도 입양 보낸 아들을 찾아봐서 아는데 친부모들이 자식 찾으려고 입양기관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주변만 빙빙 맴도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신필식 논문, p.189–191, 340–341

신선화님은 분명 한국의 입양기관에서는 본인 딸의 입양수속을 처리했던 미국의 입양기관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인 입양인의 도움으로 딸의 입양을 중개했던 입양기관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 입양기관에 다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묻자 입양기관 직원 김모 씨가 "그럼 어머니가 알아보세요." 하며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입양기관의 비협조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에도, "우리 애 왔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해주면 어쩌나 싶어서", 본인은 항상 조심스럽다고 한다.
그렇게 연락을 하는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가 가장 처음 듣는 이야기는 '재회 불가능함'이다.
"우리가 직접 못 찾는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홀트에 연락을 해보니, 저희는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못 찾고,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이름으로 미혼모로 보내졌기 때문에 간호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저희는 못 찾고 그쪽에서(입양서류에 기재된 간호사명)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오지영님)
"그냥 그… 인제 내 아들 최○○ 씨는 미국인이라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야만 하지 내가 찾으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찾아와야만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이선혜님)

특히, 직접 입양수속에 참여하지 않은 이선혜님이나 오지영님 같은 경우는 입양서류에 있는 친생모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어서, 당시 입양서류에 기재된 사람이 이선혜님 또는 오지영님이 본래 친엄마임을 증명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선혜님이나 오지영님은 입양서류가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며졌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5살 때 실종된 딸을 45년간 찾기 위해 노력한 이금녀님도 친생부모의 재회시도에 대해, 입양기관뿐 아니라 실종아동을 담당하는 경찰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전하고 있다.
"경찰이 그때 DNA검사를 하러 갔을 때… '대부분의 이런 애들을 잃어버린 경우를 보면… 자기네, 부모 입장에서는 버리는 게 쉽지 우리같이 잃어버린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요구를 해야 겨우 마지못해서 하는 거 같은 시늉이 나오지 적극적인 자세 이런 거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해. 시키는 거 일처리하는 듯, 숙제하듯이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이금녀님)

입양기관의 비협조적태도와 차별적인 언행과 눈빛은 심층인터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친생가족이 지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위해선 한국의 입양기관이 유일한 소통창구이자 매개기관이기 때문에 친생부모들은 입양기관에 항의를 하거나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친생가족들의 재회 시도 경험과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의 역할

2008년 최초의 정부기관 성격을 띤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었다. 2013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총 3개의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으로부터 해외입양서류의 데이터 일부를 이관받아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서비스를 돕고 있다[29]. 하지만 친생가족 심층인터뷰에서는 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셨다.
"하지만 모든 기관들이 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없더라구요.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 모두, 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의지가 없고 행정적인 것만 있더라고요." (김병호님)

친생가족들 중 매우 적극적으로 재회를 준비하시는 이미선님은, 중앙입양원에서는 직원들의 비전문성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개개인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이미선님)
"중앙입양원도 정부에서 하는 거라 도움이 많이 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찾아가겠다고 해도 별로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중앙입양원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입양인들 오면 친생부모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그러면 각 기관에다가 입양인들 나오면 친생부모와 만나는 계기가 있는 것을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 그래요?'하고 그닥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제의를 해봤는데 아동권리 보장원으로 통합되고 명칭이 바뀌고 조직이 정리가 안 됐는지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신선화님)

(3) 재회의 의미와 기대

열 명의 친생가족 중 다섯 명(친생모 4명, 외삼촌 1명)이 입양인과 재회를 했다. 이 다섯 명 중에 〈325캄라〉의 입양인 유전자 검사 등록으로 자녀를 찾은 분들은 이금녀님, 김병호님, 입양인네트워크의 노력이 동원되어 찾게 된 신선화님, 이선혜님, 그리고 김정화님이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재회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창구(입양인 네트워크, 페이스북, 친생가족 모임, 경찰서 등)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적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만난 분들이다.

재회의 성사를 두고 이금녀님과 신선화님은 '큰 숙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고, 누님의 아이의 입

29) 2021년 12월 기준, 3곳의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서류는 233,000건인데,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산화는 24% 정도인 56000건에 이르고 있다.

양과 재회를 주도했던 김병호님은, “내가 걔를… 찾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입양보냈던 조카를 찾고, 내가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감사가 있죠. 무조건 나는 감사해요. 잃어버렸던, 버렸던 아이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 내가 감사해요. 요즘은 사진만 한 번씩 보내줘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웃음)

재회의 경험을 둘러싼 감정들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재회의 시점에 따라 흥분과 기대감, 삶의 안정감과 균형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찾은 입양인과 관계의 시작을 어떻게 할 지 모르는 마음, 조심스러움이 가득하다.
또한 재회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친생부모 ·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친생부모의 입양인 정보청구권이나 정보열람권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입양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를 남겨두고, 유전자 검사를 해두고, 혹시나 올지 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국외입양인들의 친생부모 및 가족들의 재회를 위한 노력과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외입양인과 친생가족과의 재회 담론의 장에서 한국사회는 아이를 버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입양 보냈을까’ 하는 동정과 시혜적인 시선을 오가며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열 분의 친생가족의 이야기를 구조질문지의 답변으로 정리하면서, 당시의 중요한 맥락과 친생가족이 경험한 재회의 여정을 양적 통계로 담아낼 수 없다고 보고, 개별 친생가족 재회 이야기를 간추려서 싣기로 결정했다.

가족들의 사연을 보면 몇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외입양인을 찾고 있는 친생가족이 있다. (2) 친생가족 또한 입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재회를 위해 각자 개개인이 노력하고 있다. (3) 이 친생가족이 반드시 친부모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4) 국외로 입양을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생부모 · 가족이 있을 수 있다. (실종자 가족, 직접 입양에 관여하지 않은 친생부모 · 가족들) (5) 친생가족들은 입양기관의 사무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경험한다. (6) 친생가족들에게 아동권리보장원의 존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장에서 살펴본 친생가족 중 다섯 명은 입양인과 재회를 했고, 다른 다섯 명은 재회를 못 한 상태이다. 3명은 재회를 하려고 경찰서, 입양인네트워크, 시민단체, 입양기관,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까지 다 다니다가 결정적으로는 우연한 기회에 또는 지인의 도움으로 재회에 성공한 경우이고, 2명은 〈325캄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정적으로 재회를 한 경우이다. 35년 전 남동생의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너무 미안해서” 찾기 시작하는 고모부터,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주머니에 안겨 사라진 남동생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양인지원단체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놓은 형제, “운이 좋으면 입양을 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35년째 아이를 찾는 친생부,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친생모까지 모두들 유전자 등록을 마치고, 입양기관에 연락처를 전한다. 친생가족의 재회를 위한 노력은 기다림이다. 또, 이 기다림 끝에 재회를 경험한 다섯 분의 친생가족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입양 보낸 아이와의 재회가 본인들의 삶에서 “숙제를 한 느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그리고 뭔가 재회 후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회술한다. 재회는 친생가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다.

친생가족의 인터뷰는 국외입양의 절차와 그 위법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리고 당시의 국외입양 관련 법조항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입양기관이 아동을 인수하면서, 관행적인 인권침해사례는 없었는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특히 (1) 열 분의 친생부모 · 가족들의 사연은, 해외입양에 있어서 친모, 친부 모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오지영님의 사례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름이, 또 이선혜님의 경우, 입양서류에 작은 동서(이혼한 남편 동생의 부인)의 이름이 친모로 기재되어 있다고 전했다. (2) 열 분의 친생가족 중 한 분은 실종아동이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경우였다[30]. 이 연구에 참여하신 열 분의 친생가족의 이야기가 해외입양 70년의 아동인수에 관한 관행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사례는 2016년 김호수의 해외입양 친생모의 구술사 연구와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Kim, 2016) 많은 친생모들은 아이의 입양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거나, 본인이 직접 입양 결정을 한 경우에도 국외입양의 절차와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일회적인 상담을 끝으로 입양을 결정하고 자신의 아이와 이별을 한다. 이러한 입양관행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정상가족의 외부에 놓인 저소득여성, 이혼여성, 미혼여성 등의 재생산권리를 묵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친생가족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해외입양인의 재회는 해외입양인을 교육하고 재회를 돕는 시스템을 일괄적이고 투명하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과 지지는,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와 재원마련은, 해외입양에 대한 역사적 재정의와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윤리적, 집단적 책임의식이 수반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30) 한국의 입양과 실종아동의 연관성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신문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다. 현재 14개국 17 여만 명의 한국태생 해외입양인 중 3만여 명이 “유기 등에 의한 무연고 아동”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이 무연고 아동 중 실종아동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제언

1. 입양인 응답자의 제언

2. 친생가족이 정부와 기관에 바라는 점

Ⅲ. 제언

이 섹션은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재회조력기관인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양인의 제언을 우선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시민단체 순서로 묶어 보았고, 친생가족의 서술답변은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제언으로 정리했다.

1. 입양인 응답자의 제언

1) 한국 입양기관에 대한 제언

한국의 입양기관에게 대한 제언을 묻는 서술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입양정보와 가족찾기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공개하라. 입양인의 입장에 공감하길 바라며 우리에게 재회 권리가 있음을 알아달라. 도우려는 적극성을 가져달라. 해외입양을 중단하라.”

Q58. 한국 입양기관에 조언

주제	세부 내용
투명성	가족찾기 절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입양기록 숨김없이 공유 거짓말이나 정보조작 하지 말 것
입양기관과 뿌리찾기 서비스(기록관리) 분리	민간에서 기록을 관리해선 안 됨 입양기관과 뿌리찾기 서비스 분리
통번역 서비스	번역 지원 언어 프로그램 지원
입양인 중심의 서비스	적극적 의지로 지지와 지원, 상세한 정보 제공 입양인의 재회의지를 권리라고 인식할 필요 입양인 의견 경청/존중 뿌리찾기에 개인 의견을 반영하지 말 것
해외입양 중단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아동이 국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함 입양인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가족찾기를 지원

❶ 투명성

입양서류와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입양인의 목소리가 모든 답변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목소리 중에는 정확한 문서관리,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 있다. 응답에서 가장 많은 표현은 "투명하세요."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를 숨기지 않고 모두 제공할 것, 거짓을 말하지 말 것, 절차와 진행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릴 것 등이었다.

"일련의 윤리, 투명성 및 재회 후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게재해주세요." (no.84)

"더 많은 투명성과, 입양인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더 노력하면 친가족찾기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no.107)

"솔직하게 서류에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주세요."(no.64)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입양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을 고용하세요. 이제 저희는 그저 아기 또는 입양아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no.26)

가족찾기 진행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신속하고 솔직하게 알려줄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가족을 찾는다고 입양기관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입양인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불충분한지, 부모가 만나기를 원치 않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초조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입양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숨기지 마세요. 저희는 문화차이가 있어서 정보를 숨기려는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거나 입양서류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입양인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만을 원합니다."(no.34)

"솔직해지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의 입양 당시 시절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재회한 가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 가족은 입양인과 입양된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입양 과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 기관에 대해 많은 불만을 느낍니다."(no.80)

"입양서류의 자료 일부 또는 문서를 삭제하지 마세요. 제가 2015년에 보았던 한국어 자료의 일부가 2019년에 한국에 갔을 때에는 제 파일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에게 말했고 자료를 찾아보더니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고, ○○○라는 다른 소녀의 이름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no.170)

"그들은 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을 찾아주고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no.137)

"재회의 모든 과정에 대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을 기하세요. 첫째,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한 과정을 공유하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판단하며, 다양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가능한 절차와 과정을 모두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관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당신의 직업이지만 조금은 더 인간답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입양인들의 삶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no.161)

❷ 입양기관과 재회 서비스(기록관리/열람) 분리

입양기관과 재회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록의 보존 및 재회 업무를 공공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양 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와 입양기관은 분리되어야 합니다."(no.35)

"입양기관을 민영기관이 운영해선 안 됩니다."(no.44)

"모든 입양데이터를 아동권리보장원(정부기관)에 제공해주세요. 입양정보는 사적 기관인 입양기관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no.123)

❸ 통번역 서비스

정확한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확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no.106)

"입양인이 요청할 경우 번역사를 제공하거나 번역 비용을 지불해주세요. ○○단체에서 입양인에게 통번역을 지원했다면 그 비용을 입양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no.19)

❹ 입양인 중심의 지지와 지원제공

가족을 찾으려는 입양인에게 입양기관의 진정성 있는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많았다.

"입양인의 이야기, 역사, 그리고 감정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주세요. 입양인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no.18)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기 원한다면 진심으로 도와주세요."(no.124)

"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저를 돕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no.127)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가족 재회를 도와주세요. 첨단 기술을 통해 입양인과 더 잘, 더 자주 연락하고 필요 시 다른 방법을 제안하거나 활용하여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no.28)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no.92)

"이해심을 가져주세요.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입양인이 이끄는 감수성 및 문화적 역량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no.139)

"더 큰 투명성과 공감을 보여 주시고, 입양기관 자체보다 입양인을 항상 우선시해 주세요."(no.78)

재회에 대한 입양기관 직원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 것, 입양인에게 재회가 권리임을 지적하는 서술도 많았다.

"더 이상 입양인을 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저희도 권리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no.125)

"친부모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보다는 입양인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no.22)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마세요. 제가 14살 때 친가족이 저와 연락하기 원했다면 그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했어야 합니다. 연락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입양기관의 잘못인지 한국 입양기관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no.61)

"친가족을 찾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또는 암시하는 것)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no.106)

❺ 해외입양 중단

입양인 응답자의 서술형 답변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입양기관과 한국정부에게 '해외입양을 중단하고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이다. 해외입양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묻는 다수의 답변이 눈에 띄었다.

"입양기관과 한국정부는 더이상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말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세요."(no.5)

"입양기관은 민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no.44)

"입양사업으로 수익을 챙긴 입양기관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재회에 앞장서야 합니다."(–no.137)

"입양기관은 귀환하는 해외입양인에게 한국에서의 거처, 직업,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no.148)

"아동매매를 중단하세요."(no.47)

"더이상 한국에서 밖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지 말고 친가족을 찾는 입양인들을 돕고 지원해주세요."(no.51)

❻ 기타

기록을 찾기 위해 입양기관에 방문했는데 원하는 정보는 얻지 못하고 기념품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 무척 모욕적이었다는 서술이 있었다. 그 밖에 윤리에 대한 요구,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입양인에게 쓸모없는 기념품을 주지 마세요."(no.37)

"입양기관에서 해외 입양인 직원을 채용하여 입양인 입장에서 입양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워가야 한다."(no.139)

"입양기관 직원 중 귀환입양인을 응대하는 직원은 입양 관계 법령과 절차 그리고 해외입양에 대한 역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no.140)

"예를 들어, 입양인 권익옹호단체 또는 ○단체나 △단체와 같은 단체와 협력하면, 앞으로 많이 나아갈 것입니다. 입양인이 서류를 검토하는 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no.107)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고마움과 친절함을 언급한 답변도 4건이 있었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장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순간들이 힘든 순간보다 많기를 바랍니다."(no.42)

"입양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어렵고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가족과 쉬운 경로로 재회하게 되어 큰 축복이었고 운이 좋았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이 변하고 형성되는 경험을 얻게 되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재회 및 재회 후 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입양기관이 입양인에게 가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입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no.146)

2)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에 대한 제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인 문의에 대한 응대, 직원의 근무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 등과 같이 기본적인 역량 부분이다. 정부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충분하게 입양인의 재회욕구와 실천을 지지하라고 제언했다. 그 세부적인 권고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찾기 문의 응대와 서비스 개선 등과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재회를 위한 공적 기관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Q59. 아동권리보장원에 조언

주제	세부 내용
가족찾기 서비스 개선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신속한 일처리 홈페이지 개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인 가족찾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서비스 이용 방법 유전자 검사를 통한 matching system 마련
입양기록 열람권 강화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열람할 권리 보장
입양인 중심 관점	입양인의 입장에 서서 역할 해외입양의 국가적 책임환기 주도적 역할 재회 후 절차를 위한 서비스 지원
해외입양축소/감독	해외입양 축소 입양기관 감독

❶ 가족찾기 서비스 개선

전문인력확보와 신속한 일처리

"그냥 제가 보낸 이메일에 답변을 주세요."(no.50)

"아동권리보장원에 생긴 모든 변화 때문에 이메일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답장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입양 후 서비스 외 업무량을 줄여야 합니다."(no.66)

"답변이 부정적이거나 답변을 모를 때에도 응대해주세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은 모욕적이고 입양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킵니다."(no.170)

"아동권리보장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도움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담당자는 시간을 내어 진행과정을 설명했고, 저와 친어머니의 혈연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친어머니와 전화로 통화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유전자를 옮기는 과정 포함) 모든 직원들이 제가 받은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헌신을 각 입양인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no.107)

"모든 직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동일하도록 교육해주세요.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해본 모든 지인들에 의하면 담당자의 상황과 차후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no.143)

재회에 관한 절차와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입양인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생연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친가족찾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o.166)

"저희가 누구인지 또는 어머니와 가족이 누구인지 실제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no.95)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주세요."(no.107)

"훨씬 개선된 입양인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입양인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아동입양보장원 웹페이지는 검색 옵션이 형편없고 인터페이스에 자녀를 잃은 가족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검색 방법이 페이스북이라는 사실이 그저 슬픕니다."(no.155)

입양인들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존재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해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찾기 시스템 개발

"왜 일대일 유전자 검색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친가족일 수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검사를 받고 더 많은 데이터와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no.167)

"좀 더 주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모든 입양서류를 더욱 더 중앙 집중화해야합니다. 중앙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친부모가 유전자를 공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입양인에게 무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해주세요." (no.82)

❷ 입양인 관점에서 가족찾기 지지 및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기관인 만큼 입양인의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입양인을 더 잘 이해해주세요. 입양인의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입양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양인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세요."(no.161)

지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입양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경제적 관점부터 매우 개인적인 관점까지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 그림을 보세요. 궁극적으로 정부 기관으로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사회를 규제하고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세요."(no.76)

"긴 형식상의 절차를 없애고 입양단체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입양인만을 지원해야 하며, 영어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응답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재회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투명성과 솔직함이 필요합니다."(no.57)

❸ 해외입양축소 및 관리 · 감독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해외입양을 축소하고 입양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기록을 확보하고 불이행하는 입양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양인의 편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국제입양을 멈춰야 합니다. 국제입양은 누구에게도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no.55)

"입양의 타당성을 더 잘 조사하고 입양기관에 윤리 및 법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no.84)

❹ 입양기록 열람권 강화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답변도 많았다. 입양인이 자신의 과거를 알 권리는 인권이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성인인 입양인이 입양기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no.49)

"더 적극적으로 입양기관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입양서류를 볼 수 있는 것이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no.22)

❺ 기타의견

입양 대기아동을 길러준 위탁모 가정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의견, 충분한 재정확보를 통해 귀환 및 방문하는 입양인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더이상 입양의 유산을 지속시키지 말라. 진정으로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복리에 힘쓰는 지지기관이 되어주세요. 지금은 2020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있어요. 한국 또한 입양의 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no.5)

3) 재회에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입양인 응답자들은 재회를 위해서, 입양을 알선했던 해외입양기관과 2009년 이후 정부기관으로 입양인의 조력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이외에도 각종 입양인 자조단체,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입양인 설문조사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모아보았다. 99개의 답변 중, 23개의 답변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만족감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미 중요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해오고 있고, 지금처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31].
경험과 관찰에 근거하여,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할 조언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문성을 높이고 온라인을 더욱 활용하라. 입양인들에게 가족찾기 절차, 정보, 한계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정부에 견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달라. 입양인과 가족의 문화 이해, 의사소통,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겠다. 도움이 되었고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라."

Q60.시민단체에 제언

주제	세부 내용
전문성 확보	일관성 확보 봉사자들이 더 나은 훈련과 급여를 받아야 함 신속한 후속조치와 명확한 절차 마련 한국어와 영어를 잘 할 줄 알며 입양인에 공감하는 직원이 가장 좋음
온라인 활용	정보와 단체들이 연결된 하나의 플랫폼 재회 후 입양인들과 친부모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유정보(지역, 생년월일 등)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투명한 안내	가족찾기 단계별 절차 안내 입양인들이 부정적 상황에 대응하도록 투명하게 현실을 안내 입양서류의 정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입양인에게 알려줄 것
문화 이해 지원	한국과 입양국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도록 도움 한국 입양 역사와 미혼모에 대한 차별 등 부정적인 사실도 이해하도록 도움
의사소통 지원	서신과 자료 번역 입양인과 한국가족이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심리 지원	한국 가족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 재회 후 정신건강 지원
비용	무료나 저렴한 수수료로 상담과 정보, 번역 지원 정부는 입양인 단체를 더 지원해야 함
홍보	더 많은 입양인들이 이런 단체의 존재를 알도록 홍보
견제와 제도개선에 기여	간소한 접근방식의 뿌리찾기 절차를 만드는 데 기여 투명하고 독립성을 유지하여 정부 방침과 상관없이 입양인을 지원할 것 한국인의 유전자 검사 촉진 입양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하는 일 검증 입양서류 분석과 이해
기타	위치 접근성이 높은 사무실과 휠체어 접근성 확보 편견을 갖지 말고 개별 입양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것 한국 거주 입양인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지원 숙소 지원 그룹토론 지원

❶ 재회절차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단계별 지원

가족찾기에 대한 안내는 단계별 절차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입양인들에게 실제 가족찾기에서 마주할 현실에 대해서(부정적인 사실을 포함하여) 진솔하게 안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단계별 절차."(no.10)

"입양기관이 입양서류에 있는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 자체가 거짓일 수 있음을 입양인에게 꼭 알려주세요. 가족찾기 과정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가족찾기에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입양인들에게 꼭 알려주세요."(no.156)

"차근 차근 단계별로 정리된 문서. 그리고 입양기관마다 재회과정의 실천단계가 다르다면 그것도 고려해서 작성해야. 입양인에게는 (재회과정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가 매우 불확실하다."(no.39)

"재회과정에서 누군가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no.42)

31) 입양인의 시민단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지는 표본집단이 〈뿌리의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이 설문조사에 드러난 시민단체에 대한 결과를 모든 입양인들의 생각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 참여자들의 경험이 지지를 받은 느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답변 중에는 〈해외입양인연대 G.O.A.'L〉과 〈뿌리의집〉의 활동과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드러나 있다. (참여자 27).

"(재회)전문 직원과, 재회를 조력하는 단체(입양기관이 아닌), 다시 말하면,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양인들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제 자신을 사실 숙련된 사람이라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어렵습니다."(no.82)

지원의 일관성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노력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단체에 노련한 통역사를 요청했을 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을 때는 (가족찾기를 위한) 온라인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첫 통역사는 그것을 본인이 작성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no.119)

"○○단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일관성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직원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no.158)

"봉사자들은 더 나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또는 급여를 받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여야 합니다."(no.35)

온라인 활용

입양인들이 자국에서도 가족찾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시민단체의 존재와 접촉 방법을 모르는 입양인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야 한다. 현재 입양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인 개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산발적으로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좀 더 통합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다른 입양인들로부터 무작위로 정보를 얻는 것에 의존합니다. 중심이 되는 지점에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no.127)

"보다 많은 입양인 패널이 경험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 하나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단체와 연락할 수 있는 링크 제공이 필요하다."(no.16)

또한 가족찾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여 좀 더 추적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직접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사람들이 직접 가족찾기를 시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가족을 찾는 것은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입양기관, 입양국가 또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으면 결과가 맞는 사람들로 빠르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no.63)

❷ 재회를 둘러싼 문화적 민감도와 입양인의 문화적 이해에 관한 지원

재회 전과 재회 후에 입양인뿐 아니라 친생가족에게도 입양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나 교육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했다. 특히, 입양이 이뤄지게 된 한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 문화적 배경(한국전쟁,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알지 못했던 입양인이, 한국에 방문하고 친생가족과 재회하면서 접하게 될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 가족과 미국 가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합니다. 다른 미국인이 가족 구성원 역할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회 전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입양인들의 이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no.143)

"역사와 입양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을 가르쳐주세요. 부정적인 것을 포함해서 가르쳐주세요. 한국 사회는 아직 미혼인 임산부와 미혼모를 끔찍하게 대합니다. 입양인 중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아동수출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혈육와 가족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돌아왔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주세요."(no.69)

"시민단체들이 입양인들이 친생가족과 만나기 전에 문화적 민감도와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no.22).

❸ 재회 이후 심리 상담과 지지 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가 재회 후 트라우마를 다루고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길 바란다."(no.41)

"시민단체가 입양인의 재회 후 정신건강이나 재회 후에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no.87)

"시민단체가 친생가족과의 재회 및 관계지속을 위해,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no.99)

"저는 문화차이에 대해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만일 다른 미국인이 한국의 가족(성별) 역할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었더라면… 재회를 이미 경험한 다른 입양인들이 자신의 경

험을 공유해 주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no.143)
"재회를 준비하는 입양인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특히,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no.159)
"재회 이후의 입양인과 친생가족을 위한 지지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재회 후의 입양인 네트워크가 있긴 하지만 친생가족도 필요하고 이 모두를 연결하는 어떤 지지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no.5)
"부정적, 긍정적 상황에 대비시켜 주세요. 입양인들은 문화적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살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no.26)
"입양기록은 입양인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족찾기 진행 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no.44)

❹ 의사소통 지원

재회 전과 후에 입양인과 친생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서신 교환, 서신 번역,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재회 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며, 입양인과 한국 가족이 원할 경우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no.87)
"재회 및 재회 후에 구체적으로 입양인과 친부모에게 재회 후 연락망을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재회를 경험한 입양인을 위해 페이스북 그룹은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모와 친척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그룹이 있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no.05)
"ㅇㅇ단체와 다른 NGO에서 이미 투어, 번역지원, 가족찾기 등을 통해 많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입양인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이 NGO에 의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지원된다면 가시적이고 조직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o.84)
"친생가족들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세요."(no.161)

❺ 견제와 제도개선에 기여

시민단체가 정부 및 입양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그들을 비판하며,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유전자검사를 홍보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입양인이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한국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입양가족 재회를 촉진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인에 대한 낙인과 그로 인해 입양인이 느끼는 수치심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no.49)
"투명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치권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진정으로 입양인을 지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no.57)
"한국에 있는 단체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보만 취합하는 역할에 머물지 말고, 보건복지부와 사설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의견과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압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no.161)

❻ 단체의 접근성

"단체의 활동을 해외입양인들 – 특히 다른 입양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는 – 에게도 웹사이트나 나라별 입양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알려주세요." (no.28)
"서울, 부산, 대구 외의 장소에도 입양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no.36)

❼ 시민단체의 지속적 지지와 지원을 기대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원해주세요. 특히, 재회와 관련한 좀 더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해 주세요."(no.4)
"(시민단체들은) 입양인을 환영하고 입양인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 시민단체가 아마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조력 세력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입양 시민단체 속에서 우리의 자아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입양인 시민단체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조력하며, 우리의 상황과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시민단체는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에게도, 또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에게도 모두 매우 중요하다."(no.80)

"왕성하게 활동해주세요. 우리는 시민단체의 지지와 연대에 진심으로 감동받습니다. 당신들의 조력이 이미 충분함을 넘어선다는 것도 압니다. 혹시나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입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당신들은 우선 입양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들과의 연락 방법도 알게 될 테니까요."(no.13).

❽ 기타의견[32] 중에는 시민단체에 대한 권고나 조언이라고 했지만, 한국정부를 향하는 제언인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기타 답변 중 재회에 관한 경제적 지원은 시민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

"아직 가족찾기를 못한 입양인들에게 어떠한 비용도 없이 재회를 도와줘야 한다."(no.43)
"우리들 중에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양인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더 많은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번역을 지원해주세요."(no.99)

입양인들이 가족찾기 과정에서 접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들(한국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기타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에 대한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시민단체
가족찾기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조언 (설문조사 응답)	■ 투명성 필요 ■ 입양인 관점에서의 지원 ■ 언어 지원 ■ 입양기관과 재회 서비스 ■ 제공의 분리 ■ 해외입양 중단	■ 가족찾기 서비스 개선 ■ 입양인 관점으로 지원 ■ 입양기록 열람권 강화 ■ 해외입양 관리감독	■ 문화이해 지원 ■ 의사소통 지원 ■ 심리 지원 ■ 견제와 제도개선

32) 또한 지원체계에 대해 입양인의 개별적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든 입양인의 경험은 독특하며 그 누구도 특정한 그룹으로 분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세요. 정보와 사실을 갖고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전적으로 개인적이어야 합니다."(no.76)

2. 친생가족이 정부와 기관에 바라는 점

이 절에서는 친생가족의 입장에서 참여해 주신 열 분의 이야기를 통해 정부 및 입양기관에 대한 요구들을 간추려 보았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7명의 친생가족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정부기관'으로 약칭하여 질문을 해보았다.

1) 정부기관[33]에 바라는 점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알 권리 및 법제도 개선

- 장기실종아동의 가족들에게 해외입양인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창구 개설
  "나는 찾았지만, 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 입양 간 사람들 서류를 보여줘라. 국내에서 찾을 만큼 찾았는데 없는 아이들, 해외입양 정보를 공개해서 알려줘야 한다."(이금녀님)
- 입양인의 입양기록 열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진단, 복원이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입양인 유전자 검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입양서류 접근 제한을 재고하고 제도적 개선 필요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지원

- 해외입양의 재회 전담기관 마련
- 경제적인 이유로 재회를 못하고 있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에게 경비지원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 재회 시 통역 제공
  "미안하고 고맙고,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그것으로 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인데. 만난다고 해도 통역도 그렇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 통역해주는 그런 분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형편이 정부에서 수급 받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

33) 해외입양에 관계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다. 이 외에도 해외입양 아동의 비자발급과 연계된 외교부와 법무부 등의 정부부처가 있으며, 연구 및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이 있다.

움을 못 주기 때문에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박은미님)

해외입양 중단 및 해외입양 미화 금지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베이비박스를 굉장히 옹호하잖아요. 엊그저께 합정역을 지나는데요. 합정역 지하철역에 보통 합정이라고 써 있는데, 예를 들어 망원역 몇 번 출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합정역에는 ‘합정(홀트아동복지회)’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예요. ‘홀트’ 입양기관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한. 물론 정말 그 입양을 필요로 하는 가정도 있지만은, 합정역 지하철을 지날 때마다 ‘홀트’가 역명에 같이 표기되어 있어서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국가에서 너무 그런 거만 홍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미화시켜서.” (최영진 님)

2) 입양기관에 바라는 점

- 입양인의 입양에 관한 모든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친생가족을 대하는 입양기관 직원들의 차별적 언행 시정과 인간적 예우에 대한 교육

  “일단은 이해가 안 되셔도… 좀 따뜻한, 따뜻하기까지 안 해도 돼요. 적어도 그냥… 그 수용까지는 안 바라니까 이해하는 듯한 몸짓? 태도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물건에 대한 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일이라는 이해를 받고 싶어요.” (이미선님).

3)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

- 입양인이 한국의 가족을 찾으러 왔을 때 환대하며 예의있게 대하고, 성심성의껏 조력할 것
- 친생가족을 차별하거나 외면하지 않는사회

  “한국사회에도 그… 입양 보낸 원가족들이 물론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보낸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입양 보낼 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여의치 않게 남의 손으로, 남들이 본인 모르게 아이를 보내서 불미스럽게 입양가정이 되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한국사회도 오죽했으면 입양을 보냈으려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안스럽게 생각해주시고, 그 입양가족을 좀 따뜻하게, 주변에서 따뜻한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언제든 입양인들이 그 입양 원부모들을 찾으러 왔을 때 입양부모를 못 찾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우리 입양 가족들한테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김정화님)

Ⅳ. 결론

1. 시사점과 제언

2. 의의와 한계

Ⅳ.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70년 현대사에서 초국적 입양사업을 역사적 부정의로 명명하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해외입양인 그리고 그들의 친생부모 · 가족(친지)들의 재회의지와 노력, 그 여정에서의 경험과 난관들을 살펴보았다.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의 재회에 대한 욕구와 노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초국적 입양인들의 재회 실천과 담론의 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개선점을 파악해 보았다.

1. 시사점과 제언

열 명의 친생가족의 심층인터뷰와 171명의 해외입양인 서베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는, 재회를 원하는 입양인들과 친생가족에게 현재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입양인들은 재회 조력에 있어 입양기관의 투명한 업무처리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친생가족들은 입양기관의 차별적이고 방관적 태도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또한, 재회에 적극적인 연구참여자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전문성 결여, 홍보 부족,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회 시스템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 모두 공적 지지체계와 심리적,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입양인 응답자와 친생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목했던 내용을 정책적 제언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A. 입양기록의 공적 관리
B. 재회 전담 공적기관 설립
C. 입양정보 공개 청구 법제 개선
D. 해외입양인 – 친생부모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1) 입양기록의 공적 관리

입양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인 입양기록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정보의 열람이 기관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과 태도에 좌우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투명성이나 공정함에 대해 입양인이나 친생가족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인과 친생가족에게 독점적인 정보제공권을 행사하고 있어, 입양인들과 친생가족 모두 기관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해 위계 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양인들의 제언 가운데에는 입양기록은 공적으로 기록·관리·청구 및 열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생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입양기관의 인권침해적인 행태(친권포기각서와 친생모부에 관한 기록의 왜곡, 누락, 소실)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입양기록의 은폐와 조작은 입양 예비아동을 만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회를 시도하는 친생가족들 역시, 입양기록의 공개와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입양기록과 재회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2) 재회 전담 공적기관 설립: 입양인과 친생가족 중심의 지지 체계 마련

본 재회연구에서 입양인 응답자와 친생가족들은 재회 및 장기적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적 기관 설립을 요구한다. 본 조사에서 파악된 재회 전담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입장에 공감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관점과 적극성을 갖추고 재회를 조력할 것

둘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것(한국의 해외입양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 입양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 재회를 앞둔 입양인을 위한 심리상담 역량,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갖춘 통번역 등)

셋째, 가족찾기와 첫 상봉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회 이후의 관계형성과 회복을 조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특히 가족찾기 과정에서부터 첫 만남, 재회 이후 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통번역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재회 통번역은 단순히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과 친생부모가 놓인 맥락과 입장을 이해하고, 재회의 의미를 알며 이를 위한 통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즉, 재회를 지원하는 통번역은 전문적 역량을 요한다. 또한 통번역은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다.

3) 입양정보 공개 청구 법제 개선 – 당사자인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욕구를 모두 반영

입양특례법에 마련된 입양정보 공개 청구제도는 입양인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입양기록 열람을 청구했을 때 후속 답변을 받은 비율이 낮았던 점, 입양기관 방문 시 열람 가능한 정보가 제한[34]되었던 점 등이 그 예이다. 참고로 김성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는 5,174건이었지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는 그 중 1,011건으로 20%에 불과했다. (김동규, 2020.9.28.)

입양인이 친부모 찾기를 청구했을 때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 취하는 조치는 등기우편 발송이다. 입양기록에 근거한 주소지로 세 차례 발송 후 답이 없으면 프로세스가 종결된다. 다시 말하면, 수십년 전 친생부모·가족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실효성이 낮은 방식이다.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5,174건 중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건수는 5%인 277건에 불과했다. 무응답은 25%인 1,342건으로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지 불분명한데,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동의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실제 친생부모의 재회 의지를 확인하는 데 유효하지 않은 방식임을 알 수 있다(김동규, 2020.9.28.). 아래의 사례는 입양인과 친생부모 간 등기우편을 통한 재회 의사 확인 절차에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설문조사 중 재회 이후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의 거짓말 혹은 오류와 관련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응답들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설문조사 응답 중에는, 입양인의 부모를 알 권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답변도 많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및 9조를 통해 아동에게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고, 최근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검토서에서도 “입양아동은 친생부모를 찾을 권리와 친생부모의 정보에 적절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UN, 2019), 입양인과 친생부모 간 재회 성사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

34) 입양인이 입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입양서류를 요청하였을 때 입양기관 담당자에 따라 정보접근이 달라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로 나타남.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입양인의 알 권리가 막혀있듯이, 해외입양인을 둔 친생부모에게도 입양인들의 생사와 안위를 확인하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친생부모 입장에서, 입양정보 공개청구제도는 친생부모의 재회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친생부모를 수동적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모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25%의 무응답을 소극적 거부의사로 해석해본다고 해도, 70%의 친생부모는 입양인의 재회 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친생부모 재회 연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아이를 버린 비정한 부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양기관의 "그쪽에서 먼저 찾기 전에는 못 찾는다."는 식의 단호한 태도이다. 2014년 강태인은 친생부모들의 가족찾기 욕구를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로 보고, 입양특례법에 친생부모들의 자녀찾기를 지원하는 법률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5]. 해외입양인의 재회 의지를 입양인의 알 권리의 발현으로 본다면, 입양특례법에 친생부모의 재회를 조력하고 지지하는 법률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9 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③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④ 아동이 부모 중 한 명, 부모 모두 또는 아동 자신의 구금, 투옥, 망명, 강제 추방,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 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당사국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아동의 복리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때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재 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정보제공에 관련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입양인 – 친생부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지막으로, 64명의 입양인들 중 25%인 16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친생가족 10명 중 2명이, 그리고 아직 재회하지 못한 입양인들 모두 유전자 검사에 재회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2015년부터 〈325캄라〉라는 초국적 입양인연대를 통해 입양인의 가족찾기가 활발히 이

35) 강태인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생애사 연구 : 자녀 찾기 경험을 중심으로」(2014)

루어지고 있다. 또 한국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 합동[36]으로 세계 14개국 34개의 해외공관에 한국 태생 입양인이 자신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 등록,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유전자 검사는 60대 이상 나이대의 입양인 또는 실종/무연고 아동처럼 기록이 소실된 입양인들에게는 재회의 유일한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지난 70년간 17만여 명의 한국 태생 해외입양인 중 3만여 명이 무연고 아동으로 친생부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실종가족의 사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실종자 가족들과 해외입양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채로 추후에 해외입양소식을 알게 된 친생가족들,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 친생가족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양인–친생부모 · 가족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찾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와 일대일 대응을 통한 방식이 아닌 친족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적어도 가족찾기를 원하는 이들 또는 현재와 미래의 이산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단으로서 유전자등록을 홍보 ·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해외입양인들과 친생가족의 경험과 각 조력기관에 대한 그들의 제언은 한국사회에서 재회를 위한 조력에 요구되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토대를 질문케 하고, 이는 곧 한국정부와 기관,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해외입양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킨다.

지난 70년간 강제이주를 경험한 해외입양인들의 재회 의지에 한국사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빈곤, 미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가정, 장애인 가족, 실종 등의 이유로 입양을 선택하거나 타의에 의해 입양을 경험하게 된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친생모 · 부 · 가족들이 재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해외입양인과 친생모 · 부 · 가족의 재회란 더 이상 사적인 행위나 욕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입양인과 친생모 · 부 · 가족 모두 재회를 통해 비로소 해외입양으로 인한 상실을 확인하고 애도할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재회에 '성공'한 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이 겪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한국정부가 해야 할 해외입양과의 화해 · 애도의 시작점이라 생각한다.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 가족의 재회를 위한 공적 지지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려면, 한국정부가 70여 년에 걸쳐 지속해온 해외입양의 역사적 부정의, 해외입양 절차상의 인권침해 상황, 여성에 대

36) [공동보도자료]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채취 · 등록 가능해진다 – 외교부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경찰청 합동,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무연고 해외 한인입양인(장기 실종아동)의 유전자 채취 · 등록 인프라 구축 – 담당부서(외교부 재외동포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책국)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9.12.19.
자료 링크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885

한 재생산권 침해 상황, 해외입양 아동이 겪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 학문의 확립과 함께 발전해 온 해외입양의 실천과 담론을 다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70년 아동복지 시스템으로서 기능해 온 해외입양이 더 이상 '미혼모 문제'로 불리지 않도록, 해외입양 복지 산업에 기여한 다양한 이해기관과 행위자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욕구와 개개인의 노력의 과정을 가능한 한 상세히 묻고, 재회에 있어 입양기록을 관리하는 입양 기관과 공적 기관으로서 재회를 조력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활동에 주목하여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조사가 해외입양인만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장 경험이나 재회 과정에 주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본연구는 재회의 주체를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 가족으로 두고 이들의 욕구와 경험을 모두 살펴보는 방법을 취했다. 한국의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을 포함한 학계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친생가족의 재회욕구 조사는 처음이 아닐까 싶다. 심층인터뷰로 진행하느라 연구 참여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친생가족의 재회 의지와 실천을 확인하고 기초자료로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에 얼굴도, 이름도 없이 존재하는 수많은 친생가족, 특히 친모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입양인 설문조사에는 12개국, 171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참여를 해주었다. 해외입양인 서베이 참여자 표집의 과정에서 〈뿌리의집〉 이메일리스트와 연구 협조 기관인 〈325칼라〉, 〈미앤코리아〉 등이 함께 했다. 이 모든 기관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이자 입양인 자조단체이기 때문에, 해외입양인 중 재회에 관심 있는 입양인들 위주로 다소 과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조사 역시 이미 재회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상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친생가족 모두가 재회를 원한다거나 재회를 위해 각자 실천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상, 재회에 적극적인 입양인과 친생가족이 경험한 재회의 노정을 살펴본 것은 앞으로 재회를 희망하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지지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행정적, 법적, 절차적 조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해외입양인 서베이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구글 서베이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어권 입양인의 참여가 비영어권 입양인보다 더 용이했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재회를 지지할 목적으로 그간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를 진정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려면, 70년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 통찰과 강제 이주된 아동의 인권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소위 비정상가족 – 빈곤, 미혼,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가정, 장애인가족 – 의 재생산권이 침해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입양을 지배하는 선행과 구원 담론에서 벗어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정, 사회구성원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끝마치는 2022년 유럽의 입양국가(네델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와 호주에서는 과거 해외입양 과오에 대해, 국가단위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가 국가 간 입양에 있어 인권 관점과 대항적 담론 형성에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해외입양인분들과 열 명의 친생가족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참고문헌

[부록1]
배경정보(관련 제도, 이해관계자, 재회과정)

[부록2]
입양인 응답자가 재회를 원하는 입양인들에게 주는 조언

[부록3]
설문조사지(입양인 서베이 설문지〈영문〉)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UN (2019). 한국의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권고사항).

김미숙, 김효진, 전진아, 안재진, 김유경, 신윤정, 임성은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박미정, 이미선, 고혜연, 유선정 (2011). 입양사후서비스 체계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정보원.

이미선, 안재진, 변미희, 김선숙, 이신혜 (2018).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애리, 권지성, 다니엘 슈붸켄딕 (2008).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 서비스 제공방안.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보건복지가족부.

최승원, 현소혜, 문영희, 이호용, 양승미, 최윤영, 이미영 (2011).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이화여자대학교.

[단행본]

김호수 Birth Mothers and Transnational Adoption Practice in South Korea: Virtual Mothering 2016. Palgrave Macmillan.

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지음. (2019).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 봄

권희정 (2019).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안토니아스.

[논문]

신필식(2020).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강태인 (2014).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의 생애사 연구: 자녀찾기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6집 3호. P.105 - 144.

Docan-Morgan, Sara. (2016). Cultural Differences and Perceived Belonging During Korean Adoptees' Reunions with Birth Families. Adoption Quarterly. Vol 19. No. 2. 99 - 118.

권지성, 안재진, 변미희, 최운선. (2010). 입양가족의 재회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09-233.

권지성, 정정호, 김진숙 (2018). 국내입양실무자들이 경험한 입양실무의 맥락과 패턴. 한국아동복지학 (64), 173-204

윤인진, 송영호, 양대영(2012)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사후관리서비스 이용 및 평가. 재외한인연구 제26호 7-39.

정해린, 이원경, 정익중 (2012). 해외입양인의 국내 장기체류 여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301-324

[자료집]

사단법인 뿌리의집, (2020). 제1회 입양진실의날 국제컨퍼런스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 자료집.

김애니,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사례와 문제 진단" (2015. 10.29) '친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신경림, 국회의원 최동익.

제인 정 트렌카, "입양인의 친가족 찾기 사례와 문제 진단" (2015.10.29.) '친가족 찾기를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신경림, 국회의원 최동익.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

[기사 및 보도자료]

김동규. (2020.9.28.) 친부모 찾고 싶은 해외입양인…"대답없는 친부모", 뉴스원. https://www.news1.kr/articles/?4072609 2021.3.3.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5.19.) "입양,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KOSIS(보건복지부,「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2021.01.20.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3.14) "국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아, 88.0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 2021.2.3. 인출

외교부 보도자료. (2019. 12.19) "재외공관에서도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유전자 채취 · 등록 가능해진다", 2021.2.5. 인출

[부록 1] 배경정보(관련 제도, 이해관계자, 재회과정)

(1) 관련 제도와 서비스

가. 입양특례법

우리나라 입양관련 법은 전쟁고아들을 외국인이 쉽게 입양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 1961년 제정된「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과「고아입양특례법」에서 시작했다. 이것은 1976년 폐지되고「입양특례법」으로 바뀌었는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해외입양을 축소하고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 방향이 선회했다. 1995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부개정안을 통해 양부모 자격조건 강화 ·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하였고, 입양될 아동이 미아인 경우에는 해외 이주허가를 제한하였다. 2011년「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입양절차에 법원의 승인을 갖추도록 함으로서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 보건복지부 2013 보도자료: 김미숙 외, 2013에서 재인용).

나.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입양인의 가족찾기와 재회에 관한 법령은 입양특례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취지는 국내 · 외 입양인이 가족 찾기 및 정보공개를 의뢰할 때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입양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양가족의 신뢰도 제고 및 입양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출생배경 정보 획득을 통한 입양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0 입양실무매뉴얼, 61p.).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1. 개요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
○ (개념) 입양인이 입양 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 목적
- 국내·외 입양인이 가족 찾기 및 정보공개를 의뢰할 때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입양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 입양가족의 신뢰도 제고 및 입양가족의 권익 보호
-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출생배경 정보 획득을 통한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2. 용어의 정의

○ "정보"라 함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말함
○ "공개"라 함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입양된 (양부모) 또는 친가족 등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문서 열람
- 사본·출력물 제공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일"이라 함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 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일자 또는 구두로 청구한 일자를 말함
○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일"이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양정보공개청구서가 입양기록 보유 기관에 도착하여 접수한 일자 또는 구두로 접수한 일자를 말함
- 입양기록 보유기관은 신청·청구일과 접수일을 입양정보공개청구대장(전산기록 포함)에 기록, 보관하여야 함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출처 – 보건복지부, 2020입양실무매뉴얼, p61~62

이 법에 의하면 입양인은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보유한 입양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기록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법 제36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친생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보가 유출됨으로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양자로 된 자가 친생부모에게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럼으로써 그의 현재의 생활에 예기치 못한 방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가 친생부모의 신원을 알아내어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즉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지 생년월일, 현재의 주소, 연락처 등"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는 인적사항으로 분류했다(최승원 외, 2011, 41p.). 이에 따른 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는 다음과 같다.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련된 입양특례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다

제13조(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생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입양 당시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가. 이름
   나. 생년월일
   다. 주소
   라. 연락처
2. 입양 배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나. 입양일 및 입양 사유
   다.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2019. 7. 16.〉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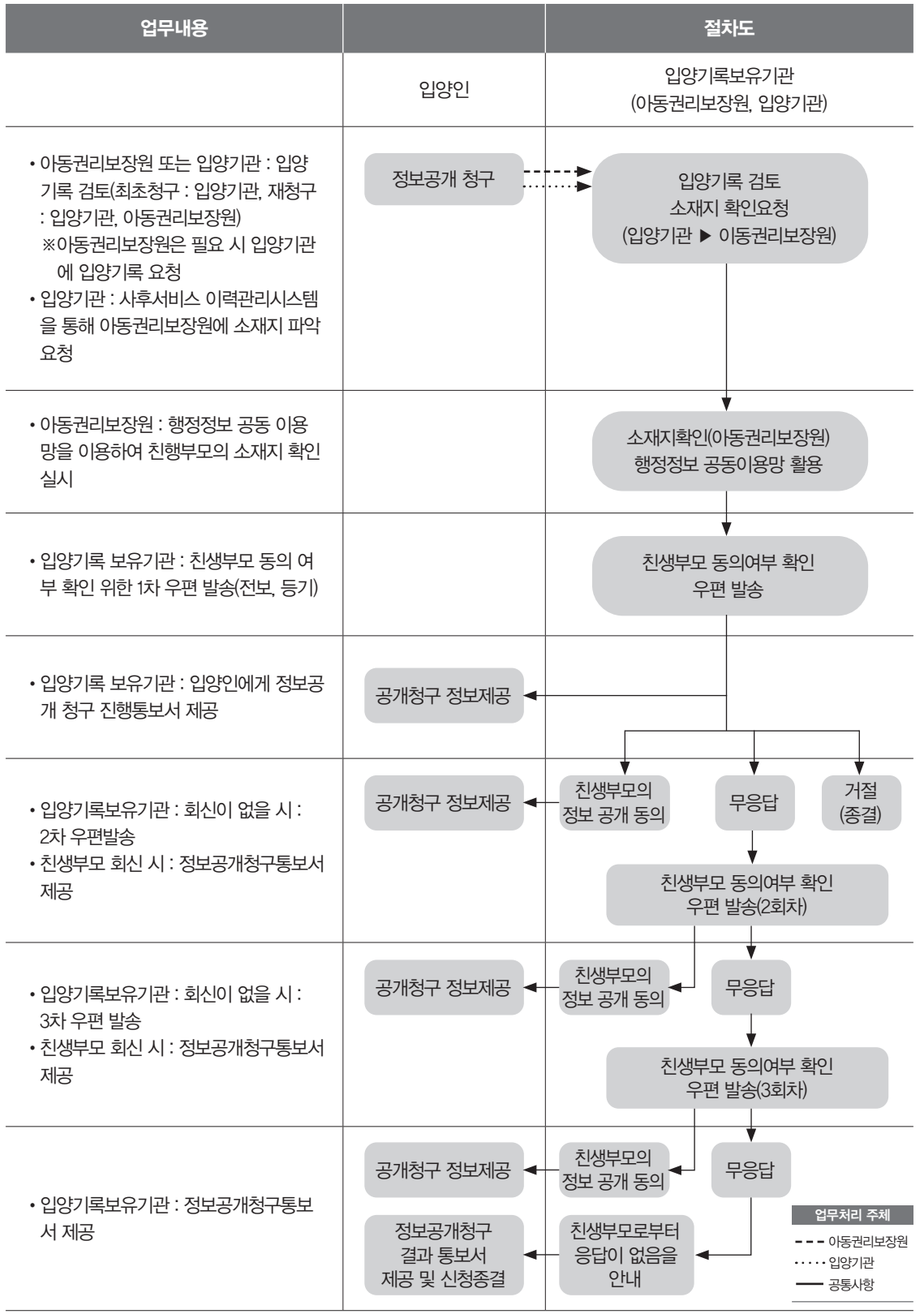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으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가 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6.〉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②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입양실무 매뉴얼(2020)에 의하면 입양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입양인에게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입양정보공개절차 및 흐름도 (보건복지부, 2020 입양실무매뉴얼)



입양인이 최초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입양기관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입양기관은 입양 당시 기록에 근거해 입양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친생부모의 현 거주지 주소 파악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행정정보 전산망을 조회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친생부모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고 입양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회신해 줄 것을 등기우편과 전보를 이용해 고지하는데, 친생부모에게서 입양정보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1회 편지 발송 후 10일 간격으로 2차례 동의 요청을 보낸다. 3회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친생부모에게 회신이 없을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종결된다. 만약 입양인이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면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 재청구하여 같은 절차를 밟는다.

다. 지원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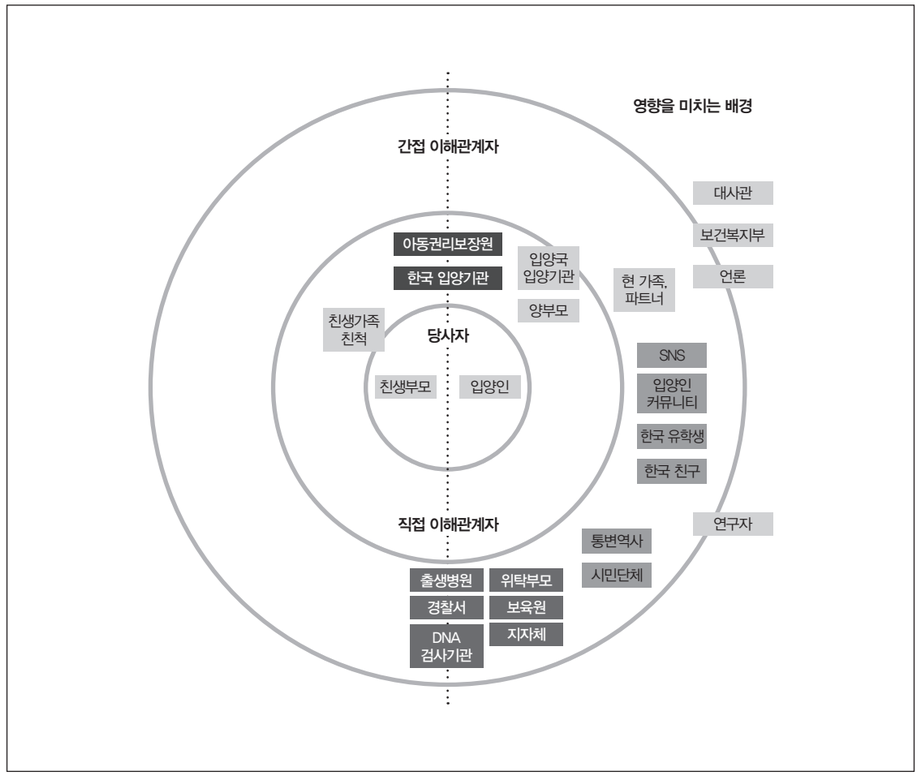
90년대 들어 해외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하면서 사후서비스의 필요가 대두되었다. 매년 재회, 관광, 행사참여 등을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의 수는 집계된 것만으로도 3-4천 명가량이다. 이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의 필요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1997년부터 외교부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을 시작했고, 2009년 보건복지부로 관련 사업을 이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모국방문과 가족찾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입양특례법 26조에 의해 국내입양 활성화와 사후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중앙입양원이 설립되었다. 이는 이미 1999년 정부 지원으로 4대 입양기관이 주도해 설립했던 입양정보센터(GAIPS)를 모태로 한 것인데, 이것이 2009년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입양원이 되었고, 2012년에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019년에 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꾸었다. 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해야 하는 주요 업무는 입양인의 재회에 필요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국내외 입양정책과 서비스 조사연구, 입양 관련 국제 협약 등이 있다.

해외입양인의 가족찾기 관련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아서 하게 되어 있지만 유전자검사 등 가족찾기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용을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에 해외입양인이 직접 접촉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부터는 해외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와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외교부 보도자료, 2019.12.19.).

(2) 이해관계자

뿌리의집 실무자들과 워크숍을 통해 해외입양인의 재회 과정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층위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자', '간접 이해관계자', '영향력을 미치는 배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분	주체		역할 · 입장
당사자	해외입양인		친생가족을 찾고 싶은 해외입양인. 친생가족을 찾고 싶지 않은 입양인도 있다.
	친생부모		대다수가 미혼모이다. 입양인을 만나고 싶을 수도, 상황에 따라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직접 이해 관계자	양부모		입양 당시 입양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록을 소지하고 있다가 입양인의 성장 과정 어느 시점에 보여줌으로서 재회 시작이 되는 단서를 제공한다. 입양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입양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형성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게 할 수도 있고, 친생가족 찾기에 지지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친생가족 · 친척		가족찾기 과정 혹은 재회 이후 만나게 되는 친 · 이복 형제자매, 외가 및 친가 친척들이다. 젊은 친척들은 재회 이후 소통 채널이 되기도 한다.
	한국 입양기관		입양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협정을 맺은 해외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은 1976년 이후 허가받은 입양기관에서만 해외입양사업을 할 수 있으며, 4대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을 진행해오다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최근 한국사회봉사회는 해외입양 사업을 중단하고 사후서비스만 진행하고 있다. 이들 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주 재원으로 삼고 있다.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로서 입양인과 친생가족에게 가족찾기를 지원한다. 입양당시 초기상담기록 등 입양아동의 정보가 담긴 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 입양인들은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입양기관에 입양자료 열람을 요청하거나 가족찾기 의사를 밝힌다.
	입양국 입양기관		입양인이 입양된 상대국의 입양기관이다. 현지에서 입양부모 발굴과 심사 등을 통해 입양아동과 매칭하여 입양을 진행한다. 사후지원서비스로서 캠프와 문화 행사, 한국어 교실, 모국방문 프로그램 등 입양부모 및 입양아동의 적응을 돕는 일을 한다. 입양인들이 가족찾기를 시작할 때 먼저 입양국 입양기관에 가족찾기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권리보장원 (구 중앙입양원)		뿌리찾기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적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이다.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메일을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친생가족찾기를 신청한다. 청구절차를 거치면 입양기관을 통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쳐 입양기록을 입양인에게 제공한다.
간접 이해 관계자	가족 찾기 조사처	출생병원, 위탁부모	입양인들이 출생한 병원이나 보육원, 위탁부모 등은 친생가족찾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입양인들은 입양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보육시설 (구 고아원)	
		경찰서	입양인들이 유전자 검사나 가족의 현 소재지 파악 등을 위해 방문한다.

간접 이해 관계자	가족 찾기 조사처	지자체	시 ·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으로 입양인들이 가진 단서를 바탕으로 과거 기록을 찾는 과정에서 방문하기도 한다
		DNA검사 기관	FamilyTreeDNA, Ancestry 등 유료로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여 매칭되는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관들과, 비영리단체인 325KAMRA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다. 입양인들은 이러한 기관에 자신의 DNA 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정보/ 지지/ 조력	해외입양인 권익옹호 시민단체	뿌리의집, GOA'L, Nest, InKAS, Me&Korea, 325KAMRA등 해외입양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 및 자조모임이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족찾기 과정에서 통번역이나 기관방문에 동행하기도 한다.
		입양인 자조단체 (커뮤니티)	온 오프라인으로 각국 및 지역별 다양한 한국출신 입양인 커뮤니티가 있으며 그곳을 통해 가족찾기 절차,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SNS	
		다른 입양인들	가족찾기를 진행했던 다른 입양인들을 통해 가족찾기의 절차에 대한 조언과 경험을 제공한다.
		현 가족이나 파트너	배우자, 자녀, 입양가정의 형제자매 등이다. 특히 자녀의 출생은 가족찾기의 중요 동인이 되며,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가족찾기의 지지자가 되기도 한다.
		한국 유학생	해외입양인이 한국문화를 접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다.
		한국 친구	유학생과 비슷한 역할을 하거나, 가족찾기 과정에 동행하거나 통역으로 조력하기도 한다.
		통번역사	재회 현장에서 통역을 하거나, 서신을 번역한다.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소통에서 중립적이고 탁월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재회 통번역은 주로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배경	영향을 미치는 주체	언론	특집 프로그램이나 기획취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족찾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담론이 형성된다.
		보건복지부	현재 보건복지부가 입양인 정보관리 및 사후지원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2009년 보건복지부로 입양인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입양인 사후지원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다. 해외입양인 백서를 발간하는 등 조사작업과 한국문화체험 및 고국방문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디아스포라로서 한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
		대사관	비자를 발급하고 각종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한다.
		연구자	입양 관련 연구를 통해 담론을 생산한다. 입양인의 지인으로서 재회에 조력하기도 한다

(3) 해외 입양인의 친생가족찾기 및 재회 과정

한국의 해외입양인들이 경험하는 재회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족찾기를 위한 동기형성과 결심, 두 번째는 친생가족을 찾을 단서로서 과거의 정확한 입양기록을 찾는 것, 세 번째는 현재 가족 소재를 파악하는 것, 네 번째는 첫 상봉을 포함한 재회와 준비과정, 다섯 번째는 재회 이후 단계다.

Stage 1 동기와 결심	Stage 2 입양기록 찾기	Stage 3 가족 찾기	Stage 4 재회		Stage 5 재회 이후
동기 형성과 결심	입양기록 찾기	가족소재 파악	재회 준비	상봉	재회 이후

① Stage 1. 배경: 동기와 결심

A. 입양인이 재회에 대한 동기나 계기를 갖게 되고, 재회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B. 입양인마다 다양한 시기에 재회의 동기가 형성된다. 가족과 다른 외모, 지역사회나 학교로부터 경험하는 인종차별 등을 통해 자신의 입양 이전의 삶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한다. 어린 시절 입양부모로부터 입양기록을 받고 배경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 한국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활동, 한국어교실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한다.

C. 해외입양인이 성인이 되어 재회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이 계기가 된 경우들도 많다고 한다. 또한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D.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부모가 보유한 입양기록이다. 양부모의 입양기록은 가족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있기도 하고, 실제 친생부모의 정보와 다르기도 하다. 입양부모들에게도 성장과정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입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미선 외, 2018).

E. 최근에는 해외입양인들이 SNS나 입양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향이 보인다.

② Stage 2. 입양기록 찾기

A. 재회를 결심한 해외입양인이 입양서류를 통해 친생부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나, 그러한 단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외입양인들은 본인이 양부모로부터 받은 입양서류에 기재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입양기관 서류철 '원본'에 접근하기 위해, 한국 입양기관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정보를 요구한다.

B. 과거에는 입양국 입양기관에 일차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해외입양인이 직접 이메일로 한국 입양기관에 연락하는 경우도 많다.

C. 처음에는 입양국에서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회신하기를 반복하다가, 한국에 방문해서 입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했을 때에는 이메일과 문서로 오가던 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③ Stage 3. 가족찾기

A. 우선 가족을 찾는다는 요청을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다. 요청받은 입양기관에서 알아본다고 회신을 하는데, 그 후에 친생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경과에 대해서 입양인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B. 입양기관이 친생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입양기록에 있는 과거의 주소지로 전보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입양기록을 남은 과거 정보로 친생가족의 현 주소지로 연락이 닿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보를 통한 가족찾기 성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C.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인이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열람을 요청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입양인에게 기록을 전달할 수 있다.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락이 닿더라도 입양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는 경우도 있다.

D.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현재 가족과 연락이 닿지 못한 입양인들은 직접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현재 가족 소재 파악에 나선다. 직접 출생병원, 보육시설, 위탁모, 주소지가 있던 지역의 경찰서나 지자체 등을 방문하며 친생부모의 소재를 탐문하기도 한다.

④ Stage 4. 재회

A.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를 찾았다는 연락이 오면, 우선 친가족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입양기관에서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입양 스토리가 맞는지를 맞춰본다. 요즘은 DNA검사를 사전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B. 첫 만남은 많은 경우 입양기관에서 짧게 이루어진다. 이때 통역은 입양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인 경우가 많다. 재회 장소에서는 갖고 있던 사진을 대조해보기도 하고, 통역을 거쳐 서로 질문을 나눈다.

C. 그 후 식당 등 다른 장소로 옮겨서 시간을 더 보내고,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만나거나 다른 친척들을 만나기도 한다.

⑤ Stage 5. 재회 이후

A. 재회 이후에는 현지에 돌아가서도 연락을 지속하기도 한다. 요즘은 카카오톡의 번역기능을 많이 이용해 소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친생부모보다 영어에 능숙한 젊은 친생가족이나 나이또래가 비슷한 친생가족 구성원들(이복형제·자매, 조카, 사촌들)과 좀 더 편안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다.
B.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만나기도 하고, 명절 때 만나기도 한다.
C. 친 가족과 재회한 줄 알았는데 재회 후 DNA검사 등을 통해 친부모자식 간이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찾기와 재회 과정을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해외입양인의 재회 절차나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입양인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가족찾기와 재회 경험을 토대로 프로세스의 패턴을 찾아보는 것은 입양인 입장 혹은 서비스·제도를 설계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문항 설계 및 분석도 이러한 단계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이 단계는 모든 입양인의 재회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입양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단계를 건너뛰고 한 번에 재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모국방문 단체여행이나 언론 방송을 통한 가족찾기 등), 친가족인 줄 알고 관계를 맺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부모자식 간이 아님이 밝혀져서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해외입양인의 친생가족찾기와 재회 과정에서 대략적인 패턴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이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점을 밝힌다.

[부록 2] 입양인 응답자가 재회를 원하는 입양인들에게 주는 조언

같은 입양인 당사자로서 재회 경험을 기반으로 가족을 찾으려는 입양인들에게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을 대할 때 조언하고 싶은 것을 물었다. 이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끈기를 갖고, 입양기관이나 서류를 믿지 말며, 가족찾기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 다른 입양인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으라.”

Q56. 입양인에게 조언

주제	세부 내용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라	꾸준히 싸워야 한다
믿지 말라	입양기관을 믿지 말라 입양서류를 믿지 말라
입양기관을 대하는 태도	예의바르게 행동하라 연기하라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요청하라
기대하지 말라	재회에 대해 기대하지 말라 거절당할 상황에 준비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다른 입양인들, 같은 절차를 경험한 사람 지지적인 단체(뿌리의집, 해외입양인연대 등)의 도움을 구하라 한국인 번역가나 내부인에게 혼자 하려 하지 말라 입양기관에게
기타	한국말을 배우라, 불분명한 답변은 반복해서 물으라 호적을 보유한 지자체에 연락하라 그 누구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조사하라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라는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

“절대 포기 하지마세요! 예의는 바르게, 하지만 끈기있게 행동하세요. 그들이 하는 모든 얘기와 입양자료에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no.5)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 조사하세요. 입양기관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거나 당신의 감정과 느

껌을 받아드리는 데 기다려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옹호자가 되어 의지를 갖고 관련 기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세요."(no.41)

"믿지 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았고 그 대상은 대부분 입양기관과 입양서류였다.

"입양서류의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입양기관에서 친부모께서 처음으로 보내신 편지에 답변으로 제가 쓴 편지를 번역해서 보내야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고 입양기관에서 잊어버리고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했고 서로 연락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no.20)

가족찾기의 순조로운 진행이나 재회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조언도 많았다.

"꼭 필요하다면 진행하세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거절당할 상황에 준비하세요."(no.55)

입양기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있었다. 입양기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예의바르게 행동하라", "연기하라", "울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말하라" 등이었다. 직접 방문할 것, 통역사나 한국인을 대동할 것, 담당자와 사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 거절당하더라도 기관의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 등의 조언도 있었다.

다른 입양인, 통역사, 입양인 지원단체 등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양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족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해 가급적 한국 내에서, 가족찾기 경험이 있지만 입양기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가족찾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최고의 지지자입니다."(no.159)

그 밖에 지자체에 문의하라거나, 그 누구의 도움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답변도 있었다. 입양기관이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한 건 있었다.

[부록 3] 설문조사지(입양인 서베이 설문지〈영문〉)

Adoptee Survey on Search and Reunion

Dear all friends and guests of KoRoot,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Though, this formal greeting makes me always feel short). I sincerely wish your wellbeing and your successful maneuver of life when rain or shine.

Before I offer a background about the research project and soliciting your participation, I first would like to acknowledge a sense of discomfort this email might incur in you. Over my working experience at the KoRoot, I have learned of ambivalence on adoptee-focused research in adoptee community and am clearly aware of some discomfort or sense of awkwardness upon your reception. I apologize for your discomfort, if you feel it.

2020 is the 17th anniversary of KoRoot, the guesthouse for Korean adoptees in Seoul, Korea. Established in 2003, KoRoot has offered a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adoptee forums, and adoption-related services for adoptees. Its work led to the revision of adoption law to secure more transparency and children's rights within the adoption process, and it has been involved in advocacy work for single mothers' rights. While 16 years of service and advocacy work has generated positive changes within adoptee communities and Korean society as a whole, we have witnessed how consistently difficult it is for adoptees to find their Korean families and gain access to their adoption information.

To bring social awareness to the issues experienced by both adoptees and Korean birth families, KoRoot has set out on its first research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Hosu Kim, a sociologist and author of Korean Birth Mothers and Transnational Adoption Practice in South Korea(2016). The project employs two major methods—a survey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s—with both adoptees and Korean birth families involved in transnational adoption.

As the first preliminary research on both adoptee and Korean family's search experience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the empirical bedrock of knowledge and ultimately bring forward meaningful development of reunion service both at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To this end, your generous sharing of time and experience is a key.

Once again, I acknowledge you might feel a little strange or awkward to receive the survey. But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in this survey, it would be so helpful. Thank you.

pastor Kim Do-Hyun
president of KoRoot

Adoptee Survey on Search and Reunion

This survey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adoptee experiences in their searches as well as to assess adoptees' needs and level of satisfaction with current service providers (e.g., adoption agencies, NCRC-former Korean Adoption Services-, and others). The questionnaire takes about 45 minutes to complete. We aim to hold a public forum and present the findings to adoptees, birth families, policy makers, and other relevant audiences in 2020.This study will be conducted between February 11, 2020 – March 10, 2020. The information collected will be kept confidential and anonymou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study, please contact principal investigator Hosu Kim at adopteesearchsurvey@gmail.com.

Reminder: This is a survey for adoptees only. The last day to fill it out is March 10, 2020.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

(1) Title of research project: A Step toward Healing and Reconciliation: Experiences of Search and Reunion among Korean adoptees and Korean birth families in Transnational Adoption
(2) Research period: August 2019 ~ February 2020
(3) Principal Investigator: Hosu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College of Staten Island, CUNY 김호수(뉴욕시립대학교사회학/인류학부교수)
(4) Co-Researcher: KoRoot 사단법인 뿌리의집(www.koroot.org | www.korootgh.com)

Adoptee Survey on Search and Reunion

Part 1. Basic Demographics

Q. Adoption Year

_____

Q. Birth Year

_____

Q. Adopted Country

- Australia
- Belgium
- Canada
- Denmark
- France
- Germany
- Italy
- Luxembourg
- Netherlands
- Norway
- Sweden
- Switzerland
- USA
- UK
- Other _____

Q. What is your gender?

- Male
- Female
- Other _____

Q. Please identify your adoption agency in your adoptive country.

_____

Q. Please select your adoption agency in Korea

- Holt Children's Services(Holt) 홀트아동복지회
- Social Welfare Society(SWS) 대한사회복지회
-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ESWS) 동방사회복지회
- Korea Social Service(KSS) 한국사회봉사회
- Other _____

Q. E-mail address

_____

Part 2. Background Information

1. How many times have you visited Korea?

- 5+ times
- 2-4 times
- once
- never

2. By what means did you come to Korea?

- Personal arrangement
- A group tours
- Both

3. If you visited Korea as part of a group tour, please indicate the name of the tour and organization.
(ex. Me & Korea's Mosaic Tour; Me & Korea's Hapa Tour, Holt - HAPPY JOURNEY, SWS - Welcome Home, ESWS - Home to Home, G.O.A'L - First Trip Home, NEST Korea - Let's Go to Korea etc)

_____

4. Have you ever wanted to search for someone genetically or biologically related to you in Korea?

- Yes
- No

5. Have you ever contacted your adoption agency in Korea?

- Yes
- No

6. Have you registered your DNA for search?

- Yes
- No

6-1. If yes, where did you take your DNA test?

_____

7. Have you met any of your Korean family?

- Yes
- No

8. Did you receive your adoption record from your parents?

- Yes
- No

8-1. When was the first time you accessed your records? At your age of

_____

8-2. What documents were you given access to?

_____

Part 3. Adoptee Request on Adoption Information

Adoptee experiences at adoption agencies (only for people who made (a) contact(s) Korean agencies; otherwise, please skip this section and go to Part 4-2)

9. How did you contact adoption agencies in Korea to access your information? Please select all.

- Visits
- Email
- Phone
- Other _____

10. Did the adoption agency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on your request?

- Yes
- No

11. Did you receive any additional information on your request?

- Yes
- No

11-1. If yes, what kinds of information did you receive?

_____

12. Were you able to look at your original adoption document at the agency?
(Documents made by orphanage, police, temporary child protection center, hospital, adoption agency, local government, passport etc. Your pictures, letters from birth family.)

- Yes
- No

12-1. Did you receive the copy of your adoption documents?

- Yes
- No

12-2. If you got some copies of your adoption document, which documents you got?

_____

13. How many times did you have to visit your adoption agency to receive this information?

- Once
- 2-3 times
- 5 times
- 5+ times

14. Who accompanied you when you visited the adoption agency? (Select all)

- Adoptee friend(s)
- Korean Friend(s)/acquaintence
- Family
- Professional Interpreter
- Civic organization volunteer
- None
- Other _____

15. What factors do you think helped you to gain access to your information? (Select all that apply)
    - frequent contact (emails, calls)
    - Frequent visits
    - Going with a Korean language interpreter
    - Going with an adoptive family member
    - Other _____

16. What'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that you need to have in order to proceed in your family search?

_____

17. Have you ever paid any fees to your adoption agency in return for your adoption information?
    - Yes
    - No

18. Have you ever been asked to offer a donation in return for your adoption information?
    - Yes
    - No

19. Were the staff at your adoption agency initially reluctant or discouraged you from accessing your information?
    - Yes
    - No

19-1. If yes, can you briefly share the interaction with adoption agency workers?

_____

20. How satisfied were you overall with the services that you were provided at the adoption agency upon your inquiry on adoption information?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Part 4-1. Adoptee experiences in family search (adoption agency)

[adoption agency] For adoptees who made (a) visit(s) Korean agencies for family search; otherwise, please skip this section and go to Part 4-2)

21. Did the adoption agency offer an adequate level of guidance about the search process?
    - Yes
    - No

22. Did the adoption agency offer adequate services for you to look up your own adoption documents?
    - Yes
    - No
    - Other _____

23. Did the adoption agency provide any updates on your search?
    - Yes
    - No

23-1. If yes, how often did you receive follow-up information?
    - Once a month
    - Once in three months
    - Once in six months to year

24.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overall attitudes and performance of the Korean adoption agency workers you interacted with?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25. Which language did you communicate with the Korean adoption agency?

- English
- French
- German
- Korean
- Other _____

26. How satisfied were you with their translation services?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27.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kind of discrimination and disrespect by adoption agency workers?

- Yes
- No

27-1. If yes, can you briefly detail how you felt discriminated or disrespected by adoption agency workers?

_____

28. How satisfied were you overall with the services that you were provided at the adoption agency upon your inquiry on search?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Part 4-2. Adoptee experiences in family search (KAS)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doptee experiences at Korean Adoption Services (KAS), which was recently renamed as the National Center of the Rights of the Child (NCRC).(Please fill out if you have visited or contacted KAS/NCRC as part of a search; otherwise, please skip this section and go to Part 5)

29. Did KAS offer adequate explanations and information about the procedures and steps entailed in the search process?

- Yes
- No

30. Did KAS offer adequate services for you to look up your own adoption documents?

- Yes
- No
- Other _____

31. Did KAS provide an update on your search?

- Yes
- No

31-1. If yes, how often did you get the follow-up information?

- Once a month
- Once in three months
- One in six months to year

32. How satisfied were you with their translation services?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33. Which language did you communicate with the KAS?

- English
- French
- German
- Korean
- Other _____

34.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kind of discrimination and disrespect by KAS staffs?

- Yes
- No

34-1. If yes, can you briefly detail how you felt discriminated or disrespected by the KAS staffs?

_____

35. Overall, how satisfied were you with the services that were provided by KAS upon your inquiry on search and information?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Part 5. Your search through other civil/governmental agencies

36. In addition to the KAS and Korean adoption agencies, please indicate any other places and organizations that you visited for your search. (Please select all)

- Orphanages
- Police Stations
-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unicipal offices)
- G.O.A.'L.(해외입양인연대)
- Nest Korea(둥지)
- INKAS
- Churches
- Other individuals (adoptee friends, Korean friends, and etc.)
- Other organizations
- Other _____

37. Did you contact or interact with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unicipal offices) during your search?

- Yes
- No

38. If yes, did you fi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adequate support for your search?

- Yes
- No

38-1. If not, please explain your answer

_____

Part 6. "reunion" experience

For adoptees who have reunited with your birth family,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your experience. Otherwise, please go to Part 7.

39. Have you reunited with your birth family?

- Yes
- No

39-1. If yes, when did you reunite in person with your Korean family?

_____

39-2. With whom did you reunite?

_____

39-3. Where did the reunion take place? (city / place)

_____

40. Was your reunion initiated with a DNA test?

- Yes
- No

41. Who among the following contributed the most to your reunion with your Korean family?

- Adoption agency
- KAS (Korean Adoption Services)
-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unicipal offices)
- Police
- Media (TV, Radio, Newspaper etc)
- civil organizations (such as G.O.A.'L, KoRoot, and other adoptee advocacy orgs)
- Motherland Tour
- individuals
- Other _____

42.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find your Korean family?

(year / month)

_____

43. How much did you spend for your birth family search? for example, USD10,000 or 5,000 EURO.

_____

43-1. Can you tell me the detailed cost for your birth family search? for example, travel cost (flight, accommodation, etc)

_____

44. Which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helped you to find an interpreter? (Select all)

- Myself
- Adoption Agency
- Korean Adoption Service
- other adoptee advocacy organization
- individuals
- Other _____

45. What kinds of assistance did you seek for the reunion?

_____

46. What kinds of assistance did you receive?

_____

47. Do you have any positive or good feelings associated with the reunion experience?

- Yes
- No

47-1.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union experience?

_____

48. Do you have any negative or unresolved feelings associated with the reunion experience?

- Yes
- No

48-1. Could you share your negative or unresolved feelings below?

_____

49.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reunion experience?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50.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translation provided?

1	2	3	4	5
Very Dissatisfied		○ ○ ○ ○ ○		Very Satisfied

51. Are there any particular services (e.g., translation, counseling, or legal advice, etc.) that you wish to receive with regards to your reunion experience? Please check all answers that apply.

- Adoptees' level of proficiency in navigating Korea's adoptionsystem.
- Access to translation of documents
- Access to interpretation in family meetings
- Prep workshop for cultural sensitivity and other related issuesbefore reunion meeting
- Mental health/support guides, literature, etc.
- Other _____

52. Do you stay in contact with biological family in Korea?

- Yes
- No

52-1. If yes, with whom and by what means do you stay in touch?

_____

53. How often do you contact each other?

- 3+ times / week
- 3+ times / month
- 1-2 times / month
- 1-2 times / 3 months
- 1-2 times / year
- No contact

54. Have you returned to Korea after the first reunion?

- Yes
- No

55. Do you have any difficult in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Korean family?

- Yes
- No

55-1. If you say yes, could you please share the reasons?

_____

56. Based on your reunion experience, what is the main thing you would advise to fellow adoptees in dealing with adoption agencies or KAS in their search?

Part 7. Your Suggestions for better search and reunion experience

57. Based on your experiences and observations, what suggestions do you have for civic organizations (such as G.O.A.'L., or KoRoot or others) which provide supports for adoptee searches?

58. What suggestions do you have for the adoption agency in Korea?

59. What suggestions do you have for KAS?

60. If you have anything you would like to elaborate about this survey's subject of "reunion,"and "healing" or "reconciliation", we would greatly appreciate hearing your thoughts (for instance, the personal journey, the process, the services, post-reunion experience, etc.)

Part 8. Follow-up process

61. We would like to conduct follow-up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by email. Would you be willing to be contacted for a follow-up interview?
    - Yes
    - No

61-1. If yes, please leave you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62. As part of this research project on reunions, we als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birth families on their experiences in the search and reunion process. If you are in contact with them, would you be willing to recommend your birth family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project? If so, please write down you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We will separately contact you to set up prospective interviews with your Korean birth family.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time and care you have put into answering this questionnaire and contributing to this research project.

에필로그

에필로그

김도현 목사 / 뿌리의집 대표

4년 전, 그러니까 2018년 5월 7일,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던 날이었다. 우리는 북한산 북녘 기슭 숲 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 작은 연수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인수원이라 이름하는 곳이었다. 뿌리의집이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사용하곤 했던 곳이었다. 그날의 주제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그리고 인간도서관〉이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앞 쪽에는 그랜드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인상 깊은 회화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작은 부엌 공간이 있었고, 우리는 그날 하루를 위한 먹거리로 빵과 치즈, 올리브와 와인 두 어 병, 그리고 과일과 커피를 넉넉하게 마련했다. 우리는 입구 한 켠에 "이별과 상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우린 다시 만났네"라고 쓴 배너를 세워 두었다.

큰 산 기슭으로 밀려들던 햇살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아침, 스무 명 남짓 해외입양인들과 친생모들은 꽤 긴 숲 길을 걸어 연수원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둘러 앉아 자신들의 재회 이야기들을 담담히 나누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성소수자인 남성 입양인의 친생가족 재회의 이야기. 재회의 첫 만남에서 엄마가 그 날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다시는 보지도 찾지도 말자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한 여성 입양인의 이야기. 프랑스와 덴마크에 각각 살고 있는 두 아들과의 재회를 경험한 친생모의 눈물겨운 이야기.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점차 침묵과 애도의 골짜기로 들어섰다.

원래 계획으로 치면,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순서였다.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회의 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일이었다. 30 년 만에 한국에 도착해 엄마를 만나 며칠을 지낸 C와 C의 남편, 한국의 친생모 S와 그녀의 따님(아버지가 다른 C의 동생)을 우리는 무대 한 가운데로 모셨다. 우리는 케이크의 촛불을 밝히고 꽃다발을 C와 그녀의 친생모 S의 품에 바쳤다. 그리고 그 자리을 위해 초대받았던 한 테너 성악가의 축가로 그들의 재회를 축하했다. 축하의 노래가 끝나고 C와 엄마 S가 재회를 축하해줘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는 시간, 엄마 S는 결국 일생 동안 가슴에 꽁꽁 여며두었던 울음을 폭포수처럼 터뜨리고 말았다. 우리는 당황했고, 미안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축하의 방식을 통해 재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했던 선한 의도는 그녀의 마음에 이론적으로 가 닿았을지 몰라도, 그 순간은 결국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아픔의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중인환시 가운데서 자신의 생감정과 한(恨)을 터뜨린 일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날 후 우리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뿌리의집은 2003년 문을 연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해외입양인들의 가족찾기에 대한 조력을 감당해오게 되었다. 입양기록을 꼼꼼하게 함께 읽고, 입양기록이 지니고 있는 다층적 함의들에 대해 조언했다. 입양기관들, 아동권리보장원, 경찰서, 보육원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고 때로는 동행했다. 재회가 성사될 경우 그 자리에 동석해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소통의 지평을 열어내기 위해 분투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통 • 번역을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더욱 지난한 작업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흐름의 선상에서 위에서 말한 2017년 입양인 C와 친생모 S의 재회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의미를 보도 깊이 새겨보고자 하는 뜻으로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그리고 인간도서관〉를 기획했지만, 적어도 재회의 두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보면 참담한 결과를 내고 말았다. 이 날의 실패가 뿌리의집으로 하여금 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조력을 위해서는 재회에 관한 리서치를 통한 보다 통전적인 성찰과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이 리서치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점에서 실패로부터의 발돋움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한 편, 2018년 11월 해외입양인들과 뿌리의집이 함께 기념하는 연대의 날에 우리는 김동수 교수님과 백숙자 교수님 내외분을 초대했다. 김동수 교수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노포크 주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봉직했다. 벡숙자 교수님 역시 노포크 주립대학교에서 가르쳤다. 김동수 교수님은 1970년대 한국사회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재미한국인 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재미한인교수협의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치열한 활동을 하신 분이다. 1980년대에는 남 • 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대화 모임들을 이끄시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김동수 교수님은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학자와 교수로 살았고,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한국 아동의 입양과 적응에 관한 연구였다. 국가 간 아동 입양이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에 이 분야의 연구를 하셨다는 점에서, 교수님은 한국입양학 연구의 선구자였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와 숭실대학교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한 편,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셨다.

또한 김동수 교수님은 독립운동가 김예진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다. 김예진 목사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기리기 위해 김예진목사기념사업회를 조직했다. 기금은 김예진목사님의 자녀들이 수령하는 독립운동가유가족보훈금 전액을 매달 저축해서 마련했다.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김동수 교수님은 2019년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 뿌리의집이 계획하는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연구에 관한 소식을 듣고, 김예진목사기념사업회의 마지막 기금을 연구비로 지원해주셨다. 비록 매우 작은 금액(5백만원)이었지만, 액수보다 훨씬 큰 의미가 깃든 연구비 지원이었다. 이 연구비는 일제 하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의 얼과 피가 어린 연구비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뿌리의집에게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구조(structure)가 되었다.

뿌리의집은 뉴욕주립대학교 스테이튼 칼리지의 김호수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모셨다. 듣는연구소의 우성희 대표에게 양적연구의 분석을 부탁했다. 책임원구원으로서,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일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으신 중에, 거기다가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공간적 제약도 있으셨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의 과제의 무거움에 비추어서 가난한 시민단체가 책정한 예산은 왜소하기 그지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일을 맡아주시고 이 보고서를 내시는 일에 여러 해에 걸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셨다. 오늘 이 연구보고서 발간은 교수님의 이러한 노고를 빼고는 백퍼센트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생각하며 김호수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양적 연구를 뿌리의집 실무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여러 차례 뿌리의집을 방문해서 섬세하게 검토하면서, 마지막 분석까지 해주신 듣는연구소의 우성희 대표에게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뿌리의집 황선미 기획실장과 김창선 권익옹호팀장의 실무적 층위의 수고 역시 결정적이었다. 두 분의 수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작업을 시작할 무렵 연구조력자로 힘을 보태주신 전세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는 인터뷰에 응해주신 171명의 해외입양인들과 심층면접에 응해주신 열 분의 친생가족에게 드린다. 모름지기 자신의 생의 속살은 아무에게나 내보이는 법이 아니다. 그것도 자신이 실패라고 간주하는 삶, 슬픔과 회한, 모욕과 분노가 소용돌이가 자신의 삶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삶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연구란 언제나 공적 드러냄을 지향한다. 그게 연구이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해외입양에 연루된 재회의 품격을 새롭게 가꾸어 내려는 뿌리의집의 뜻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생의 속살들을 기꺼이 풀어 내어 말씀을 주신 해외입양인들과 친생모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 한 가지 송구하기 그지없는 일 중의 하나는 아직 이 보고서는 한국어로만 출간된다는 사실이다. 생의 속살을 드러내 주신 분들에게, 우리의 연구가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보고하는 의무가 남아 있다. 가능한 길을 모색해보리라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한다.

연구는 생각보다 진척이 많이 느렸다. 그러던 중,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김동수 교수님께서 별세하셨다. 교수님께 연구보고서를 내는 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리며, 거듭 송구함을 표했는데, 미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늘에 드셨다. 이제 이 연구보고서를 고인의 영전에 바친다. 이 작은 보고서의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는 교수님 내외 분의 학문과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분투를 되새긴다. 무엇보다도 짧은 몇 달 간의 사귐 가운데서 보여주신 교수님 내외분의 사랑과 겸손, 평화와 기쁨이 흐르는 위트와 유머를 그리워한다.

2022년 7월 30일